

제원 스님(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만나는 인연마다
간절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9월 26일) · 주간

제964호 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대안교육 20년, 불교는 여전히 불모지

한국의 대안 교육의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성년이 된 것이다. 경쟁위주의 공교육에서 환멸을 느낀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찾고 있고, 최근에는 탈북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을 특성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대안 교육의 장들이 생겨나고 있고 개신교, 카톨릭, 원불교 등 종교들도 적극적으로 설립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대안 교육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안학교는 제도적 규제를 받고 학력을 인정하는 인가 학교와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운영하지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가 학교로 나뉜다.

현재 대안학교 및 대안 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총 54곳. 본지 조사 결과 이중 불교 대안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정부 인가 대안학교는 19곳. 이중 기독교는 7곳, 원불교는 1곳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11곳인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기독교 3곳, 원불교 4곳이었으며,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총 24곳 중 기독교는 9곳, 원불교는 5곳으로 집계됐다. 종교별로 집계하면 기독교가 19곳, 원불교가 10곳에 이르고 있으며, 수치로 보면 기독교가 전체의 35.1%, 원불교가 18.5%에 달한다.

학교 외 민간단체의 대안학교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200여 곳에 이르는 민간단체 대안학교 중 기독교 사상을 표방한 학교는 약 133곳에 이르지만, 불교계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실상사 작은학교와 골굴사 선무도화랑학교, 해인스쿨 등 3곳뿐이다.

장기 위탁형 대안학교 경우 삼전종합사회복지관과 자양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아란야 대안학교'와 '나란타 대안학교', 함안 미륵사 주지 일광 스님이 교장으로 있는 경남보건고등학교 등 3곳만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인드라망 대안대학'이 준비되고 있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불교계의 대안교육 분야의 참여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사찰이 가지는 자연 환경, 불교 철학과 사상은 아이들을 전인적 인간으로 키워내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옥자 동국대 교수는 '불교의 대안교육'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불교의 대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의 교육 환경은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중돼 있어왔다. 이를 넘어서는 가치지향적인 인격 교육이 필요하다"며 "종교성은 인격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불교계 대안학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01년부터 실상사 작은학교를 운영해 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운영할 인재가 없고, 스님들이나 재가자들의 관심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불교는 대안 교육을 위한 철학적, 환경적 인프라는 충분하다. 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인재가 없고, 관심도 없다"면서 "오래 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1교구 1대안학교'를 제안했지만 대부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가 특성화학교 불교 全無
기독교 19곳, 원불교 10곳

인드라망 실상사 작은학교 등
미인가 불교 대안학교 3곳뿐

위탁형도 3곳… 차이 '현격'

환경 · 철학 등 인프라 좋으나
인재 · 관심없는 총체적 난국

스님은 "실상사 작은학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부, 목사와 이웃종교 학부모다. 불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대안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변화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대안교육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역시 "중앙승가대 내에서도 안암동 부지를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이 논의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불교적 철학이 담긴 교육 과정을 개발해 대안학교를 운영하면 차세대 불교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교구본사들이 대안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인터뷰 4면



10월 24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진행된 '밀양 송전탑 대국민 호소릴레이 765배'에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동참해 정부와 한전, 시민들에게 송전탑 건설을 막아달라며 호소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 밀양의 입이 되고 손이 되다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발벗고 나섰다. 지난 10월 24일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이하 조계종 노동위)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 송전탑 반대 대국민호소 릴레이 765배에 동참해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부위원장 혜조 스님, 노동위원 도철 스님, 조계사 신도사업국장 법공 스님 등 30여 명이 참여해 1인당 20배씩 총 765배를 했다. 765배는 건설중인 송전탑 전압규모 765KV를 상징한다.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건강, 자연, 공동체 파괴, 사유 재산 점유 등 76만 5천 볼트의 고압선이 지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며 "밀양 송전탑은 환경문제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모두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대중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역 내에서 전기 생산 · 소비하는 분산형 전원체계 수립 △신고리3호기 폐쇄 △핵발전소 비중 낮추는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합의 기구

조계종 노동위 765배 동참
환경위 공사중지 성명 발표
시민단체는 농활 통한 연대

마련 등을 요구하며 1배씩 절했다.

이와 함께 10월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이하 조계종 환경위)가 송전탑 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대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은 정의롭지 않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송전탑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를 가파르게 늘리는 현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에 에너지 효율화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밀양 주민들을 위한 불교계의 실질적 배려도 돋보인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살자'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밀양으로 농활을 떠나는 것이다. 서울에서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생업을 놓은 주민들의 농사 일손을 돕기 위해서다.

주최측은 "밀양 주민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농활을 기획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는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면 된다. (02) 722-5010 **배현진 기자**

964호 INDEX

시방세계 5
월정사 제10회 오대산 축전 성료

종합 2·3
조계종 내년 예산 편성 기조
東大 불교대학 '비전 2020' 발표

신행 6
수험 스트레스, 산사에서 풀자

강의실 중계 8
담양 정토사 주지 한탑 스님

학술문화재 9
"세계화 위한 국제학술지 지원 필요"

테마로 읽는 사찰 기행 12
대장금 촬영지 고창 도솔암

해외 18
돈황 막고굴 英 런던서 재조명



"대흥사 삼세불상 조선 후기 대표작"

한국미술사硏 '불상 조성기' 발견…삼세불로는 最古



해남 대흥사 삼세불상

해남 대흥사 삼세불상이 조선 후기 미술의 시작점을 알리는 대표적인 불상임이 밝혀졌다. 아울러 삼세불상의 복장에서 당대 불교의례를 살펴볼 수 있는 전적 또한 대량 발견됐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0월 15일 "삼세불상 개금불사 과정에서 불상 복장에서 조성기와 복장품 등을 찾았다. 불상조성기에서 불상의 제작시기가 광해군 4년(1612년)으로 밝혀졌으며 국보급 가치를 지닌 문화재 수백 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흥사 삼세불상(三世佛像,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은 17세기 대표적인 불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정확한 연대를 밝히는 자료가 없었다. 학계에서는 광해군 대인 1609년을 조선 후기 미술이 시작된 해로 보고 있다. 그동안 1600년대 초의 문화재가 많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급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견된 불상 조성기에는 '시유명황만력사십년세차임자팔월십육일두륜산대둔사(時維皇明萬歷四十年歲次壬子八月十六日頭輪山大芚寺) 법당당주석가약사미타삼존소성복장기'라는 내력이 적혀있다.

문명대 교수는 "정유재란(1597) 당시 왜적들에 의해 대흥사가 소실됐는데 그 후 불교계가 힘을 합쳐 사찰을 중창했다. 10여년 동안 법당과 부속시설을 복구했으나 본존불상은 수년째 주관해 만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여러 사람들의 시주로 인해 1612년 8월 16일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삼세불상이 17세기 조각승으로 이름을 떨친 태전 선사의 작품인 점도 불상이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게 문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미술사연구소는 11월 9일 이번 대흥사 삼세불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논란된 불교방송 이사 정수 변경 이월

제84차 이사회서 결정… 신임 이사 미산 · 능원 스님

불교방송 이사회가 사장복무규정을 폐지하고 논란이 됐던 이사 정수 변경 개정안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했다.

불교방송은 10월 25일 서울마포 가든호텔에서 제84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종하 스님을 비롯해 원산 스님, 향적 스님, 장적 스님, 진각종 회정정사 · 무외정사,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구상진 · 김윤수 불교진흥원 이사 등 재적이사 20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또한 사장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장복무규정을 폐지하고, 사규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사장복무규정 폐지'는 그동안 부장급 인사시 이사장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을 폐지 사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켰다.

법규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날 이사회에 정관 개정안과 임원규정, 지방사 설립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다음 이사회로 이월됐다. 이 중 정관 개정안은 △이사 정수 21인 이하로 조정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의 당연직 이사 조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조계종 이사를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조계종 측의 비난이 이어져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이사로 중앙승가대 총장대행 미산 스님과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을 새 이사로 선정했다. 미산 스님은 중앙승가대 전 총장 태원 스님의 후임으로 학교법인 승가학원에서 추천했으며 능원 스님은 전 이사장 영담 스님의 후임으로 쌍계사에서 추천했다.

불교방송 제85차 이사회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국민통합위해 불교가 힘 써달라”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자승 스님 예방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10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유영익 국편위원장 문제제기도
중국선 수행단 방문 등 잇달아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10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에 불교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 통합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 “예로부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불교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인 사회 통합을 위하 불교가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프로세스 등 4대 기조를 밝혔다”며 “경제가 잘 돼야 국민이 행복해지고, 문화도 향유할 수 있다. 이는 통일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기조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함께 배석한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종교편향적 역사인식으로 임명 전부터 논란을 빚어온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해 불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취임을 강행했다”면서 “이 같은 문제에 한 위원장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21일에는 중국불교선수행단이, 10월 24일에는 남바린 엥흐바야르 前 몽골대통령이 자승 스님을 각각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국장단 일부 인사 단행

25일 사회국장 혜만 스님 등 임명… 34대 인사 시작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중앙종무기관 일부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자승 스님은 10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사회국장 혜만 스님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새로 임명된 스님은 사회부 사회국장 **혜만**, 호법국장 **탄원**, 조사국장 **법원**, 호법부 상임감찰 **성공**, 호법부 상임감찰 **탄탄**, 호법과장 **효신**, 조사과장 **향림**,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명본** 스님 등이다.

자승 스님은 “빠른 시일 내 업무파악을 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아울러 호법부는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사회국장 혜만 스님은 1993년 철안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와 해인율원을 졸업하고 교육원 행자교육 습의사, 단일계단 구족계 습의사, 교육원 외국인 승려교육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오봉사 주지, 묘적사 주지, 봉영사 주지, 총무원 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봉암사에서 정진했으며 현재 자재암 주지, 경찰청 경승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0월 25일 사회국장 혜만 스님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계종 내년 예산 450억원… 5% 증가

조계종, 2014년 종단 예산 편성 기조 발표

2014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24일 종무회의에서 ‘불기2558(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38억 9천만 원, 특별회계 211억 5천만 원 등 총 450억 5천여 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5%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조계종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조는 성과 ‘미진 사업 정리’와 ‘차기 집행부 신규 과제 집중’이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24일 종무회의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제34대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종단 발전을 위한 사업과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성과가 미진하고 불분명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자연 인상분을 감안해 전체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기획실에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변화는 특별분담금사찰의 분담금이 올해 대비 38% 증액됐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가 특별분담금을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할 것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부서, 미진한 사업 예산 감액해
예비비 19억원, 차기 사업 고려
통합 전산망 등에 집중 편성
11월 1일 중앙종회서 심의 확정

중앙분담금과 직할분담금은 물가 인상율을 반영해 각각 3% 가량 증액됐으며, 직영사찰분담금 역시 5%선인 4억 가량 증액됐다.

신도교무금은 특별회계 잔액 감소로 인해 일반회계 전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포교원의 신도교무금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지출을 줄여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조계종 출판사는 사업 추진비 확보를 위해 이익배당금에서 종단 전입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했다.

세출 예산에서는 제34대 집행부 출범 첫 해로 원할한 종무 행정을 위한 예비비 19억 원을 편성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재무부 예산 중 예비비에 반영됐다.

또한 세종, 위례신도시 등의 종교용지 구입을 위한 특별회계 등이 포함돼 재무부 예산은 51%가량 증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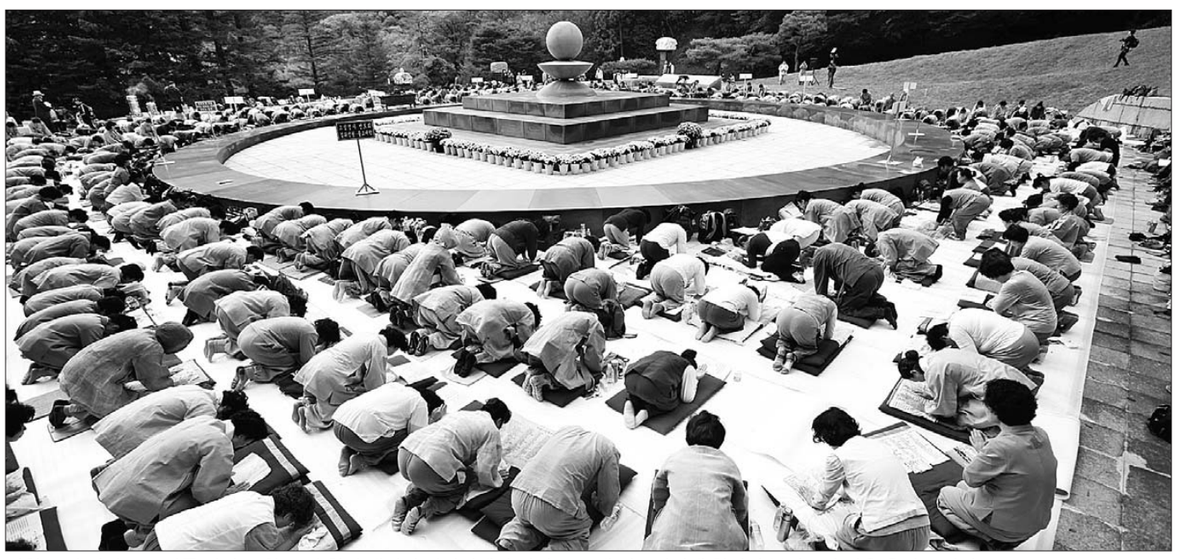
총무부와 기획실 역시 예산이 증액된 부서다. 총무부의 경우 교역직 스님들의 4대 보험, 건강검진비가 추가됐으며, 일반직 종무원들의 임금 인상분도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됐다. 기획실의 경우 통합전산망에 지식 검색 엔진을 탑재하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이 반영됐으며, 불교사회연구소 지원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체적으로 부서별 예산은 삭감됐다.

이밖에도 연등회보존위원회 지원금에 4억 4천여만 원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자승 스님의 해외 방문이 이뤄질 경우 대상 지역은 중앙아시아가 될 공산이 크다. 실제 올해 호주를 방문했던 자승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에 당선됐을 경우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편성에 대해 남전 스님은 “미래지향적이고 종무행정 효율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뒀다”면서 “예비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의 5% 수준인 12억 원이 적절하나 차기 집행부 종무수행 기반 확보를 위해 늘린 부분이 있다. 중앙종회 심의를 거쳐 조절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2014년 예산안은 11월 1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차 정기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10월 20일 합천 해인사 사리탑에서 열린 3000배 기도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 백련불교문화재단

“나 아닌 남을 위한 3천배를 올립니다”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맞아 해인사서 기도법회

한국 현대불교의 최고 고승인 성철 스님의 입적 20주기를 맞아 3000배 기도법회가 봉행됐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0월 20일 해인사 성철 스님 사리탑 앞에서 ‘모든 중생 행복기원 3000배 기도법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 불자 1000명이 참석한 이날 기도법회에서 참석 불자들은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예불문과 죽비에 맞춰 3000배를 진행했다.

이날 3000배 기도법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해인사 백련암에서 열린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기도’의 한 부분으로 마련됐다. 백련암에서는 성철 스님 입적일 전 일주일 동안 하루에 1만2000배씩 총 8만4000배를 올리는 기도가 이어진다. 매일 기도는 △마음이 불행하고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기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자연의 생명을 위한 기도 △영원한 깨달음을 위한 기도 등 주제로 하루 300~500명이 참가한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3000배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20년 동안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차별 없는 종무행정 약속”

자승 스님, 본사주지회의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에 연임하는 자승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에게 차별없고, 편견없는 종무행정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10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협조로 원만히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면서 “입장을 달리한 주지 스님들께서는 향후 어떠한 편견과 차별없이 종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추호도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예산 심의를 위한 중앙종회를 앞두고 2014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함께 올라온 교육원과 포교원의 안건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교육원은 2014년 종단 법계별 교육계획안을 포교원은 신도 ‘선혜’ 품계 품수 신청의 건을 각각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교구본사 주지회의엥서는 법주사와 고운사, 화엄사, 선운사, 동화사를 제외한 20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국태민안 기원 및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봉행

청허당 서산 호국대성사 공적비 제막식

귀의 삼보하옵고, 선각총림 옴천사는 본 종단의 3대 조사이신 서산스님, 남호스님, 영담스님의 공적비 제막식을 11월 10일 봉행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호국기도도량을 발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하시어 무량복덕을 지으시고 선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 내 용 : 제1부 식 전 행 사
제 2부 공적비 제막식
– 증 명 : 덕암 큰스님(대한불교조계종)
– 제막의식 : 마일운 스님(서울 봉원사) 외 5인
– 초청법사 : 정다운 스님(저서 소설 천수경 외)
제 3부 : 축하공연
(박일남, 현진우, 이명주, 견우와 직녀, 정현 외)
특별출연(트로트신동 장성호)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11월 10일 (음 10. 8)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선각총림 옴천사 061)433-3233,010-3795-1420
전남 강진군 옴천면 장강로 1445-14

조계종 교육원 법계별 연수 시행한다

내년부터 시범 적용

조계종 승려 연수 교육이 내년부터 법계별로 시행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0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법계제도의 조기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2014년부터 승려 연수교육 법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계별 연수교육은 종도로서 종단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법계별 역할에 따른 특성화 교육과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된다.

승납 5~9년에 해당하는 견덕 · 계덕의 경우 수행과 전법능력을 향상하고 종단과 사찰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좌가 진행되며, 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는 승납 10~19년인 중덕 · 정덕은 종단적 마인드를 구축하고, 전법과 포교에 필요한 신도상담 · 수련회 지도 · 지역포교 전략 등을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교구 및 종단의 소임을 맡는 대덕 · 혜덕 법계에 대한 교육은 대사회적 마인드를 기르고 국제포교, 교구본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종덕 · 현덕 법계는 종단과 불교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 같은 연수교육은 법계별로 2박3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조건과 연계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내년에는 시범사업 차원으로서 법계별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연수교육 점수(30점)가 부여되고, 2015년부터 연수교육 점수와 함께 각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한 자격이 함께 부여된다.

신중일 기자

"대선 개입 참회하라"

대불청, 23일 성명 발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 국방부 대선 개입에 대한 공개 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불청은 10월 23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관권으로 제어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불청은 "전교조 규약을 지금 시점에 문제 삼는 것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 개입 사건 등을 정부 차원에서 왜곡하고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나은 기자**

東大 불교대학, 비상을 꿈꾸다

11월 26일 '비전 선포' … 불교센터 건립 등 추진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정승석)이 2014년 설립 108주년을 맞이하며 '비전2020 선포 및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위한 동문의 밤'을 개최한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장 겸 불교대학원장은 10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26일 오후 7시 서울 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비전 선포식및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소속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 불교경영 최고위과정, 석림회 등 동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정승석 불교대학장은 "동국불교 108년의 역사를 맞이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를 불교 이념으로 선도하기 위한 도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국대 불교대학 · 대학원은 2020년을 목표로 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에도 나선다.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과 대학원은 단과건물이 없어 개별적으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불교학 연구 및 교육 등을 하나로 모은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통해 불교학의 선진화와 한국불교의 세계와, 불교의 사회적 소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지속 변화 계획

학부구조, 학문 체계 정비

해외 불교대학과 자매결연

세계 불교학 거점 '발돋움'

이와 함께 '비전 2020'에는 △학부 · 대학원의 연계 활성화 △산학협력교과개발 및 확장 △불교학 허브(HB)구축 △한국불교세계화 인프라 구축 △국제적 학문 후속세대 육성및 불교인재 양성 △불교종합정보센터 운영 △불교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안이 담겼다.

비전 2020 계획으로는 제1분과인 교육과 연구 분야에 종호 스님과 고영섭 교수가 포진돼 대학원 및 학부구조, 학문 체계를 정비하고 역경 및 포교, 불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또 불교 외전 및 학제 간 연구 활성화와 불교대학원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포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분과인 국제화와 세계화 분야에는 황순일 교수와 김종욱 교수가 포진돼 해외 불교대학과 자매결연 확대, 국제적 불교인재 육성, 동북아 3국 복수학위 취득, 동아시아 수행프로그램 교류 등을 추진한다. 제3분과인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분야에는 신성현 교수와 김학주 교수가 나서 불교 및 교사(敎史) 전시사업과 불교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일반인들에게 불교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또 사찰 및 불교단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동국불교 투어를 통한 홍보 또한 진행한다.

정승석 불교대학장은 "이번 비전2020 추진을 통해 불교대학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세계 중심의 불교대학으로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비전 추진 및 국내 인문학과 세계 불교학의 거점화를 위해서는 동국불교센터 건립이 필요한 만큼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제원 스님에게 포교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신명나게 전법의 길에 나섭시다"

조계종 25회 포교대상 시상식…제원 스님 등 17명 수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포교의 기치를 높이기 위한 조계종 포교대상이 포교 일선의 부루나 존자들에게 전달됐다. 조계종은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25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종정상인 포교대상에는 서울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제원 스님과 임희웅 조계종 포교사단장이 수상했다.

제원 스님은 이날 수상소감에서 "남은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마주치는 모든 분들께 희망과 기대, 꿈을 전하라는 당부로 알고 기쁘게 이 상을 받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1982년부터 1만명이 넘는 포교사가 배출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이날 상은 이분들과 함께 받은 것"이라며 "남은 여생 행동하는 포교로 계속 전법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에는 인천 수미정사 회주 종연 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포교원장상인 원력상은 공군본부 군종실 운영과장 각원 스님과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 월정사 문수청년회 등 단체1곳과 11명이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역사의 치욕 되풀이해서는 안 돼"

10.27법난 33주년 기념법회 11월 전국순회 행사도 계획

10 · 27법난 33주년을 맞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조속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기념법회가 열렸다. 조계종은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서 행사를 갖고 10 · 27법난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계종은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서 행사를 갖고 10 · 27법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자리에는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 등 피해자와 조계종 사회부장 법광 스님,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 정만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희생자에 대한 묵념에 이어 10 · 27법난 관련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의 기념사를 대신한 법광 스님은 "10 · 27법난은 신군부의 정치적 야욕으로 인해 우리 불교가 처참하게 폄훼되고 능욕당한 사건"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10 · 27법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속히 한국불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특별법이 제정되어 명예회복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고 이를 등불삼아 불교의 지도적 위상을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은 "신군부 정권의 조직적인 불교 침략으로 많은 불제자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계종은 11월 중순 제주, 광주, 충청 등을 돌며 각 지방 불자들과 10 · 27법난의 진상과 의미를 살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하는 청춘토크파티도 연다. 조계종은 "서울, 전주, 대구, 공주, 강원 등을 돌며 대학생 불자들에게 10 · 27법난의 진상과 의미를 알리고,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국가권력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모임을 연다"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한강서 숨진 '6 · 25고혼' 극락왕생 발원

한강수상법당, 22일 수륙재

한강수상법당 방생도량(회장 이건호)이 한강에서 숨진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대재를 개최했다. 10월 22일 수상법당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음력 9월 18일 지장재일에 맞춰 열렸다. 특히 이날 수륙대재는 한국전쟁 당시 한강대교 폭파로 희생된 유주무주 고혼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법회의 증명법사로 나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2000년 1월 아산병원에 간이식 수술을 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극적으로 살아났고 그저 모든 삶이 감사하게 되었다. 한강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희도 前 육군참모총장은 "한국전쟁 당시 한강대교 폭파로 희생된 분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건호 회장은 "한 해에 한강에서 자살자가 500명이며 사고사로 숨지는 이들이 500명"이라며 "매년 우리 법당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법회를 열고 있는데 금년에는 6.25희생자들을 위해 천도재도 함께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박희도 前육군참모총장, 김홍래 前공군참모총장, 박일룡 前경찰청장,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정천구 영상대 총장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한강수상법당 방생도량은 10월 19일 한강에서 숨진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대제를 열었다.

日江 스님께서 정리하신 알기쉬운 상용의식과 신간저서 안내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집
(2010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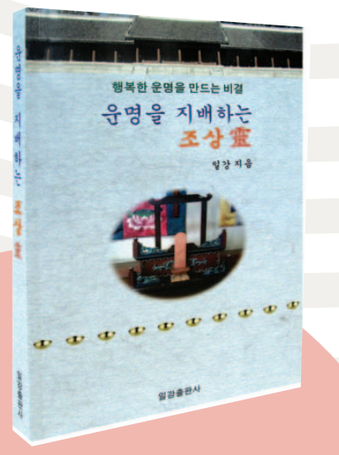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 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신간 **고사와 치성**



고사와 치성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상차림, 준비물, 방법까지도 알기 쉽게 쓰여있어 초보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6배판 | 144쪽 | 값 13,000원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일 주 문



광주불교방송 순회법회 법문

광주 천룡사 주지 무등 스님은 10월 24일 광주 성거사에서 광주불교방송 법사회 순회법회에서 법문했다.



옴천사 공적비 제막

대한불교 선각종 옴천사 주지 정암 스님은 11월 10일 옴천사 부도전에서 서산 대사와 각성 스님, 정업 스님의 공적비를 제막한다.



원효대사 다례재

반룡사 주지 혜해 스님은 원효대사와 설총 · 요석공주를 기리는 다례재를 10월 20일 경북 경산 반룡사에서 봉행했다.



제11회 월산민속학술상 수상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은 국립민속박물관회와 월산민속학술상운영위가 시상하는 제11회 월산민속학술상 저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이동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임명
종로 대각사 주지엔 도민 스님



도서 스님



도민 스님

강북구 우이동 삼각산 도선사 주지에 도서 스님이, 종로 대각사 주지에 도민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과 대각사 주지 도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후 자승 스님은 "도선사는 임명받으시는 도서 스님의 은사이신 혜성 스님은 복지와 교육 부분에 일찍 문을 여신 분"이라며 "내부적으로 사중 화합에 집중하시고 신도들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각사 주지로 임명받은 도민 스님에게는 "어려운 살림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실 것"이라며 "앞으로 종단과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선사 신임 주지 도서 스님은 혜성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했으며, 통도사승가대학 졸업했다. 호국지장사 주지 역임했으며,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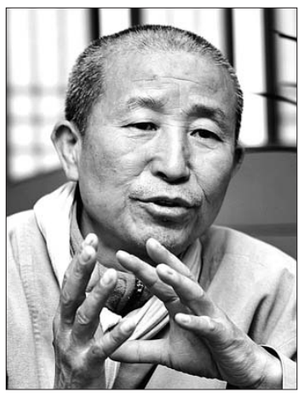
사진을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965호 4면 '성관사 조실 월성 스님 입적' 기사 중 사진이 편집 상 오류로 잘못 게재됐습니다. 이에 왼쪽 사진으로 바로 잡습니다. 성관사 월성 스님 문도회와 혼란을 겪었을 법주사 월성 스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이여, 인드라망 대학으로 오십시오"

불교계 최초 대안대학 여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도법 스님



신입생 모집… 내년 3월 개교
인문학, 친환경 농사 등 교육
"공동체 활동가 양성에 주력"

"사회 제도권 교육의 가장 큰 폐해는 정해진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대안적 삶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안대학을 개교하게 됐습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사진?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은 10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안 교육기관인 '인드라망 대학'의 설립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불교계 최초의 대안대학인 '인드라망 대학'은 제도권 대학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교육 방향 역시 △불교 인드라망 세계관을 통한 삶의 정체성 확립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경제 실현을 위한 문명사적 성찰과 가치 창조 △스스로의 삶과 사회의 변혁 주체 △대안적 삶의 문화와 가치 실현 등을 추구한다.

인드라망 대학은 2년 과정으로 1학년은 공통과정으로 인드라망 철학 및 수행체험, 인문학, 농사, 사회경제적 대안모색과 사회변화를 위한 토대 공부, 생태적 감수성과 평화소통, 갈등해결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또 2년 1학기에는 평화, 대안교육, 마을공동체, 친환경농업, 공정무역 등 자신이 정한 전공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도제학습을 진행되며, 2학기에는 전공 인턴쉽을 운영하고 창업계획 등을 담은 졸업논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인드라망 대학은 혼자만의 길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세상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가꾸어 갈 '청년의 꿈'을 제안합니다. 대학 2년 과정을 통해 대안사회문화를 선도할 시민보살을 양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인드라망 대학은 11월 2일과 10일,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 교육도량과 실상사 학림강당에서 각각 학교설명회를 개최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1월3일~12월20일이며 학력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 35세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정원은 12명 내외이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에 이뤄지며, 내년 3월 경 개교할 예정이다. (070)4155-5688

신중일 기자

"상근인력 채용 · 국비지원 사업 수행 등 힘쓸 것"

곽명희 제8대 포교사단장
포교사단 사상 여성 최초 단장
각 지역단 활성화 최우선 과제



"전국 포교현장의 포교사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맡은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곽명희 포교사단 수석부단장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포교사단장으로 선출됐다. 포교사단은 10월 18일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곽명희 포교사단 수석부단장을 제8대 포교사단장으로 선출했다.

곽 단장의 임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날 곽명희 신임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단장은 전국의 포교현장을 누비고 있는 포교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뒷바라지하는 자리인 만큼 초심으로 되돌아가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명희 신임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단 각 지역단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곽 단장은 "서울과 부산, 인천 등지를 제외하고는 현재 포교사단에는 상주 인력이 없는 지역이 많다"며 "이로 인해 지역단 연계활동 등이 원활하지 않다. 상주인력을 채용해 일선 포교가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곽 단장은 종단 차원에서 '포교사의 날'을 제정하고 디지털대학과 평생교육원을 연계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소유실천위원회와 연계상버를 통해 포교사단 지역단이 국비지원 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며 역량을 키워가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양용은, 아름다운동행과 자선골프대회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과 '양용은 프로와 함께 하는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10월 23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더스타 휴 골프&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행사로 양용은 프로 골퍼의 재능기부로 진행됐으며 불자지도자 및 기업인 130여명이 참가했다.

양용은 프로와 불교포럼 김동건 대표의 시타 세레머니로 시작된 자선골프대회는 4인 1팀으로 총 31개 팀이 구성되어 진행됐으며, 양용은 프로와의 대결 이벤트와 함께 기념 사진촬영의 시간도 이어졌다.

양용은 프로는 "아름다운동행과 자선골프대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세계불교법왕청 법왕 추대위 출범



(사)세계불교법왕청(추진위원장 목탁)은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세계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위 출범 선포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 각국과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지도자들의 염원을 모아 세계불교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가 함께 주최했다.

행사에는 무량사 회주 암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을 대법주로 추진위원장 목탁 스님, 종정협의회 50여 종단 종정스님, 봉행위원장 동봉 스님, 운영위원장 청운 스님, 기획위원장 혜정 스님, 준비위원장 보각, 무공 스님, 주호영 국회의원, 김무성 국회의원, 미얀마 마웅마웅티 종교성 부장관, 미얀마 대사, 태국대사, 스리랑카 대사, 라오스 대사, 베트남 대사, 캄보디아 대사,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임원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추진위원장 목탁 스님은 행사에 앞서 "인류화합과 평등의 구현을 위해 자비의 정신 하나로 모든 나라의 종단 승가를 불문하여 상호 공감하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추대하여 법왕청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세계 불자들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목탁 스님은 실천방안으로 △세계불교지도자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지속적 활동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 각 불교국 나라의 대승종,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불자들에 대한 포교를 조직화 한다고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제2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성료



불자 축구 동호인들의 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2회 만다라배 불교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회향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불자축구동호회인 FC붓다(회장 이동격)와 불교총지종(통리원장 법등정사)이 주관한 제2회 불교축구대회가 10월 19일 미사리 조정경기장 보조축구장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FC붓다, 총지드레곤즈, 대한불교진각종, 조계종 봉은사,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불교기자협회, (사)전사련, 광동고등학교 등 8개팀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된 대회는 지난해 1회 대회 보다 한층 발전된 경기력을 보이며 (사)전사련이 우승, 진각종 준우승, 총지종과 광동고가 공동3위를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은 광동고 3학년 이명원 선수가 수상했으며 각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승가교육원 제2기 교육생 大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한국불교 승가교육원은 한국불교전통을 자랑하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분원으로서 불제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삭발염의한자나 승려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재반의식 및 수행법등을 보수, 교육, 하고자 범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최초의 종합불교예술 승가교육원입니다.

최고의 교수진 구성으로 알찬 승가 재반 의식교육과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을 함양코자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내용

구 분	강의내용	요일	기간	시간	모집인원
기초학과 12주	• 승가기본예절 • 조석예경편(사참), 불공편, 요령목탁법 • 불공편 • 관음시식 • 천수경강의 • 반야심경강의 • 발우공양작법	목	3개월	2시~5시	00명
수계 및 수료	• 사미율의 • 부처님생애 • 초발심자경문 • 발우공양(실습) • 자비도량참법 • 수계 및 수료식(수계증 및 수료증 수여)	2박 3일			
범음범패반	• 예경편(사참), 각단불공편, 권공편, 영반시식편, 점안편, 대령, 관욕편, 배송편, 범패기능연마, 사물타법, 수행경문	화	6개월	2시~5시	00명
작법무반	•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목	6개월	2시~5시	00명

■ 개원일시 : 불기 2557년 11월 7일 (목) 오후 2시부터

■ 회향기도 : 마지막 회향시 수계 및 수료법회 봉행

■ 준 비 물 : 반명함판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1통, 가사, 장삼, 요령, 목탁, 필기구 (가사 및 장삼 미소지자는 별도 합동 주문제작)

※ 기타 자세한 내용문의는 본원 교학처로 문의 바랍니다.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한국불교 승가교육원

■ 접수연락처(교학처) : 051)327-5096 /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영남불교예술대학 한국불교승가교육원

‘탄허 스님이시여’ 화엄의 가르침 수놓은 축제

“가보셨나요” 제 10회 오대산 문화축전

한마음선원 대합창에 사부대중 갈채

기념 유묵전, 세미나 등 행사 다채

바야흐로 가을이다. 가을 산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치장을 하면 전국 산사에서는 흥겨운 축제들이 열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조계종 제 4교구본사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의 ‘오대산 문화축전’ 은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오대산 문화축전’ 은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되는 ‘한암 탄허스님 유묵전 개막식’ 을 시작으로 한강 시원제, 전통사찰음식 시식회, 진신사리 이운식, 자장 ·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 헌다례, 생명살림 수륙재 등이 진행됐다.

특히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기념 합창제는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故 대행 스님이 창건한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이 주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탄허 스님이시여’ 등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노래를 잇달아 선보여 청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인기가수 인순이와 김태우 등의 공연을 통해 4천여 참가자들은 깊어가는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다.

13일에는 단풍으로 장엄된 오대산 옛길을 걷는 ‘오대산 천년 숲 선재길 걷기’ 와 ‘제 6회 불교차인대회’ 가 진행됐으며, 14일부터 18일까지는 타악과 무용, 승무와 법고, 산조춤, 둔전평 농악, 평창 아라리, 안데스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선보였다.

18일에는 월정사 탑돌이 시연과 ‘월정사 8각9층석탑과 불교의 탑돌이 학술세미나’ 가 열려 불교 탑돌이의 연원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19일에는 강원지역 불교합창단 축제인 ‘강원지역불교합창단 합창제’ 와 인기가수 알리와 임형주, 전재덕, 비뮤티, 데이드림 등이 출연하는 ‘생명 명상 치유의 산사음악회’ 가 열려 지역과 하나되는 자리로 승화됐다.

10월 20일에는 ‘들차 및 다식 다회전’ 과 ‘제7회 전국승가학인 법고대회 및 송경(誦經)대회’ 등의 행사로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월정사는 ‘제10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전’ 개막제로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 를 개최했다. 이날 김현욱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본원 청년회 · 어린이회, 선법합창단 등 3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한암 · 탄허 스님을 기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공연을 펼쳤다.


월정사는 10월 12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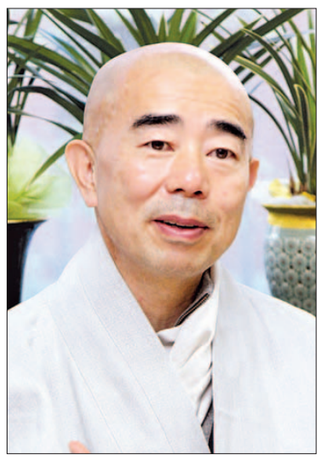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자장 ·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을 위한 헌다 공양을 하고 있다.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 를 관람하고 있는 사부대중.


한마음선원은 201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마음음악제’ 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본원 청년회의 탭댄스 공연도 선보였다.

‘한마음선원 합창’ 오대산 설법…대행 스님 전법 원력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산사음악회의 새로운 모델 제시

오대산만의 특화된 콘텐츠 만들어

치유 마을 등 문화타운 건립도 구상

“올해는 오대산을 우뚝 빛내신 탄허 스님 탄신 1백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탄허 스님께서는 해방 후 혼란 속의 불교를, 교육만이 미래라는 확신속에서 평생을 경전 번역과 강학에 힘쓴 분입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힘든 시절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탄허 스님께서 평생을 일관한 화엄사상이, 대행 스님의 한마음과 같은 유심 철학이라는 점에서, 한마음선원이 대합창제를 오프닝 행사로 장식한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마음선원을 건립한 대행 스님은 한암 대종사와는 출가 인연으로, 탄허 스님과는 깊은 교류를 통해 많은 깨우침을 얻었고, 한국 비구니 승단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포교와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대행 스님은 그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에 옮겨 한마음선원을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도심 포교의 모범 사찰로 일궈 놓았습니다.”

10회째를 맞이하며 오대산 축전을 지역 문화축전의 성공적 모델로 정착시킨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이번 한마음선원 기념 합창제는 산사음악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기념비적인 공연이었다고 극찬했다.

정념 스님은 “기존 산사음악회는 보통 인기 가수를 초청해 무대에 올리는 것이 고작이지만, 이번 한마음선원 합창제는 300여명이나 되는 대규모 불자들이 무대에 올라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노랫말로 만들어 오대산을 화려한 범음으로 수놓아 관객들에게 환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곧 합창이 하나의 법문이고 포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이 두 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대행 스님의 큰 포교 원력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행사 당일에도 말했듯이 매년 와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번 합창제는 두 선사들의 가르침이 합창이라는 매개체로 잘 승화된 멋진 공연이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정념 스님은 그동안 3일 정도 운영한 축제 기간을 10회를 맞아 올해는 9일로 대폭 늘렸다.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주말에는 단풍 시즌에 맞춰 천년 숲 선재길 순례를, 평일에는 다례 시연, 명상음악 공연, 타악과 무용 공연, 탑돌이 시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마련해 관람객들이 행사기간 내내 꾸준히 찾게 기획했다. 스님의 이런 생각은 몸과 마음의 힐링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와도 잘 맞아 떨어져 오대산에는 이번 행사기간 내내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이번 축전을 계기로 앞으로도 매년 10일 동안 열 계획이라는 정념 스님은 오대산만의 특화된 산중 스토리를 현대에 맞게 컨텐츠화해 대중 앞에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오대산에 있는 국보 48호인 월정사 8각9층 석탑은 한국 석탑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문화재입니다. 탑돌이 문화를 잘 복원해 현대적으로 변용시킨다면 특화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대산은 문수 신앙에 입각한 화엄사상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설화나 산중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종합 뮤지컬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선사한다면 축전의 뚜렷한 주제 부각과 오대산만이 지닌 차별화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념 스님은 월정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내비쳤다.

“현재 월정사는 대형 성보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오대산은 한강 발원지로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시원지 체험관도 건립중인데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들어서면 월정사 입구쪽을 하나의 문화타운으로 꾸밀 것입니다. 박물관, 한강시원지 전시관, 조선왕조 실록 · 의궤를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박물관 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주문 밖 사하촌에는 명상 치유마을 건립도 구상중입니다. 전통적인 건물과 불교인 명상 치유 프로그램을 복합한 빌리지 형식이 될 것입니다. 현재 힐링 문화들이 서구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불교는 힐링에 대한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힐링문화를 불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불교적 수행법을 모델로 해서 현대인들에게 어필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산중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완공해 세계인들이 한국적 불교 힐링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불교 문화가 세계 속으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선원 신도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준비”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신도들 5월부터 합창제 연습 몰두

한암·탄허 스님 게송 선법가 불러

“법열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

“탄허 스님 일생을 노래와 공연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원 식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도들에게도 법열을 느낄 수 있게 해 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음선원 박종수 신도회장(65)은 지난 10월 12일 평창 월정사서 열린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 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2~20일 ‘제10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전’ 을 개최, 역대 최다인 15만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몰려들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통섭의 문화축제’ 를 만들었다.

이 가운데 한마음선원은 개막일인 12일,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 를 주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현욱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본원 청년회 · 어린이회, 선법합창단 등 3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한암 · 탄허 스님을 기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공연을 펼쳤다. 또한 김태우, 인순이가 초대가수로 무대를 꾸몄다.

박종수 신도회장은 “대행 스님은 살아생전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훌륭한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셨다”며 “한마음선원은 이런 월정사와의 인연으로 지난 5월부터 오대산 문화축전에 합창제 공연을 하기로 결정하고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꾸준히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5월 연등회 행사를 마친 후부터 매일 저녁 선원에 모여 연습을 하는 등 본격적인 합창제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한암 스님 게송과 탄허 스님을 찬탄하는 게송을 가사로 넣어 만든 새로운 선법가를 선보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했다.

박 신도회장은 “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에 맞춰 어떤 공연을 준비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 월정사서 보내준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준비했다. 또한 이진구 · 김원규 작곡가에게 한암 스님의 게송과 탄허 스님 찬탄 게송을 가사로 곡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며 “ ‘물소리 산색이 모두 진면목’ ‘탄허 스님이시여’ ‘세상을 밝히는 가르침’ 등 새로운 곡도 함께 연습하다 보니 공연 한 달 전 부터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에 몰두했다. 합창단원과 신도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한마음선원은 공연 당일, 본원 청년회의 ‘사천무’ 를 비롯해 본원 어린이회와 선법합창단이 합창을 했고, 지난 2011년 한마음음악제에서 큰 호응을 일으켰던 본원 청년회의 탭댄스 공연도 선보였다.

합창 공연 중간에는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특집 영상을 이야기 형식에 맞게 4회에 걸쳐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불교 정신을 이어온 한암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영상 1부와 함께 교육을 강조하며 경전 번역과 강학에 힘써온 탄허 스님의 이야기를 △깨달음을 찾다 △가르침과 인재 양성 △만남과 동행 3부에 나누어 상영했다.

이날 한마음선원은 4천여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무대와 대형 스크린, 화려한 조명과 함께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 영상,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며 산사 공연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냈다는 호평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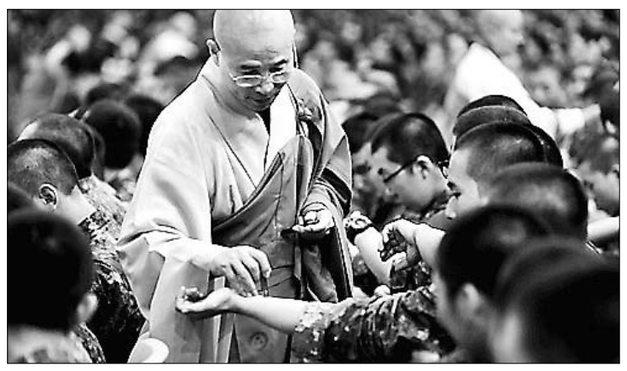
박종수 신도회장은 “두 시간 공연 동안 참여했던 많은 분들은 한암 · 탄허 · 대행 스님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여법하게 느꼈을 것이다. 이런 여운 때문인지 공연 후 월정사 도량을 가득 메웠던 3~4천명의 대규모 인파들이 사고 없이 차분하게 퇴장해 서로 놀라기도 했다”며 “2004년부터 이어지는 오대산 문화축전의 특별한 행사에 한마음선원이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합창제를 주관해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포교 · 신행 소식

3600여 군장병 불자로 거듭나

호국연무사 10월 19일 수계법회 거행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서 3600여 훈련생들에게 연비의식이 거행됐다.

청년 포교의 핵심이며 군포교 최대 전법도량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가 10월 19일 거행됐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이 계사로 초청돼 3천여 훈련병들에게 수계의식과 법문을 설했다.

수계법회에 참여한 훈련생은 3600명으로 올해 최대규모를 기록했으며, 봉은사는 수계법회를 위해 기금 모연도 했다.

불교여성개발원 6번째 바자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11월 8~9일 오전 10시~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나무갤러리와 인근 우정공원에서 '제6회 불교여성개발원 바자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정경연 원장의 작품을 비롯해 여러 작가들의 그림 서예 조각보 등 작품판매 부스와 액세서리, 생활소품 건강식품 의류 수입신 장류, 밑반찬류 산삼 · 홍삼류 등 특산품 부스가 운영된다. 벼룩 장터와 즉석에서 요리한 먹거리부스도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자비나눔 바자'를 통해 여성 불자들을 위한 사업기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22-2101

'불교 사회적경제 붐업 콘테스트'

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기업 지원센터(센터장 박주언)는 불교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불교사회적경제 붐업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참가자는 11월 13일 까지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창업과 사회적경제 법인 전환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사업제안서 제작 지원, 판로연계 지원 및 멘토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한다.

한마음선원 수계법회 거행

11월 17일 본원 법당서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본원 5층 법당에서 '제25회 수계법회'를 거행한다. 접수마감은 수계는 11월 3일까지이며 연비는 11월 17일 까지다. (031)470-3100

수능 스트레스와 피로, 사찰·수련관서 풀자

불교계 청소년수련관 및 사찰 수험생 프로그램 마련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은 신청학교에 직접 방문해 수험생들이 미래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사진 왼쪽), 대원사는 명상, 둘레길 걷기, 스님과의 차담을 포함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사진 오른쪽).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차분히 시험에 임하고 난 뒤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사찰과 수련관에서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 불교계 청소년수련관 및 사찰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센터 및 수련관은 문화체험을 비롯해 진로적성 찾기에 도움이 되는 특강과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으며, 사찰들은 수험생만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02-2642-1318)은 서울시 특화사업 '찾아가는 수련관'을 진행, 11~12월 동안 학사일정 및 수능이 끝난 중3 · 고3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수련관'은 학교에 직접 수련관이 찾아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미래설계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중3 · 고3 수험생을 위해 청소년들이 내재돼 있는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표현 및 리더십',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인생설계 셀프리더십', 학급별 모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활동형 프로그램인 '긍정커뮤니케이션과 웃음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이번 특강은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업과 연계가 적은 주제로 구성해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또한 각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깊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재 중 · 고등학교는 목동청소년수련관에 전화신청 후 학교별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로청소년수련관(02-838-1318)은 수험생들을 위한 예술활동 행사도 준비했다. 관내에 상설 한지공예체험장을 만들어 전통한지를 직접 떠보고 한지공예를 만드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서울 봉은사**(02-3218-4815)는 11월 7일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42일간 합격발원을 위한 기도 정진에 들어가며, **부산 홍법사**(051-508-0345)는 2014년 1월 17~27일 초 · 중 · 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정혜사를 순례하는 문화탐방 행사를 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 이하 문화사업단)이 오는 11월 7일 열리는 '2013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화사업단이 준비한 첫 번째 특별 이벤트는 수험생의 긴장 완화와 집중력 향상을 돕는 '똑똑이 레시피'.

문화사업단과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이 수험생을 위해 특별 선정한 '똑똑이 레시피'는 △뇌를 열어주는 맑은 음식 △기운을 돋우는 영양식단 △소화가 잘되는 편안한 식단 등 3가지로 예민해 지는 수험생의 심신을 다스릴 사찰음식을 선보인다.

'똑똑이 레시피'는 10월 22일(화), 28일(월), 11월 4일(월) 3회에 걸쳐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서 만날 수 있다.

2013년 수능을 치른 수험생의 곁에서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 등 소중한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숨고르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수능시험이 끝난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템플스테이 페이스북과 미투데이의 친구를 맺은 후, 수험표 인증사진과 템플스테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총 35명에 한해 선물을 증정한다.

선물은 1등(5명) 템플스테이 체험권(2매), 그 외 꽃살무늬 명함집, 모시테이블 매트, 염주형 USB(8G)를 각각 10명에게 전달한다.

이 밖에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긴 입시준비로 지친 수험생과 가족에게 희망과 추억을 선사할 특별 템플스테이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 삼화사(033-534-7663)는 11월 14~15일 '새내기 파이팅!'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연다. 성불도 놀이, 발우공양, 108배와 함께 무릉계곡에서 명상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경남 대원사(055-974-1112)가 진행하는 템플스테이는 휴식이 필요한 수험생들에게 좋다. 11월 9~10일, 11월 16~17일 두 차례에 걸쳐 '수비학습(數飛學習)-새로운 출발을 위한 날개짓'을 진행, 명상, 둘레길 걷기, 108배, 영화감상, 스님과의 차담 등을 계획했다.

학부모와 수험생이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도 있다. **용인 법륜사**(031-332-5703)는 11월 30일~12월 1일 가족을 포함한 주위사람들과 함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힐링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희망 화분 선물하기, 소리향 명상을 비롯해 스님과 진솔한 대화를 비롯해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밖에 **서울 화계사**(02-900-4326)는 11월 14일~12월 19일 중3 학생을 위한 걷기명상, 절 체조 및 명상, 스님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밖에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12월 고3수험생과 예비 수험생에 한해 동반 1인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템플스테이는 다음 달인 11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신중일 · 이나은 기자

〈2013 템플스테이 수험생 특별이벤트 창구〉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블로그(blog.naver.com/templestaygo), 페이스북(facebook.com/templestaykorea), 미투데이(me2day.net/templestay)

인문학강좌, 퇴근 후 사찰에서 들어요

봉은사 11월 14~27일 인문학강좌 개최



유홍준 교수



고미숙 고전평론가



조정육 미술평론가

도시의 직장인을 위한 인문학강좌가 사찰에서 열린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11월 14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법왕루에서 인문학 강좌 '산책'을 진행한다.

14일 첫 날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가 '불교, 역사를 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유 교수는 한국역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를 역사학 · 인문학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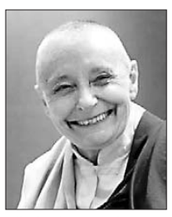
〈나의 운명사용설명서〉〈고미숙의 몸과 인문학〉의 저자이자 고전평론가인 고미숙씨가 11월 21일 두 번째 강연 '성(聖)과 속(俗)이 마주치는 지점'을 주제로 펼친다.

마지막 강좌는 11월 28일 조정육 미술평론가가 '그림, 불교 속으로 빠지다'를 주제로 선조들의 그림 속에 담긴 불교의 가르침과 생활 모습을 쉽고 재미있게 강연할 예정이다.

봉은사는 "도시의 직장인들을 위해 시대의 저명한 지식인을 통해 우리문화를 역사, 고전 그리고 미술로 재미있게 풀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인문학과 불교의 특별한 만남을 선물하는 가을밤의 산책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명 선착순 모집이며 수강료는 한 강의당 1만원이다. (02)3218-4815 이나은 기자

英출신 비구니 스님 텐진 팔모 방한

사카디타 초청 11월 6일 조계사 등서 법회 예정



텐진 팔모 스님

세계 불교계의 대표적 비구니로 꼽히는 텐진 팔모 스님이 11월 6일 한국을 찾는다.

샤카디타 코리아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텐진 팔모 스님은 11월 7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간담회, 8일 비무장지대 여성종교인 평화기원 기도회와 서울대 여성연구소 특강, 10일 조계사 대법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국 출신인 텐진 팔모 스님은 스무 살에 인도로 건너가 티베트의 영적 스승 캄트롤 린포체의 유일한 여성 제자가 됐다. 스승의 조언에 따라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히말라야 설산의 작은 동굴에서 하루 3시간 자면서 12년간 독거수행을 했다.

승려가 된 뒤에도 여성이란 이유로 온갖 차별과 고초를 겪은 그는 불교 내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세계 불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구니 큰스님으로 통한다.

한편, 텐진 팔모 스님을 초청한 샤카디타 코리아는 1987년 설립된 국제 불교여성기구인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의 한국지부다. 신중일 기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최고 유망 전문자격증! 직업능력 개발원 등록 NO.2008-0538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위한 특별과정

■ 주관 및 시행 : 한국심리상담협회
■ 수험자료제공 : 한빛자격교육원「부설심리상담교육원」
■ 시 행 일 정 : 2013년 12월 14일(토요일) 오후 2:00~4:00
■ 시 험 장 소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제주, 기타「전국 동시실시」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구분	시험과목	출제문항	합격기준
1차 시험	ƒ心리학개론 ƒ心임상심리학 ƒ心이상심리학 ƒ心교육심리학	각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1, 2차 동시 시행 (절대평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	ƒ心심리상담 및 진단실무	단답형 및 O, X형 (20문항)	

☞종교지도자(스님)에게는 5% 가산점이 인정되며 합격 후 직무연수 교육은 재택으로도 가능합니다.

■ 등록대상 : 스님 및 불교관련 업무자로 심리상담사 1급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이 풍부해지면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관련된 문제가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부부, 직장문제, 가정문제, 노인문제는 물론 종교단체(사찰, 교회)등에서도 가정사역, 치유사역 등 상담과 관련 된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이 크게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에 심리상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및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 지도자님 및 종교관련 분야 업무자들에게 크게 부합되는 자격증이라 사료됩니다. 「합격을 위한 특수문제 별도 제공해 드립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등록문의 한빛 자격교육원 02)547-5346
통신판매 NO. 제2012-서울광진-0873호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열정엔 나이도 'NO'… 어르신들 문화역량 발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감성문화대학 제1회 발표회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3월 '감성문화대학'을 개원, △미디어 전공 △연극전공 △합창전공을 개설해 어르신들의 문화역량을 키우고 있다. 연극 대본 연습을 하고 있는 연극반 어르신(사진 왼쪽)과 합창반 어르신들(사진 오른쪽).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현실감 있게 살려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대학로극장에서 노인들이 선보인 '경로당폰팅사건'을 관람한 한 젊은 배우의 소감이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대학로극장에서 '제1회 감성문화대학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감성문화대학에 재학 중인 50여 어르신이 1년간 갈고 닦은 전공실력을 뽐내는 자리였다.

연극학과 어르신들은 '경로당 폰팅사건'을, 합창학과 어르신들은 '보리수' 등 가곡과 동요 공연을 선보였으며, 미디어학과 어르신들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에세이'를 상영했다.

'경로당 폰팅사건'은 경로당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폰팅이라는 다소 독특한 설정을 더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코미디 연극이다. 연극학과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276만원의 전화요금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고,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폰팅으로 많은 요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고 범인을 찾기 위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각 전공 어르신들은 발표회를 앞두고 매일 2~3시간씩 강도 높은 연습을 해왔다. 감성문화대학 1기라는 자부심으로 지역사회에 다재다능한 예술적 역량을 뽐내기 위해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노인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심화해 올해 3월 '감성문화대학'을 개원했다. 2년제로 운영되는 '감성문화대학'은 △미디어 전공 △연극전공 △합창전공으로 구성됐다.

이기정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는 "현재 감성문화대학에는 59명의 어르신이 소속돼 각자의 역량을 펼쳐나가고 있다. 입학 전부터 학과별로 오디션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평균연령 70대 중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며 "특히 전공제로 운영하면서 기초부터 확실하게 교육을 하니 어르신들의 임하는 태도도 더욱 적극적이고 표현력도기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극학과 소속 어르신은 그동안 실습과 공연을 통해 다져진 노하우에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연습을 더했다.

'불 좀 꺼주세요'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등 다수의 연극을 연출한 강영걸(70) 연출가가 감성문화대학 설립 후 본격적으로 발음, 자세교정, 발성 등 기초교육을 맡아 어르신들의 표현력을 키워냈다.

이관(72 · 남) 어르신은 "젊을 때 연극 · 예술 쪽으로 관심이 많았지만 감히 예술이라는 것은 입 밖으로는 꺼내지도 못하던 시절이어서 꿈을 펼쳐본 적이 없다"며 "복지관에서 연극을 배우니 삶의 활력이 느껴지고 표현력, 의사전달력도 늘면서 여러모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합창전공 참여 어르신은 합창 기본기를 다져 공연무대를 꾸몄으며, 미디어학과 어르신들은 영상작품을 기획, 촬영, 편집해 미디어 작품을 만들어 '제1회 감성문화대학 발표회'를 장식했다.

감성문화대학 어르신들은 교양필수 과목으로 철학 · 미술 · 댄스 등 인문 · 문화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단합회, 봉사활동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1회 감성문화대학 발표회'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문화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보람 있었다"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감성문화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자긍심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42-95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봉은사 · 선본사 "농업학교 건립에 써달라"

아름다운동행에 각각 5천만원·1억원 전달





선본사는 10월18일 아프리카 학교 건립과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아름다운동행에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사진 왼쪽). 봉은사도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건립에 정성을 보탰다.(사진 오른쪽)

아름다운동행에서 건립중인 아프리카 학교에 지역 사찰들이 관심을 보이며 정성을 보태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1219주년 개산대재 기간 중 봉은사 신도회에서 주관한 '제3회 신도회 따뜻한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 바자회' 수익금과 지난 3개월 동안 모금을 통해 조성한 후원금이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은사 신도들이 모아준 기금은 꿈을 잃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앞서 경산 선본사(주지 덕문)는 10월 18일 아름다운동행에 1억 원을 쾌척했다. 전달 기금은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과 승려노후복지 기금으로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선본사는 "'갓바위 약사여래 연화범종' 불사 때부터 범종을 조성하고 남은 기금으로 아프리카 학교 건립과 승려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모금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1366경북센터 가정폭력 연계지원 협약

10월 24일 경북 상주지역 가족지원센터와 업무 체결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센터장 진원)가 가정폭력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북 상주지역 가족지원센터와 손을 잡았다.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는 10월 24일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상주순례자의 집, 상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주 · 문경 · 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여성폭력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보호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및 상주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인권차원에서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상주시청과 상주경찰서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각 기관간 업무를 공유했으며 10월 30일 상주문화회관 1층에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공동캠페인 '가정 · 성폭력 예방 우리의 관심으로' 가 진행됐다.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는 상주지역 가족지원센터와 아동 · 여성 인권 보호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는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하여 1년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사회복지기관, 전문상담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북센터에는 베트남어, 중국어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kbwomen 1366.org)에서도 사이버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이나은 기자

복지 단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성료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따사로이 마을축제' 개최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은 10월 18~19일 IBK기업은행 응암역지점과 함께하는 정기바자회 '따사로이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복지관은 '따사로이 마을축제'에서 다양한 의류(여성, 남성, 아동복)와 잡화, 생활용품, 문구류 등을 전시 판매 했다. 이밖에 '무료 먹거리 장터', '캘리그라피 이벤트', '다중지능검사'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실시됐으며, '연뿌리회', '연화라이온스클럽', '재향군인회여성회' 등 다양한 봉사단체의 참여로 축제는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이번 '따사로이 마을축제'는 지역주민 500명에게 잔치국수, 떡볶이, 파전 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마을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또한 청소년은 물론 일반 지역주민들까지 먹거리 봉사, 축제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있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한 '따사로이 마을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들.

관장 보련 스님은 "매년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정기바자회가 올 해에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참여로 얻은 바자회 수익금은 보다 건강하고 공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02)376-4141

이나은 기자

자양복지관, '튼튼 가족 칭찬하기' 캠프

10월 4~5일 건강 코칭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지킴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이 10월 4~5일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가족캠프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건강 코칭 프로그램 '튼튼해가 똬습니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캠프에는 사업 참여 아동 및 광진구 거주가족 40명이 참가해 △세대공감 △스트레스 해소 △풍등 날리기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며 가족 간 소통 증진 및 영양 지식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참가 부모 및 아동을 대상으로 밥상머리교육이 진행됐으며, 평소 참가가족의 식사모습을 점검하고 밥상에서의 가족 간 소통 방법 공유 및 향후 소통 증진을 위한 다짐을 작성 및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02)458-6796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4~5일 광진구 거주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 소통 증진 및 영양 지식 향상을 위한 캠프를 개최했다.

이나은 기자

중림종합복지관, 어르신 가을 나들이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10월 23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의 후원으로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0명과 자원봉사자 15명이 함께 한강 나루터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사는 거동이 불편해 평소 야외나들이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을의 풍경과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에서는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유람선 관람료와 식사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어르신들은 여의나루 선착장에서 한강 유람선을 타고 가을 강변 전경을 감상하고 여의도 공원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꽃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강 나루터에서 기념촬영 한 어르신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0월 중

◆ 개강일시 : 2013년 10월 중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나와 이웃 함께 성불’ 화쟁 정진이죠

동산불교대학 신 화쟁법회

한탑 스님(문사수법회 회주)

한탑 스님의 법문은 막힘없었다. 갈등이 많은 시대에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우리 각자가 부처자리를 찾는 데 있다고 했다. 중생이라는 꿈에서 홀가분하게 깨어나 참생명을 찾으면 너와 내가 없어지는 한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18일 동산불교대학이 ‘제 1회 국제 신 화쟁사상 정진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탑 스님과 일본의 후지 요시나리 박사가 화쟁사상을 주제로 강의했다. 다음은 한탑 스님의 법문이다. **정리=배현진 기자**

불교는 다툼이 없는 곳

불교의 화쟁이란 말은 결국 다투지 말고 한마음, 한 뜻이 되란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다툼을 만들어서 조계종 내부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면 태고종과 조계종으로 나뉘어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촌수로 따지면 몇 촌 차이도 나지 않는, 원래부터 같은 집안입니다. 한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세상판이 온통 싸움으로 번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불교를 알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일체 모든 적과 원수,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이 생존경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는 부모, 자식, 친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불교에는 내가 해쳐야 할 존재도, 미워할 존재도, 다툴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가 바로 참생명의 세계입니다. 아미타의 세계죠. 나무라는 뜻입니다. 귀명. 돌아갈 귀(歸)에 목숨 명(命)자를 써서 참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내 밖에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특정한 곳에 특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은 존재합니다. 귀명한다는 뜻의 나무는 언뜻 생각해보면 뭔가 밖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참생명으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모두가 한생명이니까 다툴래야 다툴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 모두가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부처님밖에 없으니까요. 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이고 귀명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소원을 들어주십사하고 떡을 바치고 과일을 바치고 하죠. 만약 부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내가 달라기 전에 다 줬지 떡을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절을 천 배 정도 하면 그제서야 부처님이 눈을 한 번 뜰까말까 한다구요. 부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절을 죽어라고 했을 때 잠깐 봐준다고 한다면 그런 분을 믿어서 뭐합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다 주시는 분입니다. 답답하다 하면 이미 해방되었다고, 자유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가 되겠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이미 너는 부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나무아미타불로 모든 다툼 사라져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생로병사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운사람과 만나야 하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상살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기다대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괴로워지고 외로워지죠.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 궁극의 의지처가 되는 곳이 종교입니다.

절대 무한이 됨으로써 궁극의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대립이 없다는 말입니다. 끊을 절(絕)에 상대 대(代)자를 씁니다. 상대나 대립이 없으며 대신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온 세계가 1인칭인 세계이고 2인칭 3인칭이 없는 세계인거죠.

그리고 무한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이자 법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그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것이 절대 무한입니다. 무한은 자기 스스로 특정한 모양을 가질 수 없어요. 만약 둥그런 모양을 가

불교공부하면 일체적과 공포심 벗어나
불교의 화쟁은 한마음 한뜻 되는 것
‘일체중생 실유불성’ 마음 가져야

다툼은 겉모양에 속아 일어나는 것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한생명
참생각 방해 받으면 ‘나무’ 염송하자

졌다면 네모와 세모 모양과 맞지 않을테죠. 그래서 모양이 없는 절대 무한을 법신이라 합니다. 법신불 밖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신불은 모양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못난이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본래부터 법신생명이고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간다는 신념만 있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한생명의 세계니까요. 그러나 이 못난이들이 참생명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눈이 팔려서 속고 지내는 것입니다.

법신불을 떠나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들이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법신불이 저절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뵐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제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나 눈먼 장님인 우리는 모양 없는 법신불을 보지 못하니까 그는 원력에 부응해서 보신불이 됩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아미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무한입니다. 우리와 떠나 있는 아미타가 아니라 함께 있는 아미타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 바로 보신불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지몽매한 이들을 위해 상이 있는 존재로 변화해 나타난 불이 석가모니불입니다. 화신불이죠. 화신불은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한 몸이라는 뜻도 있고 몸이 없는데도 몸으로 변화해 나타난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조그만 나라의 태자로 태어날 이유는 없었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우리의 인식범위 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특정한 공간에 시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분이 석가모니입니다. 또한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후 화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또한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처님이 낫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났던 본래자리로 돌아가면 아미타불을 만나게 됩니다. 나무아미타불로 모든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추울 때는 따뜻한 태양이고 밤에 생각할 때는 밝은 태양이죠. 그러나 따뜻한 태양과 밝은 태양이 따로 있는 건가요? 밝은 것은 문수보살, 따뜻한 것은 관세음보살입니다. 문수보살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겉모양에 속고 있으므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외견에 속지 말고 참생명으로 돌아가면 내 밖에 남이 없습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 세계는 한 송이 꽃이므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만공 선사의 말처럼 이 세상에는 내가 미워해야 할 적이 없습니다.

다툼없이 사는 법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간에 항복해야할 생각입니다. 부처가 되겠다는 수보리 존자에게 석가모니는 부처되고자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함께 부처되어지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부자되겠다는 생각은 물론, 부처되는 것조차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중생을 극락세계로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은 지금은 중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중생이라고 우기기에 중생입니다. 본래 부처니까 참생명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만 가지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간에 그건 전부 내버리고, 본래 부처자리 그것을 참생명으로 알고 지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를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 더불어 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부처님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이들이 나를 못살게 군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적이 아니에요. 나잘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나가 강합니까. ‘내가 편해야겠다, 사랑받아야겠다, 대접받아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타인은 나를 꺾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상을 꺾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우깁니까.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꿈 입니다. 자다가 경기 일으키는 아이를 보면 엄마는 얼른 깨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부처세계에 살고 있는데 중생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래 이름은 아미타에요. 나무아미타불하고 부르면 ‘응’ 하고 깨어나면 됩니다. 이처럼 나쁜 꿈을 깨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투면서 사는 것은 내가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참생명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본래부터 빛나는 생명을 살고 있지만 쓸데없는 근심걱정에 사로잡혀있습니다. 다리가 짝짝이라면 짧은 다리를 보지 말고 긴 다리를 보듯 남의 장점을 보십시오. 공양은 보시에 정성과 공경을 더하는 것입니다. 주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참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쟁. 평화로운 상태에서 남과 다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원효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생명으로 돌아가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참생명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방해하고 해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로운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처럼 참생각이 방해를 받으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나무나무 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참생명인 부처생명으로 돌아갑니다. 부처생명은 남이 없습니다. 남이 없으므로 미워해야할 남도 없고 다퉈야 될 남도 없습니다. 원망해야할 남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한생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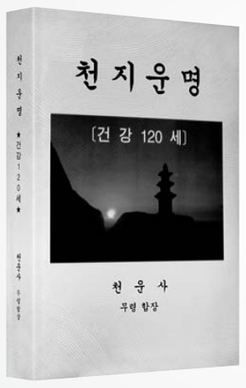
나무나무하면 하늘에 낀 구름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하늘이 나오죠. 구름이 꼈을 때는 푸른 하늘이 어디 출장 갔었나요. 하늘은 그대로 있었죠.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중생이라고 우겨도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무 아미타불하면 천지가 고맙기 한량없는 세계로 바뀝니다.



한탑 스님은 …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다. 원각회, 불광법회 초대회장과 금산사, 안국사 등에서 상임법사를 역임했다. 현재 문사수법회 회주다. 저서로 〈반야심경과 나무아미타불〉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반야심경의 재발견〉 〈황금의 수레바퀴〉 〈불교란〉 등이 있다.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과 운명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20페이지
정가 120,000원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책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100명께는 기존 출간된 천지운명 책 한권을 더 드립니다.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운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엽)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건장사(建將寺)

◇척추,골반,관련 통풍 효과 입증 ◇웰강 상황 쑥뜸방 운영
◇효과가 입증된 훈증침대 (특허출원번호:제10-2011-011722호)

스님은 무보시로 모십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2-2000번지 건장사 주지 청진합장
053) 763-7510 / 011-572-4438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한국불교 세계화, 영문학술지 보급부터"

송석구 회장·김용표 교수, 기자간담회…내년 국제학술대회 계획

IJBTC 21집 발간… 2002년 첫 출간
영문불교학술지론 국내 유일
17개국 학자 편집 참여
하버드대 등 세계 350곳 배포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내 유수의 불교학 논문들이 영문으로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국내 학자들의 영어 논문이 부족한 실정에서 영번역 등에 지원이 활발해야 하지만 전무합니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영문불교학술지 보급조차 이젠 힘든 실정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영문불교학술지인 IJBTC(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이하 IJBTC) 21집 발간을 맞은 자리에서 영문학술지 보급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송석구 회장(가천의대 명예총장)과 김용표 IJBTC 편지위원장(동국대 교수)은 10월 22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석구 회장과 김용표 교수는 2002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를 창립했다.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는 IJBTC를 연 2회 발간해 하버드대, 예일대 등 전세계 350여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IJBTC에는 박성배 스토니브룩대 교수, 루이스 랭카스터 UC버클리대 교수, 카렐 워너 런던대 교수 등 17개국 학자들이 편집인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는 2012년 창립 10주년을 기해 한국불교를 테마별로 묶어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지 발행협의회에 가입해 국제 저명학술지임을 인증하는 A&HCI와 SCOPUS 등재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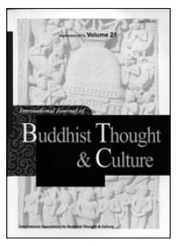
송석구 회장은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와 학술지는 한국불교학의 영문자료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다. 현재도 한국불교에 관심 갖는 세계인은 많지만 이들에게 한국불교와 한국학을 알릴 영문자료는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용표 교수는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IJBTC가 해외에서 선호받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그 활용과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표 교수는 "IJBTC에 해외학자들의 기고가 50%를 넘는다. 국내학자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동안 한국불교학계는 규모면에서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일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 큰 성장을 보였지만 세계와 교류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저조한 상황"이라며 한국불교계가 세계화를 진행하려면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JBTC 21집 발간의미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송석구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회장(사진 오른쪽)과 김영표 IJBTC편집위원장. 영문불교학술지 관련 불사에 교계의 관심과 동참을 역설했다.



IJBTC 21집

이런 고민에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한국논문의 경우 직접 번역과정 등에 나서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이조차 쉽지 않다. 2010년 IJBTC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선정돼 국제학술지발간지원금을 받았으나 현재는 지원이 끊긴 상태다.

송석구 회장은 "영문화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문 감수(Proof Readers)다. 네이티브 수준의 꼼꼼한 감수가 있어야 해외에서 제대로 된 논문으로 읽혀진다"며 "해외 영문 감수자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한국 논문의 경우 영역이 돼 있더라도 수정、윤문과정이 스터디와 같이 많다. 한국불교학을 세계에 바로 알리려면 영자출판물을 다룰 전문인력 양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구 회장과 김용표 교수는 끝으로 "IJBTC의 지속적 발행과 육성은 한국불교학 세계화를 위해 중요한 불사"라며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IJBTC' 21집에는 △보현행원사상에 대한 고찰(계환 스님) △동아시아에서 화엄종 및 그 이후 불교에 미친 다라니의 역할에 대한 개론적 고찰(외르크 플라쎈) △중국불교의 화엄학과 밀교의 교섭사 연구(정성준) △리하르트 바그너는 불교도였는가(카렐 워너) △7세기와 8세기의 불교, 국가, 사회-의례와 승원의 역할을 중심으로(판카즈 모한) △슈라마니즘의 기원과 의미(최경아) △테라와다 루파 개념 전개(김경래) △붓다다사 비구의 죽음을 통해 본 불교에서의 안락사에 대한 분석적 연구(슈프레 칸자나피찬) 등 논문 8편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계율 전통' 재점검 해야한다"

중앙승가대 대학원, 제6회 정기 불교학술대회

중앙승가대 대학원(대학원장 보각)이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한국불교' 불교학술대회에서 한국불교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고찰이 진행됐다.

조계종 '보살승가' 인가 '비구승가' 인가

동국대 겸임교수 마성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의 계율전통' 주제발표에서 현재 조계종의 계율전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성 스님은 "조계종은 현재 구족계와 보살계를 동시에 받는데서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마성 스님은 "대승불교권에서 승려들은 출가한 보살 개념으로 자리했기에 한국불교 승려들은 '보살승가'의 개념"이라며 "실제 생활에서는 계가 아닌 종헌종법과 청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분율〉에 의한 구족계는 승려의 신분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로만 치부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성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이 일제강점기 대처식육이 허용되며 크게 흔들렸으며 이후 한국불교에 만연해 왔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일제시대 당시 계율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1981년 조계종의 단일계단 설치 이후 계율전통의 맥이 이어지고 있지만 몇몇 율사를 제외하고 승려들이 〈사분율〉의 바라제목차를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조계종은 '보살승가'인지 '비구승가'인지를 종헌종법에 명시해야 한다. 비구승가라면 계율 쪽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는 무종파·통불교의 특성 살려야

고영섭 교수는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주제 발표에서 한국불교의 무종파성과 통불교성이 한국불교의 특징임을 강조했다.


마성 스님


고영섭 교수


문무왕 박사

고영섭 교수는 이날 승랑의 '합명'과 '병관', 원측의 '순성'과 '계회', 원효의 '화회'와 '보법' 등 논법과 관법을 살펴보고 "한국불교사상가들은 양극단의 논의과정에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여러 관법을 살펴보면 한국불교사상가들은 해당 명제에 개별성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통합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암리에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고영섭 교수는 이어 "한국불교는 이러한 특성 속에서 회통과 화쟁이란 불교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발현한 사상을 끄집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동아시아 교류에서 주도적 역할

한국불교가 과거 불교 전래과정에서도 동아시아 불교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 또한 대두됐다.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원은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 문화원형에 관한 시론' 주제 발표에서 "신라의 불교 공인은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동서교역로의 확장과 함께 이루어 졌다"며 "당시 신라불교의 중심이었던 경주는 지역불교 중심지를 넘어 실크로드 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생사관, 자살 방지 효과 지닌다"

불교생명윤리협회 10월 25일 학술세미나에서 대두

최근 이벤트성 자살 퍼포먼스까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생명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사회에 불교생명윤리 사상을 널리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핵과 자살, 우리 시대 불교생명윤리의 두 쟁점'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남결 동국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한 불교 생명윤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불교가 이론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생명존중사상임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불교국가인 태국의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불교계를 주축으로 한국사회에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물론 불교신자가 전 국민의 90% 이상인 태국과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한국의 불교인구도 1,000만 명이 넘는 만큼 불자로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가 예로 든 태국 치앙마이 대학의 참롱 디사야바니시(Chamlong Disayavanish)와 프림프라오 디사야바니시(Primprao Disayavanish)는 △자살에 대한 불교적 태도 재확립 △사후 삶에 대한 신념과 확신 △스님들에게 자살과 사후에 관한 이해 제공 △자살자 조기 발견 및 전문가 치료 △자살수단 접근 차단 △알콜과 약물남용 통제 △성병 확산 방지 △매스컴의 자살관련 보도 자제 △명상수행의 습관화 등을 통해 사회 자살률을 줄이고 있다.

허 교수는 "자살한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무속신앙 또한 자살예방교육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 평상심 실천이 곧 영성의 완성"

김호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 영성靈性과 무아無我 세미나에서

기독교계의 영성 개념이 불교의 평상심과 무아 개념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불교와 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이 10월 25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한 제4회 불교심리심포지엄에서 선종에서의 평상심과 영성의 관계를 고찰했다.

이날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선종에서 영성의 개념은 조사선의 개념에 잘 드러나 있다"며 "조사선이란 본래성불의 사상에 근거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는 것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까닭에 불성과 평상심과 같은 용어가 그대로 소위 영성이라는 개념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불성의 영성적인 기능에 대해 혜능 스님은 불법의 실천이란 차원으로 설명했다"며 "선종에서 영성의 실천은 본래성불에 기초한 그 평상심의 실천으로 전개돼왔으며 보살도의 실천으로 귀착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달마는 관음보살의 화현으로,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보살도의 원리는 수행과 깨침의 관계에 잘 나타나 있다. 조사선풍에서 애초부터 깨침과 수행의 분별을 초월하여 깨침이 없는 수행은 처음부터 설정되지도 않았고, 수행이 없는 깨침은 선 수행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경 분석심리학연구소장도 이날 '영성(靈性)과 무아(無我)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주제발표를 통해 각 종교의 영성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이 소장은 "영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거룩한 체험에 기초한 종교적 태도에서 비롯된다"며 "현대인의 거룩한 체험은 의식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무의적 정신에서 비롯되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硏 '불교의 보편성·특수성' 세미나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영자)는 11월2일 오전10시 30분 경기도 광주 유마정사에서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도, 티벳,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각 지역별 불교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다뤄진다.

정호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기조강연을 하며 1부에서는 '인도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조준호 한국외대 연구교수가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정성준 동국대 교수가 '티벳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나타난 불교사적 과제'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능엄경/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불교의식 영산재, 이제 시민과 함께 해요”

전통불교영산회, 해설 곁들인 영산작법 시연회 눈길

도심에서 시민들을 위해 해설을 곁들인 영산의식이 펼쳐져 화제다.

사단법인 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 법륜사 주지)는 10월 18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전통불교영산작법 시연회’를 갖고 영산작법에 광주만의 특색이 가미된 의식을 선보였다.

영산작법이란 영산재(靈山齋)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靈鷲山)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법회장면인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재현한다는 의미를 띤다. 영산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지내는 49재(四十九齋)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전통 재현 차원에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의식에는 3시간 가까이 50여 명의 회원 스님들이 출연해 불교의식의 장엄함을 선보였다.

올해 9회째 진행된 시연회는 범음에 혜령, 대광 스님, 바라에 호산 스님, 작법에 월인 스님 등 오랜기간 영산작법을 연구해 온 원로스님들이 직접 시연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동방불교대학 심만춘 학장이 시민들에게 영산작법의 각 부분에 대해 자세한 해설을 곁들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영산작법은 사찰에서 치는 대종(大鐘), 목어, 북을 치는 의식을 무대에서 재현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의식을 위해 야단법석이 마련되고, 의식도량을 상징화하기 위해 야외에 영산회상도를 내어 거는 괘불이운(掛佛移運)으로 시작하여 괘불 앞에서 찬불의식을 가졌다. 괘불은 정면 한가운데 걸고 그 앞에 불단을 세우는데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 신중(神衆)을 모시는 중단, 영가를 모시는 하단 등 삼단이 있다. 그 뒤 영혼을 모셔오는 시련(侍輦), 영가를 대접하는 대령, 영가가 생전에 지은 탐 · 진 · 치의 삼독의 의식을 씻어내는 의식인 관욕이 행해졌다. 그리고 공양드리기 전에 의식장소를 정화하는 신중작법(神衆作法)을 한 다음 불보살에게 공양을 드리고 죽은 영혼이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찬불의례가 뒤를 이었다. 이렇게 권공의식을 마치면 재를 치르는 사람들의 보다 구체적인 소원을 아뢰게 되는 축원문이 낭독됐다.



10월 18일 광주 도심의 서구문화센터에서 펼쳐진 ‘전통불교 영산작법 시연회’

마지막으로 본의식이 끝나고 영산재에 참여한 모든 대중들이 다 함께 하는 회향의식이 거행됐다.

행사에는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지암 스님을 비롯해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시연회를 감상했다. 특히 광주시 문화재 전문위원과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연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행사를 준비한 월인 스님은 “ 전통불교영산회는 지역 불교전통의식을 전수하며 이를 수행의 근간으로하는 승가단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인재불사의 원력으로 후학들을 교육 · 양성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불교영산회는 봉원사 영산작법 이일응 스님의 맥을 이어 1982년 창립됐다. 5 · 18민주항쟁 희생자위령대재를 30년 넘게 봉행해오고 있으며 종교음악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위령제, 백제불교최초 도래지 수륙대제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 화엄사, 농민 · 노동자와 함께 통일쌀 벼베기 진행

“통일을 위한 곡식이 북녘 땅에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와 구례군 농민회, 기아자동차노동조합 광주지회가 함께 경작한 통일쌀 벼베기 행사가 지난 10월 22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 들녘에서 개최됐다.

이날 추수된 쌀은 지난 6월 18일 스님과 농민, 그리고 노동자가 힘을 모아 심었던 통일모다. 이날 수확된 통일쌀은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전해질 예정이다. 구례군 통일쌀은 지난 2007년부터 화엄사와 노동자와 농민과 더불어 ‘통일경작단’을 구성하고, 화엄사 소유의 20,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통일쌀을 경작해 왔다. 지난 2007년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상당의 통일쌀을 농민회와 공동으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지원본부를 통해 지원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4대 종단과 함께 ‘희망의 김장’ 협약

고창지역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4대종단 대표들이 모여 종교를 초월한 나눔 자원봉사봉사활동을 펼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원불교 양인경 교무, 천주교 백원철 총회장, 고창중앙교회 전종찬 목사 등 4대 종단 대표들은 지난 10월 18일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희망의 김장 담그기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각 종단 대표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교를 초월한 봉사활동으로 나눔과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 · 협력해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과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 15~16일 이틀간 배추 2,000포기로 김장을 담가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매년 겨울나기로 여러 기관 · 단체에서 김장을 실시하지만, 금년에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4대 종단과 협약을 맺고 화합과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4대 종단과 협력하여 나눔을 실천함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쌓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제 38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열려



태고종 제38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수계식에는 112명의 행자들이 계를 받았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도산)은 10월 23일 태고총림 선암사 중앙금강계단에서 전계아사리 도산 스님, 교수아사리 혜공 스님(중앙종회의장 직무대행), 갈마아사리 운곡 스님(호법원장) 등 3사와 7증 스님이 증명한 가운데 제 38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주간의 합동 행자교육을 마친 112명(남행자 76명, 여행자 36명)의 행자가 사미 · 사미니계를 받았다.

수계식에 앞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계 후 태고종 스님으로써 본분을 지켜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 “무릇 출가자는 입지(入志, 뜻을 바로 세우다)를 세워야 하며, 뜻을 이룰 때까지 노력하고 중생들을 지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타종에 이어 종사이운(종정예하), 불교의례, 법어, 종사이운(삼화상 칠증사), 교육우수자 상장 수여가 진행된 후 수계의식이 봉행됐다.

이어 진행된 수계식은 출가 전 사바세계의 은혜와 부처님과 나라, 부모님께 감사하는 3배를 올리며 출가의식을 시작으로 사미, 사미니 10계를 지키겠다는 서약 의식이 진행됐다. 이어서 머리카락을 잘라 세속의 번뇌를 없애는 체발의식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도 바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인 연비의식, 그리고 홍가사를 수하는 정대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태고종은 선암사에서 진행한 행자교육을 통해 불공습의 대한 강연과 실습 등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남고사, ‘가을향기 담은 산사음악회’ 초연



전주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남고사의 음악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8경의 하나인 전주 남고사에서 처음으로 산사음악회가 개최됐다. 전주 남고사(주지 원혜)는 10월 18일 전주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초대해 ‘가을향기를 담은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사음악회는 지역에서 유명한 ‘해질녘에 들리는 남고사의 저녁 종소리’인 ‘남고모종’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사찰보다 ‘남고사를 알리는 음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열리게 됐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동서학동주민자치위원회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 한누리클럽의 지원 하에 전주시립국악단 최명호, 장대환의 대금연주, 네잎클러버 밴드공연, 김일곤의 색소폰, 박숙희의 오카리나, 이화경교수의 시낭송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음악회에 앞서 원혜 스님은 남고산성 내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전주 팔경의 하나인 남고모종의 의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혜 스님은 “남고사의 산사음악회 개최를 여러번 기획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던 중 지역주민과 함께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열게 됐다.” 며 “남고사는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절이며 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산재해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남고사 산사음악회를 통해 오랜 세월동안 전주를 지켜온 남고산성과 그 안의 많은 문화재를 알리고 한옥마을과 무형문화유산원과 함께 명품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발전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음악회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한 ‘화엄음악제 2013’

지리산 골짜기의 아름다운 음악제 ‘화엄음악제’가 10월 19일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 각황전 앞마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8회째 맞이한 ‘화엄음악제 2013’는 ‘첫 번째 빛’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영적지도자와 음악인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부대행사인 템플스테이와 연계하여 많은 외국인과 음악인들이 사찰문화체험과 함께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제목은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었던 지두 크리슈나무르티(1895~1986)의 "스스로에게 빛이 돼야 한다. 진실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한다(En-light-ened-This light in Oneself)"는 말에서 인용된 주제이기도 하다.

올해는 기존 화엄사영성음악회의 명칭을 화엄음악제로 간소화하고, 지금까지 음악감독의 역할을 맡아 참가해 왔던 '원일'이 총감독을 맡았다. 원일은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작곡가, 지휘자, 연주가 등 다양한 음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행사는 톡특한 음색으로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는 최고은의 노래를 시작으로 '소리의 생태학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과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며 소리를 연구하는 ECM레이블의 아티스트 '스테판 미쿠스'가 출연했다. 이 외에도 정재일, 카입(Kayip), 정가악회, 원일이 출연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2006년 '첫 발자국'을 주제로 시작된 '화엄국제영성음악제'는 이후 길떠남(2007), 길눈 뜨다(2008), 길을 묻다(2009), 길동무(2010), 기쁨마중(2011), 내려놓으니 아름답다(2012) 등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종합반”
◆ 장소 : 서울 종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지도 : 40년의 경륜을 지닌 인성교육 스피치 임상심리에 전문가인 설법 연수원의 “又佛 김철회 원장”이 총괄 지도함.

※ 한국 설법연수원장 김철회 박사는 현재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으로서
최면치료 지도사이기도 함.

◆ 문의 : 010-7248-1567 / 02)747-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2번 출구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 승적원부 (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 임명장, 사찰등록증, 발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禪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 문의: (02) 959-1825
대한禪報신문사 문의: (02) 962-3467
불교종단사업부 문의: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의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불청지우’ 정신 10년째 실천 노력

不請之友

홍법사 10월 20일 창건 10주년 개산문화대재 개최


10월20일 경내에서 진행된 다문화페스티벌에서 심산스님이 모범 다문화가정에게 표창을 하는 모습

대만과 전세계에 불법의 화려한 꽃을 피운 성운대사에게 포교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청지우(不請之友, 자비로운 품성과 보현행원 정신)를 묵묵히 실천하고자 했을 뿐’ 이라는 짤막한 답변이 돌아왔다. 짧지만 어떤 자세한 설명들도 이보다 자세하게 이해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인간불교를 표방하며 사람에 대한 진심어린 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대만에 불광산사가 있다면 그에 비하면 아직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한국에는 부산 홍법사가 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도량 홍법사(주지 심산)는 10월 20일 창건 10주년을 맞아 개산문화대재 및 부산 다문화 페스티벌, 국화축제 등 지역민과 소통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심산 스님은 대광명전에서 개최 된 법요식에서 “10년이란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10년 동안 일구어 놓은 아미타대불, 삼천불전, 대광명전을 조성한 사실 자체에 더 큰 원력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각자의 신행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스님은 “가건물,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던 지난 10년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더 중요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2025년이 되면 통신의 속도가 천배가 빨라진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의 고정관념과 정체성을 꿰뚫어 우리불자들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건물서 시작해 대가람으로 성장
도심 휴식공간으로도 사랑받아

10년 전, 1만5천 여 평의 아름다운 농원에 작은 슬레이트 지붕을 앉힌 가건물로 문을 연 홍법사는 어느덧 눈부신 대가람으로 성장했다. 전통과 현대적인 건축이 어우러진 원형법당과 그 상층부에는 국내 최대의 아미타 좌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그림 같은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수목들이 즐비해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더할 나위 없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량이 되었다.

홍법사에는 불청지우의 정신이 도량 구석구석 배어 있다. 전각들의 조성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주지 심산 스님의 말처럼 건축은 건축이 아니고, 수목은 수목이 아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있고, 현대인들의 고통을 더는 쉼터로 어려운 이웃의 벗이 되고자 하는 진심이 부산의 불심을 움직였다 할 것이다.

국화향 만발한 시월, 홍법사 경내엔 국화꽃이 천지고, 힘든 이의 벗이 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지글거리는 전 부치는 소리,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내는 정겨운 미소가 넘친다.

사람을 위한 진심, 진정어린 벗이 되려는 홍법사의 10년은 불사를 위한 불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의 불사였다 할 것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사찰의 흔적 소리문화로 알려

진각종, 폐사지 음악회 19일 열려



진각종이 주최한 ‘폐사지 음악회’가 10월 19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렸다.

소실되어 사라진 폐사지의 실태와 불교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음악회가 열렸다. 진각종 폐사지음악회가 10월 19일 대구 두류공원 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진각종 교육원장 경당정사와 대구교구청장 혜명정사, 동화사 문화국장 연암 스님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음악회 공연에는 풍물단과 팝페라, 댄스,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인기초청 가수 안치환의 무대도 마련됐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사찰의 흔적을 소리문화로 표현하는 폐사지 음악회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법문의 자리”라며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진각종 전국신도회 조직인 총금강회 대구지부(회장 김창식)는 ‘금강복지회’ 발족을 기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 판매마당의 바자회를 열었다.

진각종 폐사지음악회는 문화복지연대가 옛 절터를 올바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민운동으로 ‘1폐사지 1지킴이’ 활동을 펼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진행돼 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일불교조계종 수성구 건장사 개원


10월 19일 열린 건장사 개원식 모습.

대일불교조계종은 10월 19일 대구 수성구에 건장사(주지 청진)를 개원했다.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삼존불 부처님 점안 법회에 이어 티벳 라왕톱텐 린포체 스님을 초청 법회를 열었다. 특히 이 법회는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남광일 회장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삼광사신도회 창립 44주년 기념법회

11월 1일 지관전서 개최…2만여명 참석 예정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11월 1일 오전10시 지관전에서 신도회 창립44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장도정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부산 주요 기관장과 불자 2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광사신도회는 17개 지회와 17개 신행단체, 금강불교대학, 삼광교육대학, 삼광다도대학 등의 산하교육기관과 힐링광장을 비롯한 대사회봉사단체에 이르기까지 36만의 신도조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삼광사청년회는 10월24일부터 11월10일까지 지역민들을 위한 제1회 국화분재 전시회를 삼광사 경내에서 개최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산사의 샘물 청정성 유지돼야

역사가 오래된 사찰치고 명당이 아닌 곳에 자리를 정했던 사찰은 많지 않다. 특히 사찰의 입지가 산으로 옮겨가고 스님들이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면서부터는 더욱 더 좋은 자리에 사찰이 지어지게 된다. 어쩌면 그렇게 물 좋고, 그윽한 곳을 찾아서 절을 지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물이 좋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사용할 물이 충분하다는 뜻도 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좋다는 뜻이 더 강하다. 예로부터 절이 자리를 잡은 곳에는 약수가 많았는데, 절을 짓고 보니 약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약수가 있는 곳을 찾아 절을 지었던 것이 분명하다.

몇 해 전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에 있는 석왕사(釋王寺) 약수가 만성소화기질환 및 간염치료에 특효가 있으며, 이 약수에는 유리탄산과 나트륨이온, 칼슘이온이 들어 있고 철이나 동 성분도 풍부히 함유되어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좋은 약수는 그냥 두지 않고 상품화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이한 효험을 보인 약수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경주 석굴암, 장흥 보림사, 고성 옥천사, 경주 기림사, 하동 쌍계사, 고성 건봉사, 구례 천은사, 강화 정수사, 동두천 자재암 등이 대표적이다.

석굴암 약수는 요내정에서 샘솟는 것으로 〈삼국유사〉에 이 약수에 대한 기사가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요내정도, 약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찰에 그렇게 많던 샘물 가운데에서 물의 청정성이나 수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수원이 훼손되거나 수맥이 단절되면서 수질이 오염되기도 하고 물이 말라 나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는 원상을 회복하기 어렵고, 수맥은 한번 끊어지면 이미 그 물은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절에서조차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사 먹는다면 이것은 사찰의 청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사찰의 샘물이 오염되면 사찰만큼은 아직도 청정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된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사찰의 샘물은 사찰의 청정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찰의 샘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 사찰의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의 샘물은 사찰의 청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오염되어 먹을 수 없게 된 오래된 샘물. 사진은 경상북도 ㅂ사찰에 있는 샘물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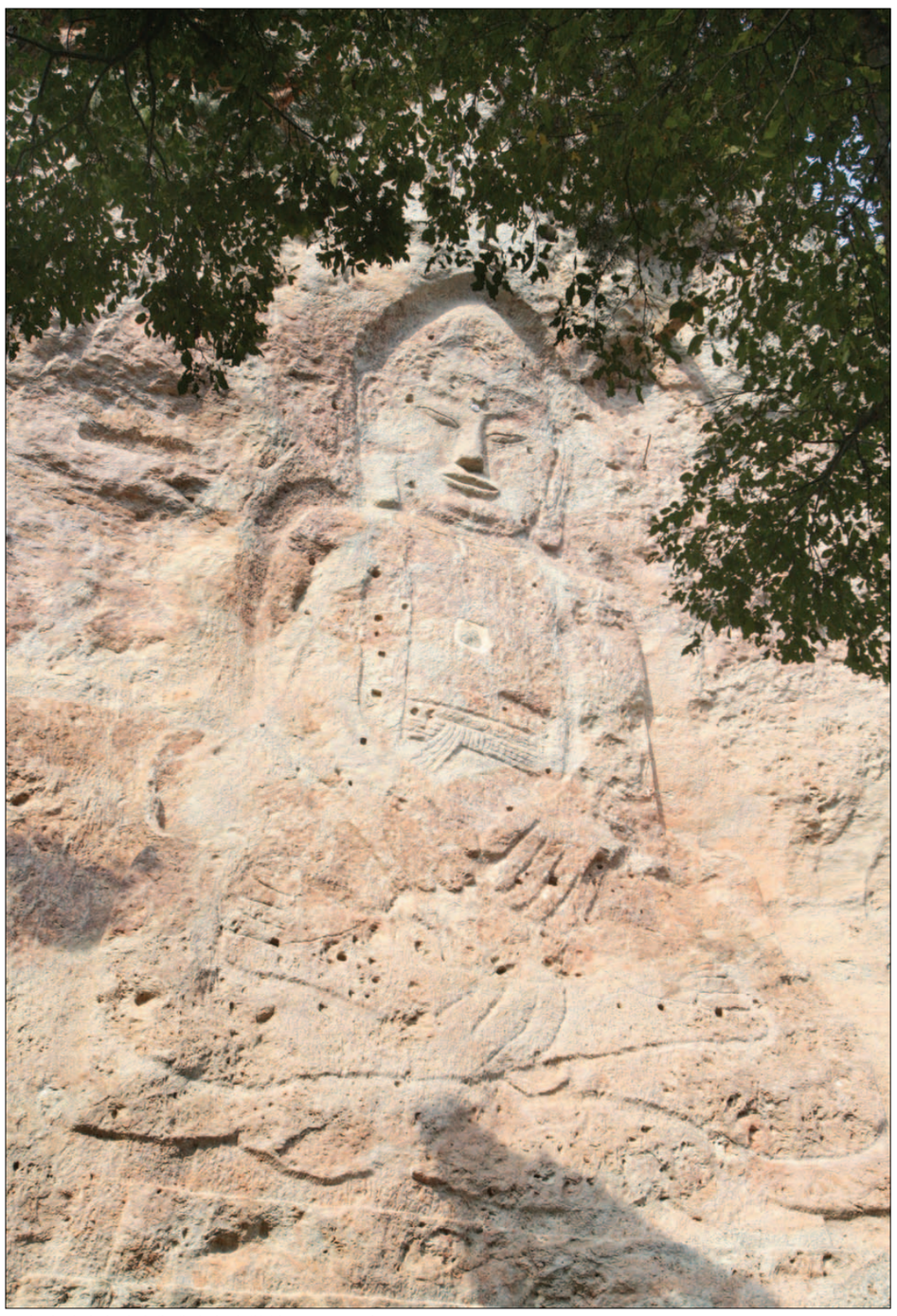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개 강 : 2013년 10월 16일 (각 지역 별도 개강)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장금이 걸어간 길에 도솔천 미륵부처님이…

드라마 촬영지 3-고창 도솔암(대장금 촬영지)



도솔암 서편의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보물 1200호)



도솔암 전경



도솔천에 내원궁이 있듯이 도솔암에도 내원궁이 있다.

"장금아, 수라간 최고 상궁이 되어다오."
어머니 곁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드신 산딸기가 놓여있다.
"어머니, 이제 저 갈래요."

어린 장금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돌무덤을 쌓고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올린다. 2003년 방영됐던 드라마 '대장금'에서 어린 장금이는 깊은 산 중에서 홀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킨다. '대장금'은 주인공 장금이가 궁궐에 들어가 최초의 어의녀가 되기까지, 장금의 성공과 사랑을 그려낸 드라마다. 어린 장금이가 어머니를 여의고 돌무덤을 쌓는 장면(제2회)의 촬영지는 고창 도솔암의 도솔산(선운산)기슭 용문굴이다.

깊은 하늘 밑의 도솔암

도솔암은 미당의 시와 동백이 떠오르는 선운사를 거쳐서 간다. 선운사 일주문이 보이고 일주문 너머로 보이는 숲엔 홍엽이 번지고 있다. 푸르던 숲을 떠올리니 뜨거웠던 한 시절이 화로 속에 날아든 눈송이처럼 홍엽의 숲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노랗게 익어가는 은행나무들 너머로 선운사 도량이 보인다. 선운사를 바라보며 도솔암으로 향한다. 선운사에서 약 3km다. 길은 완만하다.

깊어진 하늘 밑에 도솔암이 있다. 극락보전, 선방, 내원궁, 나한전, 신신각이 있으며 나한전 옆으로 거대한 암벽에 마애불을 모셨다. 도량은 크지 않지만 도량이 품고 있는 풍경은 넓었다. 도솔(兜率), 도솔은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정토로 욕계의 여섯 하늘 중 네 번째 하늘이다. 부처님을 마음속에 담은 중생이라면 꼭 가고 싶고, 꼭 가야 할 곳이다. 그래서일까. 깊은 가을 하늘 아래 숨겨놓은 듯한 도솔암의 안과 밖은 생각하기에 따라 작게도 보였고 한 없이 넓게도 보였다. 마당 끝에 놓인 법당 한 채엔 중생이란 중생이 모두 들어가 앉을 듯했고, 법당에서 내다보이는 세상엔 어디 한 곳 발 디딜 곳이 없어보이기도했다.

미륵도량 도솔암

도솔암은 언제 창건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적기에는 선운사와 함께 백제 때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이 만년에 왕위를 버리고 도솔산의 한 굴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어는 날 밤 바위가 쪼개지며 그 속에서 미륵삼존불이 출현하는 꿈을 꾸고 이에 감응하여 도솔사 등 여러 사암을 창건했다고 한다. 진흥왕은 통일신라 이전의 신라의 왕이었는데 당시 백제의 영토였던 이곳에 신라왕이 머물렀다는 설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미륵삼존의 출현이나 도솔이라는 이름 등은 도솔암이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창건된 사찰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도솔암 서편의 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좌상(도솔암마애불 · 보물1200호)은 고려 초기의 마애불 계통 불상으로 주목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마애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도 도솔암과 미륵신앙의 깊은 연관성을 볼 수 있다.

마애불좌상이 조성된 이래 불상의 가슴 중앙에는 신기한 비결(秘訣)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 오는데, 동학농민전쟁무렵에는 동학의 주도세력들이 현세를 구원해줄 미륵의 출현을 내세워 민심을 모으기 위해 이 비기를 꺼내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에는 '도솔산 중사(仲寺)'라는 명문이 있어 당시에는 절 이름을 중사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주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도솔암은 상도솔암, 하도솔암, 북도솔암 등 세 암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근세와 와서 북도솔암을 중심으로 하나의 암자로 통합됐다.

도솔천 내원궁

도솔천은 내원(內院)과 외원(外院)으로 되어 있다. 외원은 수많은 천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내원은 미륵보살의 정토로서 내원궁(內院宮)이라고 부른다. 내원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기 전에 머무시면서 중생 교화를 위한 하생(下生)의 때를 기다렸던 곳이다. 미래불인 미륵보살은 현재 내원궁에서 설법하면서 남섬부주(南贍部洲)에 하생하시여 성불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극락보전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면 도솔천내원궁이 있다. 지장보살좌상(보물 280호)을 모셨다. 도솔암은 미륵도량인 동시에 지장도량인 것이다. 험준한 바위 위에 세운 법당으로 상도솔암이라고도 한다. 도솔천내원궁을 내려와 나한전을 끼고 돌면 도솔암마애불을 만날 수 있다. 도솔암 서편 암벽에 모신 마애불은 높이 13m, 너비 3m에 이르는 거대한 불상이다. 전설에 의하면 백제 위덕왕이 검단선사에게 부탁하여 암벽에 불상을 모시고 동불암이라는 공중누각을 짓게 했는데, 조선 영조 때 무너졌다고 한다. 불상은 낮은 부조로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어머니 돌무덤을 쌓고있다.

장금이의 용문굴

마애불을 끼고 도솔산을 조금 오른다. 마애불이 모셔진 암벽 뒤편에는 힘든 중생들의 염원과 서원이 담긴 적석탑이 부처님 발아래 모여 있다. 약 300m쯤 산길을 걸으면 어린 장금이가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돌무덤을 쌓았던 용문굴이 나온다. 드라마에서 장금이가 쌓았던 어머니 돌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어머니, 말씀 그만 하시구 이걸 드셔요. 드신 것이 없어 힘이 드실 것이옵니다."장금이가 어머니 입에 산딸기를 물린다.

"맛있구나."

"못 씹으셔요? 그럼 제가 씹어드릴게요. 어머니도 제가 아플 때 그리 해주셨죠?"

어머니는 더 이상 산딸기를 씹지 못한다.

"어머니 드셔요. 드셔야 기운 내시죠."

장금이가 눈물을 쏟는다.

드라마 대장금은 도솔산 기슭에서 이렇게 시작됐다. '장금'은 조선 중종 대의 어의녀로 왕의 주치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대(大)자를 붙여 일명 '대장금'으로 전한다. 출생연도와 성씨, 본관, 출생 배경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어의녀 중에 왕의 주치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의녀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회자된다. 천민 신분의 의녀로서 수많은 남자 의관을 제치고 왕의 주치의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남성 위주의 엄격한 관료주의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로서 그녀가 뛰어난 의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린 장금은 어머니의 돌무덤을 쌓고 산을 내려갔다. 장금이는 내려가는 길에 마애불을 보았을까. 드라마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장금이는 분명히 부처님을 뵙고 갔을 것이다. 모든 힘든 이들의 미래인 미륵불이기 때문이다. **고창 도솔암=박재완 기자**

주변보기

〈사찰〉

선운사 / 선운산도립공원 내. 백제 위덕왕이 창건한 선운사는 보물 290호인 대웅전과 보물 279호인 금동보살좌상 등 19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문수사 / 고수면 은사리 48
백제 의자왕 3년(643)에 신라의 자장율사가 지은 사찰. 청량산 중턱에 있으며, 천연기념물 단풍나무숲으로 가을에 더욱 아름답다.

〈가볼만한 곳〉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유적 · 고인돌박물관 / 고창읍 죽림리 일대 (063)560-8662
고창고인돌유적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게 고인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매산리 산기슭에서부터 약 1.5km 이어지며 447기의 고인돌이 있다.

고창읍성 / 고창읍 읍내리 산9 (063)560-8067
고창읍 음성은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잔라도민들이 축성한 성곽.

고창갯벌 / 부안면 심원면 일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 갯벌은 40.6㎢의 면적에 펄갯벌, 혼합갯벌이 조화롭게 분포되어 다양한 저서동물과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 보존가치가 높다.

〈숙박〉

고창군선운산유스호스텔 / (063)561-3333
선운산관광호텔 / (063)561-3377
정다운펜션 / (063)561-1589

〈식당〉

동산식당 / (063)563-9400 굴비정식, 풍천장어, 산채비빔밥
아산가든 / (063)564-3200 장어구이(전라북도 지정 우수외식업소)
진흥가 / (063)563-3441 장어구이, 산채비빔밥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2000부@600원 • 100부@800원
• 규격:9.5cm × 13.4cm • 매수: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2000부@400원 • 100부@600원
• 규격:8.9cm × 9.5cm • 매수:16장

미얀마 불교 이야기

14. 미얀마 불교 조직과 구조 그리고 성격

군부에 버금가는 힘을 지닌 승가

1950년 종교성 설립하며 불교 중흥책 펼쳐
전통계승 · 불교 진흥과 정화 주목적
정부지원액 등 다른종교에 비해 압도적
경전 번역과 서적편찬 등 정부가 담당



미얀마 종교성이 위치한 까바에 파고다. 미얀마는 스리랑카와 함께 종교관련 정부기구가 따로이 구성된 국가 중 하나다.

기독교는 제국주의 동일인식, 선교효과 미미
늘어나는 이슬람에 불교도 압박취해… 갈등
미얀마족 기독교 개종 소수민족 멸시
승가는 군부 외 전국조직망 지닌 유일 단체

1. 정부 기구로서 종교성

정부 기구로서 종교성(宗教省 :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이 설치된 나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들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터키, 오만 그리고 미얀마와 인접한 방글라데시이다. 또한 이슬람 국가들과 긴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도 종교성이 있다.

불교국 가운데는 미얀마와 스리랑카를 들 수 있다. 태국의 경우는 문화성(Ministry of Culture)에 종교담당부서(Religious Affairs Department)가 설치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 외국의 종교성과 종교담당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얀마는 정부기구로서 종교성이 있다. 현재 종교성 청사는 수도인 네피도에 있다. 종교성 장관은 우 싼씬(U Sann Sint)이며 미얀마 불교의 법왕(Dhammaraja)은 우 꾸마라(U Kumara) 스님이다. 종교성의 실무는 상좌불교 대학교와 맞닿아 있는 양곤의 까바에 파고다 내의 기관에서 진행된다. 필자도 미얀마를 찾았을 때 종교성 직원과 면담을 하고 포교용 책자 등을 받은 바 있다.

종교성 홈페지에 의하면 '종교성의 설립 목적' 을 다음의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
둘째, 상좌불교 발전과 선양 그리고 정화를 위해
셋째, 국제적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하기 위해
넷째, 미얀마 전통과 문화를 보존 발굴하기 위해

다음으로 '종교성의 정책' 은 더욱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 미얀마 연방 모든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
둘째, 서로 다른 종교간 화합
셋째, 불교 승가의 통일을 위하여 등이다

미얀마 종교성의 홈 페이지(http://www.myanmar.com/ministries)를 보면 현 미얀마 종교성이 형성된 것은 독립(1948년 1월4일) 이전인 1947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미얀마 정부에 의해 설립된 해는 1950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종교성의 설치목적과 역할은 종교 자유의 실현과 상좌불교의 진흥과 정화, 그리고 국제적인 불교교류와 미얀마 관습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얀마는 갖가지 종류의 불교 진흥책과 불교국교화까지 추진하려 했다. 여기서 먼저 미얀마 종교성이 제시한 종교별 인구와 종교 건물의 수는 다음과 같다.

	종 교	종교인구	종교건물수
1	불교	89.280%	
2	비구	226,508명	사찰 58,399곳
3	비구니 (정확히는사미니)	25,834명	
4	사미후보수련생	34,365명	수련원 2,749곳
5	개신교	2,264,884명	교회 3,265곳
6	무슬림	1,692,898명	모스크 2,266곳
7	힌두교	228,654명	힌두사원 464곳
8	중국계종교	151명	

(http://www.mora.gov.mm/mora_department1.aspx)

이러한 종교성의 자료는 불교가 종교 인구나 건물의 수에서도 절대 다수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독립 후 미얀마의 헌법 제21조 1항은 "국가는 연방의 최대 다수가 신봉하는 종교로서 불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불교의 지위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걸맞게 미얀마는 종교성을 정부 기구로 설치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얀마 정부의 불교에 대한 입장과 종교성의 조직과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교에만 국한하여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종교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종교 별 매년 지원하는 액수는 다음과 같다.

	종 교	연간 지원액
1	불교 (Kachin, Kayah, Kayin and Shan)	Ks 115,000
2	개신교	Ks 36,350
3	가톨릭	Ks 15,600
4	힌두교	Ks 38,500
5	이슬람	Ks 100,000
6	토속종교	Ks 86,550

(http://www.mora.gov.mm/mora_department1.aspx)

종교성은 불교를 포함한 개신교 등의 종교 집단에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원액에 있어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도 믿을 자유는 있지만 불교를 특별히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성의 설치목적과 역할을 명시한 마지막 구절에서 미얀마 관습과 전통문화를 향상시킨다는 말은 또한 불교 중심으로 형성된 미얀마의 전통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성의 부속기관(Child agencies)은 다음과 같다.

1) **종교분과**(Department of Religious Affairs)
2) **불교 포교와 불교진흥분과**(Depart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pagation of Sasana)
3) **국제 상좌불교 대학교**(International Theravada Buddhist Missionary University)
4) **국제 승가 위원회**(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

더 각 부속기관 별 역할과 책임으로 종교분과는 모든 국민이 미얀마 연방은 어느 종교이든 자유롭게 믿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에 이어 최대다수 종교인 불교를 3가지 방면에서 지원한다.

첫째, 경전의 교학(Patiyatti), 둘째, 수행(patipatti), 셋째, 통찰하는 반야지혜(pativedha)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마찬가지로 미얀마 전통과 문화유산을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역할과 책임을 부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교 포교와 불교진흥분과는 미얀마 국내외에 불교포교와 경전의 번역과 불교서적의 편찬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1998년에 설립된 양곤의 국제 상좌불교 대학교와 양곤과 만달레이에 각각 설립된 승가전문대학인 경학대학교(The State Pariyatti Sasana University)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모두 국립에서 설립한 대학이다. 경학대학교는 스님들만 공부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중앙승가대학교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스님들은 대학내에서 거주하며 공양을 한다. 국제 상좌불교 대학교는 학부에서 박사 과정까지 있고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공부한다. 주로 스님들이 교수로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재가자도 교수도 있다. 현재 한국불교계의 일부 단체와 사찰이 미얀마 종교성과 많은 부분에서 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각 종단별이나 사찰 단위별로 미얀마에 사찰학교 건립과 유지를 지원하거나 기술학교 등의 건립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불교와 승단의 사회적 영향력

前 미얀마 주재 한국외교관의 말에 의하면 "미얀마에서는 군부 이외에 불교 승단이 유일하게 조직화된 세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조직화된 세력으로서 불교승단은 국민들의 존경심과 사회적 인식 때문에 결코 정부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다고 한다.

승단의 배경은 89%의 미얀마 불교인구에 있다. 그러한 불교인구 가운데 60%는 미얀마족이며 미얀마족의 99%는 또한 불교도라 할 정도로 견고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시사하는 바는 미얀마 민족주의는 불교라는 종교문화가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얀마에서 외국인에 의한 기독교 선교는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한국개신교 선교사는 미얀마의 여러 곳에서 선교활동을 열렬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다만 독립 이전부터 있었던 가톨릭의 활동은 허용된다.

미얀마는 영국과 같은 서구열강의 식민지배의 저항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전통종교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는다. 더 나아가 식민지시기에 영국 등의 서구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기독교가 선교되었기에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기독교를 서구 제국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불교가 지배종교로서 미얀마 사회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얀마에 있어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간의 반목과 대립이라는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에 대한 역사적 맥락은 다시금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얀마는 종교와 민족문제가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다.

미얀마 역사 전공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미얀마족은 소수종족을 식민정부에 아부하는 협잡꾼으로 절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영국 식민 지배기간 동안 영국의 분할 정책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식민주의의 군속으로 복무했던 일부 소수종족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남아있다.

미얀마 종교조직 가운데 불교 승가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승가의 구성인인 스님들은 무소유의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다. 때문에 미얀마에서 불교 승가는 군부 이외에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즉 승가는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체인 것이다. 군사정부가 가장 견제했던 조직체는 바로 승가였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봉 대법사 창건 기념 행

철야 정진 기도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창건을 봉축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불자님께서는 수희 동참 바랍니다.



몸 아픈자 몸 치유하고
마음 아픈자 마음 치유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어 납시다.

일 정 |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11시 시작
입 제 | 첫 철야기도 2013년 11월 2일
문의 및 접수 | 033)342-3372
070-4155-3372



700고지 정상 약사기도도량 대 법 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 2리 109-1번지

50% 무상보조 2013년도 하반기 마지막 접수 한국전력공사 추천 권장품목 초절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한정마감) 온수관 난방 시스템

(1) 발전 → 자체사용시설 (2) 발전 → 판매용시설

2013년도 마지막 기회!!
이번기회 놓칠경우
5년이후 재신청 가능!!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당장 신청하세요.
80%이상 전기요금 절감

설치전 194,830원 → 설치후 28,470원 = 월 166,360원 절감! 년 1,996,320원 절감!

정부정책사업 → 안정성, 수익성, 25년 장기계약
3,000만원 투자시 월 50만원 연 600만원 수익창출



에너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돈 먹는 하마 KO 시키다

특히 산중사찰 동절기 보일러 고장대비 교체요망
보일러가 필요없는 난방시스템

난방비, A/S 걱정없는 열전도체 온수관 난방
기름, LPG대비 70% 심야전기 가스대비 50% 절감
난방비, A/S 보일러교체걱정에서 완정해방!
신축 · 증축 · 개축시설 모두에 적용

- 보일러노후 고장으로 교체시기 임박한곳
- 보일러 용량부족, 건물 노후로 난방이 잘 안되는 곳
- 각방, 각호실 별도로 조절기 필요한 곳
- 가재도구 이동없이 당일 시공, 당일 사용

방 5평 기준 월 20,000원이면 난방 끝!!



▲온수관 신축 시공 작업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협력 업체
(주)경동에너지 문의 080-169-0227 / 010-2183-5822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⑤ 문수봉(文殊峰)



사자 탄 문수보살이 봉우리 위로…

문수봉은 의상봉에서 시작하는 의상봉능선의 마지막 봉우리로 높이는 727미터이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속한다. 봉우리 북쪽 자락의 청수동암문에서 의상봉능선, 산성주능선, 그리고 비봉능선이 만난다. 봉우리 위에 있는 두꺼비 모양의 바위 등에 걸터앉아 기도하면 지혜로운 자녀가 태어난다는 전설이 전한다.

문수봉은 고려 시대에 탄연(坦然) 스님이 창건한 문수암(문수사)에서 명칭이 유래한다. 탄연 스님의 속성은 손(孫), 호는 묵암(默庵), 시호는 대감국사(大鑑國師)이다. 스님은 고려 문종 24년(1070)에 밀양에서 태어나, 19세에 개성 광명사의 혜소(慧炤) 스님에게 사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인종 23년(1145)에 왕사가 되고, 의종 13년(1159)에 지리산 단속사에서 입적했다.

탄연 스님은 출가 후 국내의 이름난 산을 찾아다니며 수도하다가 어느 날 삼각산에 들어서게 되었다. 해가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으나 인가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멀리 길을 가는 동자가 있었다. 스님이 동자에게 길을 물으려고 따라갔으나 좀체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동자는 계곡을 건널 때나 바위를 오를 때 힘든 기색이 없었다. 동자의 걸

탄연 스님 창건 문수암에서 유래
동자 따라간 동굴서 문수보살 친견
동굴 옆에 지은 문수암 3대 문수성지

음걸이는 바람처럼 가벼우면서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스님이 동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뛰듯이 달려가도 유유히 걷는 동자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스님은 동자를 따라 점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스님은 허겁지겁 동자를 따르기 바빴는데, 가쁜 숨을 돌리고 보니 어느 순간 동자가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니 굴속이었다.

굴속은 아늑했고 한쪽 구석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 스님은 샘물로 목을 축였다. 샘물은 달고 시원했다. 샘물을 마시자 배고픈 느낌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졌다. 비로소 스님은 굴속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굴 한가운데 문수보살이 오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왼손에는 푸른 연꽃을 들고 연화대에 좌정해 있었다. 주위에는 수많은 동자가 문수보살을 호위하고 있었다.

동자들은 한결같이 천진난만하면서도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굴속은 문수보살의 후광으로 대낮처럼 밝았고,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다. 스님이 급히 일어나 문수보살께 삼배를 올리고 고개를 들자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봉우리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수많은 동자가 오색구름이 피어오르는 봉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스님은 문수보살과 동자를 향하여 합장하였다. 비로소 스님은 모든 것이 문수보살의 뜻임을 알았다. 문수보살이 동자로 하여금 스님을 동굴로 인도하게 한 것이다. 스님은 그 동굴을 문수굴이라 칭하고 수도를 하기 시작했다. 스님이 경을 읽으면 언제나 산속의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모여 독경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스님은 불법에 정진하는 한편, 틈틈이 서예를 연마했다. 스님은 나뭇가지를 꺾어 붓으로 삼고 땅바닥을 종이로 삼아 글씨쓰기를 했다. 굴 바닥이 움푹 팬 것도 스님이 글씨쓰기 연습을 많이 한 때문이라고 한다.

스님은 예종 4년(1109년)에 문수굴 옆에 절을 지어 문수암이라 칭했다. 문수보살이 지혜의 화신이요, 지혜가 불도를 이루는 근본임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 문수암은 탄연 스님이 창건한 이래 뛰어난 스님들이 수행한 장소로 유명하다. 고려 불교의 중흥조인 태고 보우국사가 문수암에서 정진할 때 청의동자로부터 차 한 잔을 받아 마시고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청의동자 역시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전해진다.

탄연 스님과 보우국사뿐만 아니라 문수암에서 수도한 뛰어난 스님들은 모두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이래 문수보살에 대한 신앙이 성행했다. 삼각산 문수암은 오대산 상원사, 고성 문수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문수 성지이다.

문수암과 문수봉은 국내 제일의 기도처로 알려져 고려 시대에는 의종이 친히 등정하였고, 조선조 문종 원년에는 연창 공주가 문수암을 중창하여 왕실의 원찰이 되기도 하였다. 영조 때의 암행어사 박문수는 그 아버지가 문수암에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한다. 근대에 들어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어머니가 문수암에서 백일 기도를 올린 뒤 이승만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 인연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8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문수암에 올랐다. 현존하는 건물로 대웅전과 나한전, 산신각 등이 있는데, 대웅전의 문수보살상은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가 모신 것이고, 석가모니불은 영친왕 이은(李垠)의 비인 이방자(李方子) 여사가 모신 것이다.

문수암이라는 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이 문수암에 올랐을 때 쓴 것이다.

문수암은 6 · 25 전쟁 때 불탄 것을 1957년에 중창하였다. 불나기 전에는 오백 나한을 모신 나한전이 유명하였다. 1983년 허혜정 스님이 문수굴을 굴법당으로 장엄하여 불자들의 기도와 참배 공간이 되었다.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에서 명칭이 유래한 문수봉은 마치 지혜의 완성을 상징하는 듯 우뚝 솟아 있다. 봉우리 위에는 문수보살을 호위한 동자들처럼 다양한 모양의 바위가 둘러싸고 있는데, 오랜 세월에 걸친 풍화작용으로 기이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지니고 있다. 정상으로 오르는 바윗길은 험난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혜와 구도의 참뜻을 되새기게 한다.

〈얘기꾼〉 신이산

자연마저 응축시킨 '禪 정원'의 미학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교찰을 가다**
⑤ 교토 료안지



교토 료안지(龍安寺)의 석정. 가레산스이 정원 양식의 절정인 료안지의 석정은 15개의 돌로 삼라만상을 표현하고 있다.

모래 위 하얀 자갈이 물결무늬를 짓는다. 그 위에는 돌이 무리를 지어 함께 또는 따로 배치돼 있다.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다. 오로지 돌과 자갈, 이끼 그리고 벽담이 만들어내는 오묘한 풍광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다.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 채워진 듯 하다. 오로지 이 공간에는 돌과 자갈과 모래가 만들어내는 자연 풍광과 내가 있을 뿐이다.

자연을 압축해 조형한 일본의 정원. 이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색에 잠기게 된다. 어떤 이들은 압축된 자연에서 선의 묘미를 찾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정원 양식에 대한 탐구를 한 번쯤은 하게 만든다.

실제 일본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정원 문화다. 특히 가레산스이(枯山水) 정원은 일본 정원 미학의 정점이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 등에 의해 산수의 풍경을 표현하는 정원 양식인 가레산스이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무로마치 막부는 선종 사찰들을 정책적으로 건립했는데 모든 사찰에 물을 사용하는 기존 형식의 정원을 만들 수 없었다. 결국 사찰 정원을 위한 '가레산스이' 양식이 창안됐고 그 후부터 물을 쓰지 않더라도 정원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정원 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사쿠테이키(作庭記)〉라는 책이다. 정원에 대한 세계 최고(最古)의 고서(古書)인 〈사쿠테이키〉에는 어떻게 정원을 꾸미고 조경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한국에도 김승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력사업본부장이 이를 번역해 2012년에 출간하기도 했다. 책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자연 풍광을 정원에 가져다 놓았는지를 알 수 있다.

"땅과 연못의 모양에 따라 각 장소에 맞는 풍정(風情)을 구상하면서 자연풍경(生得の山水)을 회상해 '그 장소는 이와 같았구나' 하고 견주어 생각하면서 정원을 만들라. 정원을 만들 때 옛 명인들의 뛰어난 작품들을 지침으로 삼아라. 그리고 집주인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풍정(我風情)에도 역시 주의를 기울여라." 〈사쿠테이키 中〉



료안지 석정의 입구. 쿠리(庫裡)라고 한다.



석정의 모형을 보고 있는 일본 학생.

15개 돌과 모래, 이끼 등으로
삼라만상 표현…日 정원의 진수

책을 번역한 김승윤은 이 같은 일본의 조경 문화의 연원을 〈일본 서기〉에 기록된 백제의 노자공(路子工)에서 찾는다. 이에 따르면 백제인 노자공은 당시 일본에 수미산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기술돼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발전돼 가레산스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교토 료안지(龍安寺)의 석정(石庭)은 가레산스이의 정점이다. 현재 일본의 대표 선종 종단인 임제종 사찰인 료안지는 1450년 무로마치 막부의 무사 호소카와 가츠모토가 도쿠다이지 가문의 별장을 개조해 만든 것이다. 이후 오닌의 난으로 소실됐지만 1499년에 재건돼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교토의 고찰이다. 이 사찰 역시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료안지의 석정은 장방형으로 동서 25m, 남북 10m의 넓이로 1500년 경 토쿠후오 젠케츠 등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선승들에 의해 조성됐다고 알려져 있다. 가레이산스이 정원의 정점인 만큼 나무와 풀, 물은 절대 사용돼지 않았으며, 모래 위에 풀 한 포기 없이 흰 자갈, 이끼, 돌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다.

15개의 돌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5개, 2개, 3개, 2개, 3개씩 무리지어 배치하였는데 돌의 모양, 크기, 배치를 통해 우주를 표현하고 있다. 15개의 돌은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15개가 다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주 전체를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며 끊임없는 참선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선종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흙으로 낮게 만들어진 벽담도 눈여겨 볼만 하다. 유채기름을 사용해 반죽한 흙으로 만들어진 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름으로 인해 특유한 빛깔을 자아내게 됐다.

이 같은 조형들이 어우러진 료안지의 석정은 일본인이 생각하는 '선(禪)의 미학'의 전형이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저술한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은 이를 두고 "일본 정원이란 돌의 언어로 묘사된 자연 풍경의 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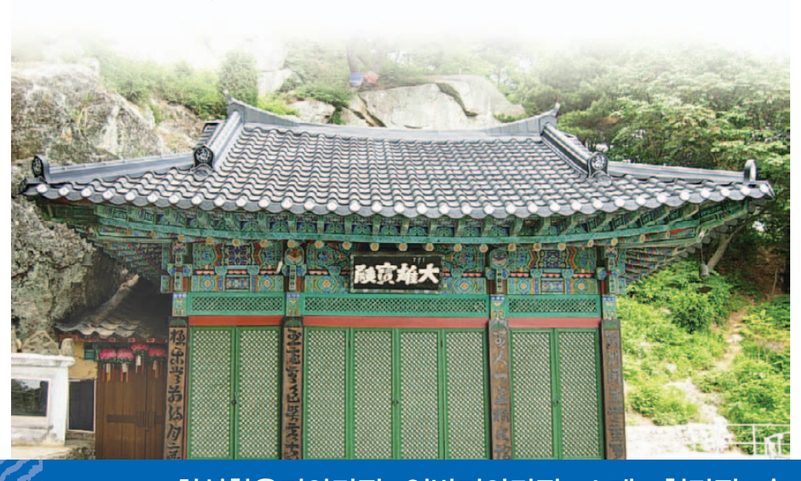
료안지가 비치해 둔 사찰 안내서에는 석정에 대해 이렇게 써 있다. "석정을 보시는 분은 이 독자적인 정원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 안의 자유를 더욱 넓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4백여 년 전, 일본 고승이 돌로 남긴 화두를 모든 것을 채우려고만 하는 현대인들이 타파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매한 질문을 던진다.

motp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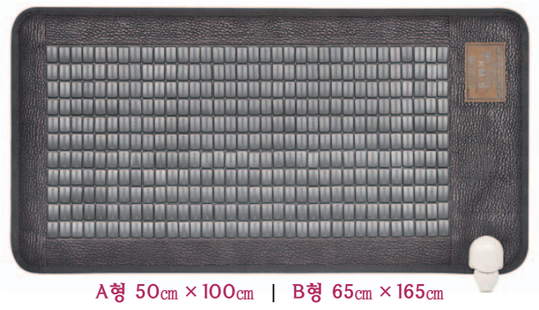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완전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인과 벗어나 인연 살필 수 있어야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7⟩



범어사 주지

자(慈)란 이룰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비(悲)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입장에서 자비심을 말할 때는, 발고여락(拔苦與樂)이라 해서 고를 뽑아내어 즐거움과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중생이 고해 속에서 한량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즐거움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낫게 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니, 그 분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중생들의 마음에는 불꽃이 인다.

하지만 선사들은 좀 다른 입장에 있다. 그런 초보적인 마음가짐을 다 지나서 이제는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아예 고해 자체를 훌쩍 벗어나고 싶은 사람을 상대하여, 그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단도직입으로 진리 당처를 보여주기 위해, 경우 따라서는 상처를 쫙 벌려서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 전도몽상을 깨우기 위해서는, 가끔은 방(棒)이나 할(喝) 같은 충격요법이 필요한 때도 있는 것이다.

자비란 것도 참 여러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높은 차원의 자비는 불이의 중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일심의 본분자리에는 중생만 없는 게 아니라 부처까지도 쌍으로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자비로 무연자비라 한다. 이를 부처도 있지 않고, 제도할 중생도 있지 않다. 그것은 자비라 할 것도 없는 자비다.

그 설하시는 법은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끝에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깨달았다.'고 말하겠는가.

어떤 법을 설하는 게 설하는 게 아니다. 관음보살이 법을 설하면,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그러니까 무설설(無說說)이고 불문문(不聞聞)이다. 설한 바 없이 설했는데, 묘하게도 일체중생은 들은 바 없이 듣고 변화를 한다. 본래 그러한 데에 말없이 계합하는 것이라서, 따로 뭔가를 얻었다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늘 하심하고 향상일로로 정진해야 하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큰스님으로부터 공부를 점검받고, "이제 제가 스님 처소를 떠나 어디 다른데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였다. 큰스님은 기꺼이 소개장을 써주었다. 소개장이란 "내가 이 사람 인정하고 보내는 거니까, 당신도 살펴보고 남한테 이익 되게 써먹으시오."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새로 간 곳의 어른스님께 소개장을 보여드리면, 대접을 받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소개장을 내보이지도 않고, 그저 평대중으로 선방 구석에서 정진만 하였다. 어느 날 예전의 큰스님이 그곳을 들리게 되어, 당신 도반인 방장에게 "과거에 내가 소개장을 써줬는데, 그 수좌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스님은 선방의 말석에 앉아있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스님이 써주신 것은 감사하게 받아들였지만, 그거 내밀지 않아도 제가 더 수행 잘하고 정진 잘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공부인이라면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감내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 하나 안 하고 평상으로 마음 쓰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해야 한다. 항상 부끄러운 줄을 알고 뼈저리게 정진하면, 갈수록 넉넉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이 공부다. 때가 되면 송곳이 바짓가랑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듯이, 모양 쓰게 되어있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다.

높은 차원의 자비는
불이의 중도를 깨닫게
해주는 '무연자비'

수행자라면 부끄러움 알고
뼈저리게 정진하면,
갈수록 넉넉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이 공부다

불법이 중심에 딱 서면,
마치 매사가 벼릿줄을 잡고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쉽고 간단하게 풀려나간다.

인과를 훌쩍 벗어나
인연을 살펴 쓸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며,
비로소 굳건한 정진이 된다



그림 · 박구원

이러한 자비를 그대가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배워 얻을 수 있겠는가? 견해란 스스로 본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니, 마침내 아무런 이익도 없다."

본래 한 법도 없는 자리에서 홀연히 일어난 무연자비는 시작도 끝도 없는 시방삼세에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어떤 인연 따라서 살펴지는 자비도 자비이지만, 인연과 아무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무연자비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설명할 수 없는 도리에 깊게 사무쳐서 뼈저리게 '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는 이것이 참으로 깊은 은혜로구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근본입장을 놓치지 않는 모습니다. 불법이 중심에 딱 서면, 마치 매사가 벼릿줄을 잡고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쉽고 간단하게 풀려나간다. 이것이 평상심으로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세월을 잘 보내는 모습이다.

13. 정진이란?

배휴가 물었다.
"어떤 것이 정진(精進)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다.

정진도 자비처럼 여러 수준이 있다. 중생의 눈높이가 다르니까, 여러 방편이 생기는 것이다. 낮은 근기에게는 우선 앉아배기는 것이 정진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다. 거기서 좀 나아지면 선정과 지혜를 쌍수(雙修) 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법을 눈뜬 최상의 근기가 하는 정진은 귀신도 엿볼 수 없다. 다시는 빗나가지 않는 안목을 갖춰서 온갖 변화를 다 수용하고, 백천 삼매 속에서도 여여부동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다. 닦는 바 없이 닦아, 그 닦음 없는 닦음을 조용히 수용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닦으면 닦는 대로 인과에 걸릴 것이고, 안 닦으면 안 닦는 대로 또 인과에 걸릴 것이다. 인과를 훌쩍 벗어나 인연을 살펴 쓸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때야 비로소 굳건한 정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㉝



이 금광명경(金光明經)은 모든 경전 중 '왕'

⟨금광명경⟩

말도 안 되는 소리?

⟨금광명경⟩이라는 경전은 대단히 생소한 경전이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불교공부를 하신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를 제외하면 이 경전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전문적으로 불교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 ⟨금광명경⟩은 ⟨금고경(金鼓經)⟩으로도 불리우는 경전이며,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경전이고, ⟨인왕경⟩과 함께 호국(護國)의 경전으로 떠받들어 왔다는 것, 일본에서는 스님이 되려면 ⟨법화경⟩과 함께 이 경전을 외우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 정도이다.

한마디로 여전히 생소한 경전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게 중요하고 유명하다면, 어찌하여 오늘날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경전 중에서 왕이다"라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같다.

뿐만 아니다. ⟨화엄경⟩이 모든 경전 중에서 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법화경⟩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금강경⟩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슨 소리인가 ⟨아함경⟩이야말로 부처님의 원음(原音)이자 육성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찌 가만 있겠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시는 목소리도 들리는 듯 하다. 만약 그런 말을 내 자신이 했다고 한다면, 나는 큰 봉변을 당할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도 내겐 탈출로가 없지 않다.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바로 ⟨금광명경⟩이라는 경전의 제일 앞머리, 즉 서품(序品)의 게송에서 첫 구절이 그렇다.

⟨금광명경⟩은 ⟨금광명경⟩이 왕이다

그렇다. 모든 경전은 그 경전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겠는가. 만약 ⟨금광명경⟩을 설하시면서 ⟨법화경⟩이 제일이라 칭찬하고, ⟨법화경⟩을 설하시면서는 ⟨법화경⟩이 ⟨화엄경⟩보다 좀 못한 경전이라고 설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진실로 ⟨금강경⟩보다 ⟨천수경⟩이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은 ⟨천수경⟩을 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강경⟩만 계속 설하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천수경⟩을 설할 때에는 ⟨천수경⟩이야말로 "위없이 높고 매우 깊은 미묘한 법"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 경전을 듣는(읽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서, 그 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설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경전이든 그 경전을 설할 때에는 그 경전이 제일이라, 경전 중에서 왕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찬탄해 가면서 경전을 설하시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내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전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태도를, 경허 스님은 '편찬(偏讚)', 즉 치우쳐서 찬탄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편찬한다는 사실을 경허 스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그림 · 박구원

그 경전만이 제일이라고 설하는 경전만을 읽지 않고, 많은 다양한 경전들을 읽으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내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역대 강사스님들 중에서 가장 폭넓은 독서를 하신 분이 경허 스님이 아닐까 싶다. 강원의 이력과정에는 없는 유식이나 인명(因明, 불교논리학) 책까지 읽으셨기 때문이다.

맞다. 지금 읽는 그 경전이 최고의 경전이다. 다만, 그 최고의 경전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무슨 무슨 최우수대학'에 선정되었다고 홍보하는데, 사실은 '최우수대학'이 단 하나만이 아닌 것처럼 최우수 경전도 단 하나만은 아니다.

하나의 경전을 최우수로 믿고 읽는 마음과 그렇게 최우수의 경전이 또 존재한다는 열린 마음의 공존, 그것이야말로 경전 읽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이 아닐까 싶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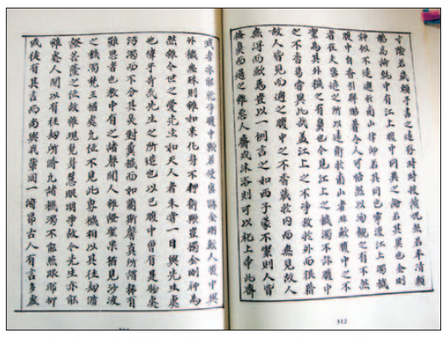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강상과 복중의 차이는

(江上) (腹中)

추사는 "강상(江上: 오염된 강, 드러난 실체)과 복중(腹中:더러운 인분으로 가득 찬 뱃속, 드러나지 않은 실체)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금강신이 멀리 남산의 율사를 피할 것 같지는 않을 듯하고, 만약 같다면 어찌 나만 복중이 더럽고, 자신은 향기롭다고 하여 (중생심으로 가득한) 마음속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만 다르다고 꾸짖으십니까.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군요"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초의의 답은 〈일지암문집〉〈답쌍수도인(答雙修道人)〉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벗, 추사에게 지극한 예를 표하여 "멀리서 보내주신 편지를 곁에 두고 때때로 펴 보니 곧 청안을 뵙고 높은 말씀을 듣는 듯합니다(賴手書之遠存時時披讀 況然 若奉淸眼聽高論)"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듯하다(以洵觀之有不然者在)"는 자신의 견해는 단호하게 피력했다. 〈완당전집〉〈여초의〉3신의 왕복서신이기도 한 〈답쌍수도인(答雙修道人)〉은 초의의 유일한 답신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이번 호에 소개하고, 나머지는 다음 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금강신이)자취를 감추고 멀리서 남산의 율사를 호위하는 것은 불결한 복중을 꺼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밖으로 새어 나와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럽고 탁한 강상을 보고 향기롭지 못한 복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대개 부정한 강상은 밖으로 흐드러져 이리저리 어지럽고 산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보고 피하는 것이고, 복중의 향기롭지 않은 것을 속에 감춰서 드러내지 않는 고로 사람들이 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하나의 예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서시가 오물을 (온 몸에)뒤집어썼다면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지나갈 것이고, 비록 추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하여 깨끗하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목욕재계한 사람이 또 복중까지 깨끗이 할 수 있는가. 만약 자취를 감춘 금강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중의 더러움을 드러내기 싫어하는데도 더러움이 밖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비록 여래의 화신이라도 가까이하지는 못할 것이니 어찌 다만 금강신만 그렇겠습니까. 설령 지금 선생을 마치 천인처럼 아끼는 사람이더라도 하루도 (더러운 냄새가 나는)선생과 함께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하도다. 그대의 나아감이여. 자신의 복중에 이미 이런 (더러운)물건이 있다고 하여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곳인데 (더러운) 냄새에도 개의치 않고, 더러운 인분을 앞에서도 (역겨운 냄새를) 마치 난초의 그윽한 향기로 여기신다면 진실로 보기 드물어 생각하기 어려운 경지라 하겠습니다(夫密迹之所以遠衛於南山者 非 腹中之不潔 爲其外穢之有鼻也 今見江上之穢濁 不計腹中之不香 曷嘗異此哉 盖江上之不淨 放於外而狼藉 故 人皆見而避之 腹中之不香 藏於內而無見故 人不得而 焉 豈以一例言之 如西子蒙不潔則人皆掩鼻而過之 雖惡人齋戒沐浴則可以祀上帝 此齋戒者 亦能乾淨腹中歟 若使密迹金剛 人腹中與外穢無殊則 雖如來化身 不狎衛歟 豈獨金剛神爲然 雖今世之愛先生如天人者 未嘗一日與先生處也 偉乎哉 先生之所造也 以己腹中曾有是物 處汚濁而不分其臭 對糞穢而如蘭斯馨 眞所謂稀有難思者也)



도판은 〈일지암문집〉〈답쌍수도인〉. 초의의 글이다.

〈답쌍수도인〉에서 초의 스님 견해 피력

"인분도 그윽한 난초 향처럼 여긴다면"

추사는 더러운 강상과 더러움이 가득한 복중이지만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뱃속에 오물은 가득하면서 드러난 더러움만 기피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초의는 "더러운 것이 밖으로 새어 나와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에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다. 서시와 같은 절세미인도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어썼다면 역겨운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가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만약 "(더러운) 냄새에도 개의치 않고, 더러운 인분을 앞에서도 (역겨운 냄새를) 마치 난초의 그윽한 향기로 여기신다면" 보기 드문 어려운 경지라는 것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발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비첸지오 판매 비취)
  -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모든 인연에 간절하자" 나의 서원·나의 만행

제원 스님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의 원력을 세우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는 소년이 있었다. 판잣집에 사는 가난한 신혼부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버지가 경영하던 농기구공장에서 나오는 자투리 목재를 밤에 몰래 신혼방에 가져다주는가 하면 구두닦기 소년들의 나무 가방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다. 소년은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고 한 사찰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중 법당에 놓인 〈초발심자경문〉을 읽고 감동해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올해 25회 포교대상을 수상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제원 스님의 이야기다. 상대방에게도 이롭고 나에게도 이롭게 살고자 출가를 결심했다는 스님은 20여 년 복지사업에 매진해왔다.

1992년부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일해 온 스님은 민간기업 후원으로 복지관을 건립, 어르신을 위한 여가문화, 저소득층의 빈곤지원의 생활안정 등 복지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아왔다. 특히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해외연수사업, 어린이집 운영 등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 사회포교 및 계층포교를 아우르는 원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님의 복지포교 근간이 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탄생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스님이 조계종 사회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불교가 대사회적인 일을 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복지관 건립을 발원한다. "신앙만 내세우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잖아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불교 포교가 너무 취약한 상태였어요. 이미 기독교나 천주교는 복지시설을 확립해 복지포교의 기반을 잘 다져 놓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통해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토지는 구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지만 건물 건립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총무원장 스님을 찾아가봐도 그때의 조계종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후원자를 찾아다녔지요. 당시 코오롱 쪽에 지인이 있어 회장님을 뵙고자 했죠. 하지만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6개월 만에 겨우 회장님과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의 30분, 복지의 씨앗이 되다

당시 코오롱의 이동찬 회장(현 명예회장)은 복지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6개월 만에 성사된 만남이었지만 이 회장은 처음부터 건립을 허락하고자 나왔다기보다는 한번 만나만 달라는 스님의 간절한 청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나왔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이었어요. 20분 정도는 회장님 개인의 일을 얘기하느라 지나갔죠. 그러다보니 저에게는 나머지 10분이 주어진 셈이었죠. 당시 회장님께서 성북구에 사셨는데 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던 길음동이 성북구잖아요. 동네를 위해 좋은 일을 해달라며 회장님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설득했죠."

계속 기업이 어렵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회장님께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이건 안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 행복학자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생각을 했어요. 'NO라고 얘기하는 것은 YES의 전주곡' 이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그때부터 염불을 했지요. 자나 깨나 복지관 건립을 발원하며 이 회장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 일이 무산되면 복지 쪽 일은 인연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종단에 가서 일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나자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 복지관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에요."

1991년 극적으로 복지관 건립 후원이 성사 된 것이다. 스님은 당시 복지관 절반을 직접 설계하고 실무자들과 같이 복지관 건설현장에서 밤새 함께 일하며 건물을 세워나갔다. "회장님께서 복지관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궁금해 밤에 비서를 데리고 몰래 왔는데 밤늦게까지 인부들과 같이 일하던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복지관을 지켜달라는 당부를 전하셨어요. 저도 평생 그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2년 3월 31일 개관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가난한 달동네에 지어진 서민들을 위한 이용시설이 되었다. "지금이야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동네가 많이 정비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골목에 두 사람이 마주 지나가기도 힘들 만큼 길이 구불구불했어요. 복지가 진정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복지관이 세워져야 할 곳도 이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스님은 이후부터 △성북구 소년소녀가장 50명 '희망체험' (미국 서부 여행)사업 △'무한도전 I Can Do' (저소득청소년 미래를 향한 유럽연수) 사업 △아동방과후 교실 개원 △길음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 △발달장애아동 사업 △기초푸드뱅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이들이 노인이잖아요. 이들이 갈 곳이 있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교양강좌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등의 건강강좌는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 꿈나무건강지원단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은행의 지원으로 한번도 비행기를 못 타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죠."

스님이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는 바로 청소년 복지다.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어 그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 사업이 바로 소년소녀가장 50명을 위한 '희망체험' (미국 서부 여행)사업이다. "2003년 후원을 받아 50명의 청소년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비버리힐스, 디즈니랜드, 스탠포드대학,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을 돌면서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죠. 또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 릭윤, 당시 LA갤럭시에서 뛰고 있던 홍명보 선수 등을 만날 기회도 마련했어요."

스님은 유머든 감동이든 하나의 이벤트가 아이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상했던 이야기나 행동은 감동을 주지도 웃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던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여행을 하고 또 교민들이 전달해준 장학금을 받으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 중에는 명문대에 입학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스님의 원력은 계속 이어져 저소득청소년을 위

자타에게 이익 되고자 출가 발심

남가좌동서 거리포교 나서

워싱턴 법주사 불사 8년 국제 포교

복지포교 발원 코오롱 회장 설득

민간기업 후원 복지관 건립

21년간 어르신 · 청소년 복지 매진

소년소녀가장 미국 희망체험 마련



제원 스님은 코오롱의 이동찬 회장의 후원으로 1992년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다. 사진은 개관식에서 서로 합장을 하고 있는 이동찬 코오롱 회장(사진 왼쪽)과 제원 스님.



제원 스님은 … 1970년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0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하고 메릴랜드주립대 'MEI'를 수료했다. 1990~91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으며 1992년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했다. 유니세프 불교인클럽 회장 역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성북구 소년소녀가장 50명 '희망체험'(미국 서부 여행)사업, 성북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복지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북구 사회복지시설협의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한 유럽연수를 개최하는 등 스님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런 스님의 노력들은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1999년 · 2001년 성북구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03년 성북구 우수기관 감사장, 2005년 서울시 최우수 기초푸드뱅크 공로패, 2013년 국무총리 기관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복지 포교를 20년 넘게 이어왔지만 훨씬 이전부터 스님은 다양한 포교 활동을 통해 타인과 자신이 이로워질 수 있는 길을 걸어왔다. 70년대 말에는 남가좌동 좌판상들을 위한 정기법회를 여는가하면, 80년대에는 미국 워싱턴 법주사를 건립해 해외포교에 매진했고, 90년대에는 조계종 사회부장을 역임하며 국립공원을 해체하려고 하는 정부와 맞서 싸우기도 했다.

"거리 좌판상들은 절에 가고 싶어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절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포교를 했죠. 작은 공간을 빌려 월 1회 정기 법회를 진행했어요. 이후 미국에 가서도 남가좌동 상인들에게 편지로 용기를 주기도 했는데 한 상인은 그 편지를 두고 맨바닥에서 절을 했다고 해요."

스님은 80대 초반 2년 정도 동남아를 돌며 만행을 한다. 일본 대만 홍콩 등을 돌면서 세상을 두루 본 스님은 국제포교를 결심하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가방 두 개에 목탁과 춘하추동 옷 한 벌 씩, 그리고 돈 5백달러를 들고 갔죠. 처음에는 동부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워싱턴 교민들이 와서 법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워싱턴 법주사를 세우고 포교를 시작했죠. 당시 메릴랜드 주립대도 4년 정도 다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학생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그런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8년 정도 미국에서 포교를 하고 90년 총무원 사회부장으로 오게 됐어요."

모든 인연에게 간절한 마음

스님이 사회부장으로 부임할 당시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국립공원이 사라지면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고 도립공원화되어 버리면 사유지의 땅들은 개발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절 주변에 리조트, 기도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마련이고 사찰 스님들의 수행 환경도 침해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가 적극 반대하고 나서니 정면으로 나서지 못했던 반대 의견의 정치인들도 매우 큰 지지를 해주었어요. 그때 선두에 서서 조계종이 이 계획안을 백지화시키는 데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되 도움을 줬다는 생각조차 버려라' 고 강조하는 스님은 복지관 봉사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한다. "사실 남을 돕는 일이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봉사를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봉사자들이 소외이웃 20여분에게 매일 도시락 서비스를 해요. 도시락 20개를 배달하려면 오전 9시에 나가 점심시간에 들어와야 할 만큼 만만치 않을 일이죠. 그런데 특별한 날은 삼계탕을 드리기도 하는데 왜 밥은 안 가져왔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대요. 물론 받는 분들이 예의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매일 투덜투덜대면 다음 생도 투덜대는 인생으로 태어나요. 지금을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봉사자들에게 조언해요."

이 세상 살아가며 인연 닿는 곳 모두가 만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스님은 과거에 만났던 인연에게도 간절하고 지금 만난 인연에게도 간절하며 미래에 만날 인연에게도 간절하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간절하지 않으면 열정도 없어요. 또 간절하지 않으면 나눠야겠다는 마음도 없죠. 나를 괴롭히는 인연조차도 수행시켜주는 고마운 인연이라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죠. 그저 모든 인연에게 간절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시장에서든 들에서든 그저 가는 곳 어디서든 이 모두를 만행이라 생각하며 모든 인연에 간절하고자 합니다."

벌써 비명을 만들어 놓았다는 스님. '기록은 없고 추억은 남겼지, 아닌가?' … 스님은 기록보다는 상대의 가슴에 추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스님을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나눠주기 위해 오늘도 스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유니세프 활동으로 찾아간 미얀마 국제구호 장면



소년소녀가장 50명과 함께한 미국 '희망체험'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송편만들기

전법일기

국경 · 인종 초월한 부처님 가르침

홍콩 비구니 스님과의 인연

최근 홍콩에서 하모니라는 비구니 스님이 우리 선원에 도착하였다. 스님과의 인연은 작년에 미국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 샌디에고 근처 틱낫한 스님의 '디얼 파크(Deer park)'에 2박 3일 머물면서 시작됐다.

당시 나는 스님에게서 활달하면서도 승가를 건강하게 이끌고자 애쓰는 깊은 열정을 느꼈다. 스님은 홍콩센터의 주지로 있으면서 잠깐 다니러 왔다고 했다.

그렇게 만난 스님에게서 어느날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한국불교를 경험하고 싶은데 이곳 센터에 머물 수 있는지를 묻는 메일이였다. 시내라서 작고 시끄러워 불편한 점이 많은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그곳 스님들은 틱낫한 스님을 따라 세계 이곳 저곳에서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머물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는 작아도 승가가 있는 곳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한다. 기쁘게 오시라고 했다.

스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공항리무진를 타고 혼자 도착했다. 만나자 마자 우리는 서양식으로 포옹을 하고 다시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크게 웃었다. 한마디로 문화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매달 있는 조계사청년회 저녁 법문을 해야 하는 날이 됐다. 문득 우리 청년들에게 틱낫한 스님의 명상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하기를 요청했더니 쾌히 승낙을 해준다. 우리는 직장생활에 지친 현대의 청년들에게 이완명상을 함께 지도하기로 했다.

조계사는 국화축제가 한창이다. 귀여운 동자승들이 노오란 국화를 입고 반갑게 맞이 해준다. 가



그림 · 박구원

을을 듬뿍 느끼게 한다. 먼저 국화꽃 향기에 취하여 법당을 참배하고 법회에 들어갔다. 내가 먼저 삶의 에너지는 긴장이 아닌 편안함에서 생기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리고 하모니스님을 소개하면서 누워서 이완명상을 시작했다.

스님이 영어로 설명하면 내가 그것을 통역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사람들이 편안한 휴식에 깊게 빠져 들었다. 마지막으로 스님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를 한다. 그리고는 나에게 한국노래를 하기를 권하였다. 나는 이번 영어담마캠프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Breathing in, Breathing out'을 부르고 '나뭇잎 배'를 불렀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는 따뜻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노래에 실어 보냈다. 문득 이 순간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비구니가 되어 우연한 기회에 만나 왕래하며 사람들의 고통 돌봄을 함께 하고 있다. 영어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진다. 내가 과연 영어를 못했다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완명상을 마친 젊은이들의 얼굴에 은은한 미소와 여유가 감돈다. 참으로 좋다. 법회가 끝나고 극락전을 나왔다. 여전히 조계사 대웅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스님이 감탄을 한다.

"한국불자들은 참으로 부지런히 수행하네요. 홍콩은 그렇지 않아요. 사찰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늘 한국불교의 모자람을 보며 그것을 채우고자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스님의 눈에 비치는 한국불교는 다른 어느 나라 보다 더 살아있고 힘차다. 스님이 가고 싶은 곳은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와 전쟁기념관이라고 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수천의 한국 사람이 베트남을 위해 죽었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스님이 되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어느덧 도반이 되었다. 우리에게 국경과 인종과 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지금은 선원이 작아서 많은 스님들을 초청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외국스님들을 초청하여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른 나라 불교와 교류해 함께 아름다운 승가를 만들 수 있는 날을 꿈꿔 본다. 서울 중심부에 그런 선원을 반드시 건립할 것을 서원하며 나는 오늘도 수행하고 전법한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크기 : 직경 10mm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돈황 막고굴 불교예술, 런던서 재조명

실크로드의 유산, 특히 불교예술 선보이는 특별 기획전이 영국 런던에서 10월 26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 개최된다.

BBC는 10월 23일 "V&A 사가 '중국 회화의 최고 걸작전'을 마련한다"고 보도하고, "돈황 막고굴의 불교예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 1천 년 간의 불교회화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실크로드의 유산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막고굴로, 현재 남아있는 동굴은 500기 남짓하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견한 실크 두루마리 원고나 벽화, 조각들은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컬렉션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돈황의 불교회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단언한 장 홍싱(Zhang Hongxing, V&A 사) 수석 큐레이터는 "돈황은 마치 1천 년을 주제로 한 갤러리와 같다"며 "이곳의 유산은 14세기까지 서로 다른 형식과 도해 등으로 변모해 가는 불교예술의 흐름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장소"라고 말했다.

실로크로드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6500킬로미터에 달하는 무역로이다. 이중 돈황은 주요 상업 중심지로 각종 문물, 특히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가 서로 교류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막고굴과 같은 동굴 사원이 처음 들어선 것은 약 350년. 그 후 해상 항로의 발달로 실크로드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한 10세기까지 수많은 동굴 사원이 생겨나고 잊혀졌다.



영국에서 2014년 1월 19일까지 '중국 회화의 최고 걸작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돈황막고굴의 불교예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시회 기획자 케이트 브라이언

V&A 사, '중국 회화 최고 걸작전' 개최

10월 26일~2014년 1월 19일

"불교예술 통해 동시대 정치 · 문화 · 사회 엿보는 기회 될 것"

돈황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오래된 실크 원고와 그림 등이 동굴에서 발견되면서이다.

"1천 년이라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동굴의 어둠과 사막의 건조한 기후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설명한 장 홍싱 수석 큐레이터는 "현존하는 500기의 동굴은 관련 학자나 예술가들 사이에 '도서관 동굴'이라고 불리며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며 "V&A의 이번 전시회는 돈황의 불교예술이 동시대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문물을 어떻게 흡수 · 동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1천 년 동안 그려진 벽화를 이은 길이가 2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이번 전시회 기획자 케이트 브라이언(Kate Bryan, Fine Art Society) 대표는 "회화 연구가들은 돈황 막고굴을 '미술의 백과사전'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며 이번 특별 전시회는 막고굴을 통해 동시대 정치 · 문화 · 사회 등을 엿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 기획전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실크 두루마리 원고, 중국 왕조의 풍물을 엿볼 수 있는 회화 등을 접할 수 있다"며 V&A 사의 '중국 회화의 최고 걸작전'의 의미를 새긴 BBC는 "특히 이번에 전시될 회화 중에는 동시대 불교 장례 의식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작품이 많다"며 "죽은 자의 환생을 바라는 간절함은 전해주는 회화 상의 인물을 살피는 것도 이번 기획전을 관람하는 묘미"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키요미즈, '분홍빛 사원'으로 변모

사원 전체 LED 전등으로 교체 … 전기세 절감



일본 유명사찰 키요미즈 사원이 사원의 모든 전등을 LED로 교체해 '분홍빛 사원'으로 관광객들에 다가간다.

본의 유명 사찰 키요미즈(Kiyomizu Buddhist Temple)의 스님들이 성공적인 '불빛 포교'를 전개하고 있다.

〈도쿄 타임즈(Toko Times)〉 지는 10월 2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키요미즈가 사원의 모든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이를 매개체로 한 포교에 나서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 이곳 키요미즈를 방문하고 있다"며 전제한 오니쉬(Onishi, 키요미즈 주지) 스님은 "관광객을 위해 사원의 모든 전등을 밝혀야 하는데, 그 비용 탓으로 사원의 재정은 더욱 궁핍해졌다"며 "최근 사원의 전등을 LED로 교체한 이후 전기세는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그 여유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스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타임즈(Toko Times)〉 지에 따르면, 키요미즈 측은 다채로운 색상과 다양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LED의 특성을 살려, 키요미즈 전체를 '시민들의 사유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현재 키요미즈는 밤마다 분홍빛 사원으로 바뀐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 힘을 더하고, 사망자들을 추모하자는 취지에서 사원 전체를 분홍빛으로 수놓고, 불빛을 바라보는 키요미즈데라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전기세 절감 비용은 이들 환자의 치료비로 환원하고 있다.

〈도쿄 타임즈(Toko Times)〉 지는 "요즘 키요미즈 사원은 '분홍빛 사원'으로 불리고 있다"며 "키요미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사원의 동쪽 언덕으로,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불교 최고지도자 솜뎃 승왕 열반

10월 24일 향년 100세로 입적

태국 불교 최고지도자인 19대 승왕 솜뎃 프라 니나삼바라(Somdet Phra Nynasamvara)가 10월 24일(현지시간) 열반했다. 지난 10월 3일 100세 축하연을 연 지 한 달도 안 돼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스님은 1913년 태국 칸차나부리(Kanchanaburi) 지역에서 태어나 14살에 출가, 1989년 우리나라 종정에 해당하는 19대 승왕에 올랐다. 그 후 20여년 동안 태국 불교 종단과 승려를 이끌어 왔다.

달라이라마도 여러 번 찾아와 지혜를 구했을 만큼 칭송받았던 솜뎃 스님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산스크리트어까지 익혔을 정도로 학식이 풍부했다.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알리고자 스님은 영어로 불교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솜뎃 승왕은 건강 이상으로 2002년 2월 이후 방콕 쭐라롱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이달 초에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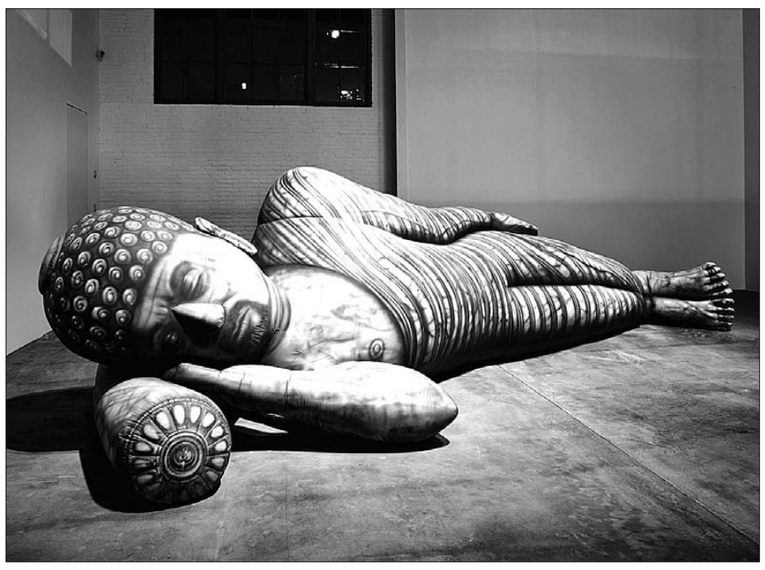
학식과 덕이 높기로 칭송 받았던 태국 19대 승왕 솜뎃 프라 니나삼바라 스님이 10월 24일 향년 100세의 나이로 열반했다.

장기간 승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2004년부터 솜뎃 승왕을 대리해온 스님도 올해 입적했다.

후임 승왕은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이 정식으로 임명한다.

태국 총리실은 쏨뎃 승왕의 열반을 추모해 전국 관공서에서 사흘간 조기를 달고 공무원들이 보름 동안 검은색 상복을 입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배현진기자



풍선으로 환생한 석가모니

탄생과 죽음, 환생의 생사윤회를 풍선으로 표현한 '열반(Paranirvana)'이라는 독특한 작품이다. 미국의 조각가이자 설치 작가 루이스 디소토(Lewis Desoto)는 열반 당시의 부처님을 7미터 길이의 대형 풍선으로 제작했다. 공기를 주입하면 팽팽하게 살아나고 반대로 공기를 빼면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몸도 왜소해진다. 공기를 넣는 데는 10분 빼는 데는 30분이 걸린다. '덧없음, 일시성'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대로 관람객 또한 '풍선 부처님' 앞에 앉아 명상을 할 수 있다. 석가모니가 열반하면서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했다. 금색, 파란색, 갈색 세 가지 색으로 제작된 작품은 각각 샌디에고 현대미술관과 콜럼버스 미술관을 비롯 스웨덴과 일본 등에서 전시된 바 있다. 현재는 미국 뉴 헤이븐(New Haven)에 위치한 이즘 갤러리(ISM Gallery)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배현진 기자

중국 관리, 무단으로 불교 벽화 복원

청나라 불교벽화, 도교풍으로 복원해 '파문'

청나라 시대 불교 벽화가 무단으로 도교풍 그림으로 복원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10월 22일(현지시간), "중국 관리가 무단으로 불교 벽화를 '복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벽화는 중국 북부 랴오닝성 차오양의 절에 있는 270여년 된 그림이다. 시의 유적 담당 공무원 2명은 절 지주의 요청을 받고 이러한 복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BBC는 "이 문화재는 성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 정부 기준에 따라 복원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복원 사업은 문화유적 복원자격을 갖추진 못한 지역 업체가 맡았다"고 보도했다.



청나라 시대 불교 벽화(사진 왼쪽)가 무단으로 도교풍 그림(사진 오른쪽)으로 복원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책임자 2명을 해임했으며, 처벌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무를 맡은 공산당 고위 간부도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허술한 복원은 우지아오펑이라는 블로거가 온라인에 벽화 복원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나은 기자



템플스테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사찰 예절, 건축물, 조형물, 벽화, 도구, 불교의 상징물, 예불, 사찰 생활, 수행법, 예불문과 경전 해설, 애송되는 불교 명문 등으로 구성.
불자들은 불교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불교의 정신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책!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불교입문서!

남궁 선 엮음/신국판 컬러/303쪽/값 15,000원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백봉 김기추 거사의 선이야기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는,
일반 재가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부 방편!
거사풍 불교를 일으켜 세운 백봉 선생의 새말귀 수행!



백봉 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한 것들을 간추려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안경애 편집/신국판/35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시련이야말로 명상이 진정 필요한 때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툼이 생겨 괴로울 때,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슬픔과 불안, 두려움, 분노로
마음이 괴로울 때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삶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두드릴 수 있는 문이다.
- 존 카밧진, 추천사 중에서

마음을 꿰뚫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가르침은 모든 위대한 스승의 특징이다.
잭 콘필드는 내적 평화와 치유를 위한
부드럽지만 매우 강력한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슴 뭉클하며 매우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완벽한 이 책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 릭 핸슨, 『붓다 브레인』의 저자

이 작고 아름다운 책은 보석이다.
이 책은 당신이 어려움의 한가운데
처했을 때 당신의 본질인 영혼과 사랑,
지혜를 다시 일깨우도록 도와준다.
- 타라 브랙, 『받아들임』의 저자



시련의 순간 당신에게
힘과 지혜가 되어 줄
잭 콘필드 박사의 8가지 명상

- 대지는 나의 목격자
- 연민 나누기
- 시련 속의 붓다
- 용서의 실천
- 치유의 사원
- 아픈 마음의 선(禪)
- 평온과 평화
- 최선의 의지

잭 콘필드 지음 | 정준영 옮김 | 192쪽 | 13,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그리움이 숨 막혀 그림이 되다

김호석 개인전…10월 30일부터

"김호석 그림을 꼬나 매겨 볼 재주가 이 중생한테는 없다. 다만 한 가지, 그리움이 숨 막혀 그림이 되었다는 것만 아는 만큼 김호석 그림이 8만 4천 중생들 목 타는 그리움을 그 밑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것만은 알겠다."

-김성동 작가의 글 중에서-



'그리움이 숨 막혀 그림이 된 김호석 붓' 전이 10월 30일~11월 5일 아라아트센터서 열린다. 사진은 운문사 스님을 소재로 한 '잡초캐다'

'그리움이 숨 막혀 그림이 된 김호석 붓' 전이 10월 30일~11월 5일 아라아트센터 2층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닥종이에 천연잿물로 그려낸 일상의 담박한 모습을 27점의 그림으로 펼쳐냈다.

김호석 작가의 그림은 일상의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맑고 밝고 가볍다. 그의 그림은 일상의 포착이며 그 자연스러움에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다.

"일상속에 부처가 있어요. 딸은 스마트폰에 눈길을 돌리고 눈이 어두워 가는 엄마는 이런 딸을 이해하기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죠. 그리고 풀을 뽑는 운문사의 스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을 뽑고 있죠. 산에 함께 올라간 비구 스님은 꽃 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허허' 하고 웃죠"

작가는 자본주의의 탐욕에 물들어가는 세상, 질주할 줄 모르는 세상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고 따뜻한 내면의 인간미를 또 세상 삼라만상의 본질을 끄집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사로운 일상 속에 법이 있다고 보는 작가는 삶속에서 맑고 투명한 것을 찾아내고자 했다.

"우리 시대에는 따뜻함, 선한 행위 자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

일상의 담박한 모습 포착해
시대의 따뜻함 담아내고자

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곤경에 처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절대적 심연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 세상에 따뜻한 죽비를 날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의 바람은 그리움이 되었고 따뜻함을 그려내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일타 스님, 광덕 스님, 지관 스님 등 우리 시대 스님들의 생전 모습을 담아내기도 한 김호석 작가. "성철 스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스님의 수행처를 여러번 다니며 만행을 했죠.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스님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대 화두는 인물화라고 생각하는 그는 우리 사회가 좀더 밝고 맑아졌으면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현승조 작가의 '平 等 心' 전

11월 4일까지 스페이스 선+에서

현승조 작가의 '平 等 心 (평등심)' 전이 삼청동 스페이스 선+에서 11월 4일까지 열린다. '2013 스페이스선+ 추천작가' 로 선정된 현승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감모여재도, 수월관음도 등 다양한 기법을 추구한 불화 12점을 선보인다.

2008년 이후 5년만에 갖는 두 번째 개인전으로 작가는 평등과 자비심을 담은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감모여재도는 '조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해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란 뜻으로 집안에 사당이 없거나 외지에서 지방(紙榜)으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형식의 그림이다. 이런 기법은 민화에 많이 남아 있으나 이를 불교식 영가를 위한 형식으로 작가가 내용



현승조 작가의 '감모여재도'

을 바꿨다. 현승조 작가는 "민화의 유교적인 신앙 사상 속 불교적인 모습을 포착해 작품에 담아냈다"고 설명한다.

현승조 작가는 1978년생으로 용인대 예술대학원 회화학과(불교회화전공)를 졸업하고 현승조 불교회화전(라메르 갤러리), 불교회화 초대전, 화불동연전, 붓다를 그리다 등의 전시를 열어 왔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달항아리에 등 밝히니 온 세상에 광명이…

지유 스님 한지사랑 작품전



달항아리 안에 부처님이 나투셨다. 밝고 둥근 등이 아래를 비추니 세상은 일순간 밝아졌다. 또 온 세상을 감싸안을 듯한 자비로운 미소의 반가사유상에 등이 비치니 세상은 환한 미소로 번져 나갔다.

지유 스님(마산 학촌사 주지)의 한지 사랑전이 11월 4일~10일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 제 2전시실에서 열린다. 청동 혹은 목재의 느낌이 나지만 모두가 한지로 빚어냈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50여 점의 작품들을 통해 한지의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유독 많다. 나뭇잎등, 항아리등, 반가사유상 등… 다양한 형태의 등은 그 모양도 아름답거니와 스님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더더욱 새롭다.

"등은 어둠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등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에요. 늘 이를 어떻게 작품화할까를 고민해요. 이번에도 25점 정도의 등작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전기선을 연결해서 작품을 완성할 만큼 이제는 전선 작업에도 능숙해요."

이들 작품 중에서도 항아리 등은 유독 눈에 띈다. 달항아리에 네모의 공간을 내고 불두를 넣고 은은한 등을 비추니 세상은 평화롭고도 밝다. "신문지에 풀죽을 먹여 오돌토돌한 느낌의 질감을 주었고 표면에 검은 한지를 붙여 차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불두는 제가 가지고 있는 15점의 불두 중 상호가 좋은 것으로 모양을 만들고 위로는 등을 연결했습니다. 나는 스님이니 불두를 넣었지만 일반인들은 인형이나 다른 형상을 넣어 응용을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고색기법 한지 작품 50점 전시
반가사유상 · 항아리 '등' 으로 탄생
전기선도 직접 연결해 작품 완성
11월 4일~10일 성산아트홀서



스님은 다양한 소품들을 한지로 제작했다. '만자 서랍장'



지유 스님의 한지 사랑전이 11월 4일~10일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 제 2전시실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항아리 등'

스님은 돌 알루미늄 철사 등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지 공예의 소재가 된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스님은 만자 서랍장, 불화 등 불교적 작품의 응용은 물론이고, 사군자 등 전통문양을 넣은 칠단 서랍장, 당초문양 서랍장, 사각상 등 다양한 생활소품들을 한지로 만들어 냈다.

"2000년도부터 한지공예를 시작했어요. 한지는 웬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 작품 역시 절집에서 보는 것들이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작품이 되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물론 대부분은 오색한지를 많이 이용해요. 이런 작품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산만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검정 한지에 락스와 물을 섞어 농도 조절을 해서 고색기법을 표현해냈습니다."

마산 학촌사 주지로 포교활동에 바빴던 스님은 한지공예 전시는 이번이 꼭 10년만이다. "그동안 포교활동을 하느라 작품 만들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나 감각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한지공예고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희열을 느낄 수 있기도 해요. 저도 3개월만 배우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13년 동안 한지공예를 하고 있어요. 이번 전시에 많은 이들이 오셔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한지공예를 감상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스님은 대중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공예 수업도 병행할 생각이다. (010)2379-527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 선묘불화 한자리에 모았다

동국대박물관 개관 50주년 특별전

한국의 선묘불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박물관은 11월 22일까지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개관 50주년 특별전을 갖는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아미타삼존도, 치성광여래강림도, 6세기 아미타대보살도 등 고려와 조선, 근대기의 선묘불화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고려 공민왕 때 제작된 고려불화 금선묘아미타삼존도는 비단 위에 금가루를 이용해 제작한 고려불화로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의 한 사찰에서 소장해왔다.

동국대박물관은 "고려불화는 160여점이 알려져 있으나 제작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채색불화는 13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작시기가 명료한 이 그림의 가치는 실로 막대하다"며 "선으로만 모든 형상을 묘사해야 하는 선묘불화로 고려불화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문양을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약사삼존도(1565년) 역시 주목할만하다. 문정왕후는 아들인 명종의 건강과 왕실의 안녕, 자손번창을 기원하며 400폭의 불화를 발원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약사여래, 미륵여래를 각각 100폭씩 완성했다. 이에 경기도 회암사에서 완성법회를 열었으며 그 공덕을 널리 펼치기 위해 이를 전국 사찰에 나누어 봉안케 했다. 현재 400점 중 6점만이 전하고 있고 약사삼존도는 그 중 하나다.

고려 금선묘아미타삼존도 등 '눈길'
11월 22일까지 박물관특별전시실서

이밖에도 선묘불화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아미타삼존도(1581년), 조선전기의 도상을 계승하고 있는 유일한 작품인 치성광여래강림도(1644년), 10대 제자가 포함된 아미타설법도(1781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박물관은 11월 22일까지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개관 50주년 특별전을 갖는다.고려불화 '금선묘아미타삼존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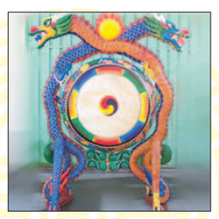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 기	가 로	세 로	높 이	재 질
50개꽂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꽂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TEL 031)466-3356 H·P 011-269-335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여래의 가슴에 새겨진 '卍'의 본질은?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卍→卐 ㊦



卍자는 불교의 심볼이다. 이 卍자는 곧 불교이다. 따라서 불교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는 바로 이 卍자가 없는 데가 없다. 그런데 흔히 卍의 모양을 보고 만자(卍字)라고 부른다. 그러면 글자인가? 그러면 만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알려면 먼저 사전들을 찾아본다. 역시 조형언어에 관한 한 모든 사전류는 악사(惡書)들이다. 〈한한대자전〉(민중서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해(字解): 만만. 범자(梵字)의 만(萬)字. 원래 부처의 가슴에 있다고 하는 형상으로서, 길상해운(吉祥海雲)이라 번역함. '一, 音之謂萬. 謂吉祥萬德之所集也'《화엄경음의》

자원(字源): 象形. 본디 인도의 쿠리슈나신(神)의 가슴의 선모의 상형으로, 길상만덕을 나타냄.

참고(參考): 일설에, 자형이 卍은 잘못이고, 卐이 옳다고도 함.

이상을 보면 이미 자원(字源)에서 길상만덕이란 말을 쓰고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전이라고 모두 믿으면 안 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내며 읽어내어 지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운허 스님이 펴낸 〈불교사전〉을 보면,

범어 – Svastika, 파알리어 – Svatthika, 길상의 표상, 중국에서는 색박실저가(塞縛悉底迦)라고 음역, 길상(吉祥), 유락(有樂), 덕상(德相), 경복(慶福), 행운(幸運) 등으로 번역. 예전부터 불교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썼다. 불교에서는 만덕원만한 모양(吉祥海雲相)으로서 부처님의 가슴에 그리고 불심인(佛心印)이라 부름. 또한 부처님의 발자국에도 있음.

그 다음에는 〈불교미술사전〉(동경서적)을 보면, 아예 卍의 항목이 따로 없다. 다만 '길상문'의 항목에 아주 간단히 '卍字'는 뱀이나 태양과 관련되어 행운을 뜻한다, 라고만 쓰여 있다. 그런데 〈사능형(紗綾形)〉이란 항목은 따로 두어 '卍자를 경사지게 하여 사방으로 전개시킨 문양'이라고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직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전을 무조건 믿으며 卍이란 조형에 관련된 글을 쓰고 있으며 모든 논문도 이를 바탕으로 쓰여 지고 있는데, 이상의 언급은 대부분 옳지 않다. 오직 취할 것은 〈자원(字源): 상형(象形). 본디 인도의 쿠리슈나신(神)의 가슴의 선모(旋毛)의 상형〉이란 글이다. 그런데 선모란 '오른 쪽으로 도는 털'이란 말인데 이 말 조차 올바른 말이 아니다. 오로지 새겨서 취할 것이란 '오른 쪽으로 도는 털 같은 형상'이지 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사전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형미술에 관한 한 거의 모두가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때때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제부터 卍의 본질을 향한 멀고도 먼 길을 걸어가 보자. 그것은 여래와 보살을 만나러 가는 희열에 찬 역정이다.

卍과 卐의 조형은 다르다

卍과 卐의 조형에서, 첫째 것은 왼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다음 것은 오른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선회한다는 모양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반복하여 그려보기 바란다. 즉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이 조형은 세계적으로 기원전(紀元前)부터 유행하던 조형으로 원래 글자가 아니요, 더구나 용어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卍자이다. 즉 글자로 되어 있는데 중국 당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글자가 아니데 글자로 만(萬)자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무슨 연유인가? 그것은 사전에서 이미 읽은 만덕(萬德)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른 말이다.

더구나 〈화엄경〉 같은 권위 있는 책은 없다. 이미 사전에 나와 있다시피 그 제48권에는 "여래(如來)의 가슴에는 훌륭한 분의 특징인 卍자 모양이 있다. 이것을 길상해운(吉祥海雲)이라고 부른다. 조화가 자재한 마니보주(摩尼寶珠)로 장엄하여 온갖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가지가지의 광염을 둥글게 뿜어내면서 온 누리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온 누리를 깨끗하게 하는 묘음(妙音)을 내어서 온통 세계를 진리의 바다처럼 넘실거리게 한다."고 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의 모든 불화에는 卍자를 여래나 보살의 가슴에 커다랗게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여래와 보살의 가슴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여래와 보살의 마음에 표현하였으니 매우 중대한 의미를 품고 있으리라. 실은 논문으로 써야 할 주제이지만 이 연재에서 가능한 한 간단히 해석해 가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 예컨대 조선시대 개암사(開巖寺) 괘불의 여래의 가슴에 큰 卍자를 빨간 색으로 표시하여 놓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그림 ①)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 가슴에 큰 卍자가 표시된 조선시대 개암사 괘불.

藥이 되는 사찰음식

무와 함께 먹는 '메밀전병' 다이어어트에 좋아



무나물 메밀빙떡

△재료(4인 기준)

○ 무 300g, 생강즙 2큰술, 소금 1/2작은술, 들기름 2큰술

○ 메밀가루 1컵, 물 2컵, 소금 1/2작은술, 포도씨유 1큰술

△만드는 법

① 무는 높이 4cm 정도로 자른 후 약간 도톰하게 채썬후 소금, 생강즙, 들기름으로 밑간을 한 후 부드럽게 볶는다.

② 메밀가루에 물과 소금, 포도씨유를 넣고 골고루 섞은 후 체에 한 번 내린다.

③ 프라이팬에 약간의 식용유를 바르고 메밀전병을 부쳐낸다.

④ 부쳐낸 메밀전병에 볶은 무나물을 넣고 돌돌 말아 한 입 크기로 썬다.

배추 장김치

△재료(4인 기준)

○ 쌈배추 1포기(300g)

○ 소 – 표고버섯 10장, 당근 100g, 청고추 3개, 홍고추 1개, 생강 2톨

○ 양념 – 맛간장 1/2컵, 매실식초 5큰술, 매실청 2큰술, 들기름 2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쌈배추는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② 표고, 당근, 청고추, 홍고추, 생강은 채썬다.

③ 양념은 잘 섞어둔다.



④ 팬에 식용유 둘러 표고, 당근, 홍고추, 생강을 넣어 볶은 후 양념과 청고추를 넣어 간을 맞춘 후 완전히 식힌다.

⑤ 데쳐낸 배추 사이사이에 소를 넣고 1일 정도 맛을 들인 후 먹는다.

소화불량에 좋은 배추 장김치

무와 궁합이 잘 맞는 양념은 생강으로 무생채나 무나물을 할 때 즙을 넣게 되면 보다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또한 무 특유의 약간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설탕을 넣어도 좋다. 무로 나물이나 생채를 할 때 세로로 잘라 결을 살려 썰게 되면 잘 부서지지도 않고 아삭한 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든 무나물을 그냥 먹어도 좋으나 메밀로 부드러운 전병을 부쳐 무나물을 싸서 먹게 되면 간단한 식사대용으로도 좋으며 다이어트 건강식으로도 좋다. 메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소화가 잘되는 것이 특징이나 끈기가 없어 저병을 부칠 때 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부서지기 쉬운데 이때는 메밀의 끈기를 보충해주기 위해 밀가루 적당량을 섞어 사용해도 좋다.

무와 함께 가을에는 배추도 제 맛을 내는데 배추에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를 강하게 하며 소화불량 변비 해열 종기 숙취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으로 그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다. 그러나 많이 먹게 되면 냉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생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배추의 찬 성질을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양념에 적당량의 생강을 항상 곁들이는 것이 좋다.

장김치를 담는 배추는 너무 두껍고 큰 배추보다는 작은 쌈배추의 형태가 간이 잘 배여 먹기에도 좋다. 데칠 때는 숨이 죽는 정도로 살짝만 데쳐 아삭하게 준비하고 소는 수분이 너무 많지 않게 볶아야 간이 알맞게 된다. 그리고 소를 채울 때도 완전히 식혀서 넣어야 잘 상하지 않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돌고래 슈퍼 에너텍
사무실 02)471-2356
1688-5687, 011-335-6389


모든 교법을 모아 一心으로 통하도록 한
회통불교의 백미! 팔만대장경의 축소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 · 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스님 번역 · 해설
신국판 | 양장 | 2도칼라 | 348쪽 | 20,000원
문 · 사 · 철의 모범이자 비교종교학의 효시
불교의 개론서이자 종파를 초월한 수행지침서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판석들의 개요를 보였다.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창한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 선사의 『원인론』은 원문을 실어서 번역하였으며, 논주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二色을 사용하였다. 정원(淨源: 1011~1088) 법사가 『원인론』을 해설한 「발미록發微錄」은 원문을 번역하여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설하였다.
이 책은 유교와 도교의 교법을 요약하여 그 근본을 밝히고, 미혹함과 집착함을 비판하여 물리쳤다. 다음은 불교의 교법을 인천교, 소승교, 대승법상교, 대승파상교, 일승현성교로 분류하고, 그 교법의 내용과 근본(法)을 밝힌 뒤에, 치우침과 얕음과 깊음을 분별하였다. 또한 선문의 삼종과 교문의 삼교를 비교하여 선문과 교문이 지향하는 정점은 동일함을 밝혔다. 끝으로 인간세계의 근본인 일심을 밝혀서, 모든 교법을 모아 일심으로 통하도록 하였다.여기서 수승한 근기는 이 「논」의 뜻을 단박에 깨달아 얕은 것을 버리고, 성품을 바로 보인 깊은 교법에 의지하여 원대한 일심의 바다로 향하여 물러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토원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 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한국불교가사의 유형별 특성과 유기적 관계 탐구



한국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 양상
전재강 지음
보고사 펴냄
2만3천원

"사람들은 석가라 말하고 또 실달타라 말하네 / 말고 말라 꿈 말하지 말라 / 그는 눈 속의 꽃이 아니네. / 높고 높고 우뚝우뚝 붉기가 씻은 듯하고 / 오밀조밀 훤하게 깨끗하기는 벗은 몸 같네 / 봄바람은 난만하고 물은 유유한데 / 홀로 건곤에 걸으니 누가 나와 짝하랴"

〈한국 불교 가사의 구조적 성격〉에 이은 한국 불교가사에 대한 연구서다. 전작이 나옹 가사, 침굉 가사, 지형 불교 가사, 경허 가사, 백용성 불교 가사 등 주로 불교 가사 작가의 개별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 연구서였다면, 〈한국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 양상〉은 불교가사 전체에서 어떤 작품이 어떤 국면에서 창작, 향유되어 왔으며 작품의 문예 미학적 성격은 어떠한지를 구명하기 위해 불교가사 전체문학 현상을 유형적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했다.

불교가사는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기리고 불교의 사상과 불법의 오묘한 이치를 사부대중에게 알리고 신앙심을 북돋우려는 목적에서 지어진 4음보 율문 형식의 시가를 말한다. 조선 전기에 지어진 100행 내외의 것을 가사(歌詞)라 하고,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장편을 가사(歌辭)라 하여 그 둘을 구별하기도 하나, 보편적으로 가사(歌辭)라 한다.

불교가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기존의 한문 발원문을 한글 가사체로 변화시킨 번역계열(백천낙거사의 '염불가', 의상화상의 '일승발원가' 등), 둘째는 한글 가사체로 창작한 창작계열(나옹화상의 '서왕가', 침굉화상의 '귀산곡' 등), 셋째는 첫째와 둘째를 혼용한 준창작계열(삼연선생 '염불가', 이광수 '원효대사법회송' 등), 넷째는 공동작인 구비전승계열(권수근 구술 '별별회심곡', 이경협 구술 '반회심곡' 등)이 있다.

책에서는 불교의 이념과 승가 사회의 국면 등을 고루 감안하여 대략 아홉 가지의 유형을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몽환가류, 회심곡류, 발원가류, 염불가류, 왕생가류, 토굴가류, 참선가류, 경전가류, 찬불가류 등이다.

책의 서두와 결론 부분에서는 가사의 시초 발생과 최종 행방을 찾아보는 논의를 진행했고, 본론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불교가사 유형을 나누어서 유형별 특성과 상호 유기적 관계 맥락을 탐구했다.

불교가사는 승가 사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과나 의식 등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 국면마다 창작되고 향유되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불교가사는 승가 사회의 국면별 구체적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의 작품 유형이 창작되고 향유되면서 비교적 동질적 작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유형이 나타나고 각 유형은 유형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유형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향유되어 왔다.

불교가사에 대한 유형적 접근은 한국 문학사에서 불교가사가 가사로서 왜 처음 등장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불교가사가 창작되고 향유되었는지? 그래서 불교가사는 어떤 성격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유형적 연구로 인해 고려 말에 불교가사가 발생하게 된 문학적 배경이 논의됐고, 특징적 승가사회의 각 국면별로 행해진 의식, 행사, 과업 등과 연관하여 불교가사 작품 유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근현대에 이르러 불교가사의 최종 행방을 추적할 수 있고, 어떤 유형의 작품이 어떤 이유에서 근현대까지 유통되거나 새롭게 창작되고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유형적 접근을 통하여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한국 불교가사의 태동'에서는 고려 말 충지, 태고, 백운 나옹 등 선사들의 한문 가송찬류 30여 수를 대상으로 율격과 갈래 성격을 살폈다.

제2부 '한국 불교가사의 전개'에서는 일반 대중을 교화하는 한편 영혼을 천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염불가류, 참선곡류, 왕생가류

불교가사 전체 문학현상 연구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
출현과 마지막 행방 밝힐 근거 제공

등 다른 유형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개방성을 보여주며, 작가 의식에서 일체가 본래성불해 있다는 일원적 세계관에 기초하면서도 교시의 방편상 무명과 진상이라는 이원대립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음을 구명했다. 또한 몽환가류의 개방성과 작가 의식과 회심곡류의 전개 구성과 선악 생사관, 발원가류의 존재 위상과 성격, 염불가류의 성격, 왕생가류의 표현 방식과 세계 인식, 토굴가류의 갈래 성격과 이념, 참선곡류의 구조, 경전가류의 소의경전과 성격, 찬불가류의 지향적 주제와 다층적 갈래 성격 등을 다루고 있다.

제3부 '한국 불교가사의 귀결'에서는 신체불교가사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현실 대응 방향과 경상북도 지역 민간전승 불교가사 유형과 작품의 성격을 다루었다.

책은 불교가사가 처음 발생하게 된 배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불교가사 유형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공존하다가 근세에 이르러 보인 최근의 모습을 한 세기 전의 신체 불교가사를 통하여 살피고, 경상북도 지역 민간전승의 불교가사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적 존재 양상을 씨줄과 날줄로 하여 불교가사 전반을 구조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주는 왜 비어있지 않은가?…과학으로 답하다

무로부터의 우주

로렌스 크라우스 지음 | 박병철 옮김 | 승산 펴냄 | 1만6천원



우주는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우주'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과 같이 다양한 천체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것은 지난 2천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질문이자,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떠올린 최초의 질문이었을 것이다. 책은 '우주는 왜 비어 있지 않고 물질의 존재를 허용하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이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금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우리가 말하는 '우주'에는 수많은 별과 은하가 있고, 지구에는 인간을 비롯한 오만가지 생명체가 존재한다. 외계행성에 다른 생명체가 또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누군가가 "우리의 우주는 아무런 목적도, 의도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할 때마다 "그럼 왜 우주에는 무언가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애초부터 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물질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반문이 제기되곤 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질문으로 간주해왔으나, 어쨌거나 자연을 대상으로 떠올린 최초의 질문이었으며, 과학의 범주 안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다.

그가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한 것은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어떤 '에너지' 때문이었다. 그 말하는 것은 1㎤의 빈 공간마다, 십억 개의 원자탄과 맞먹는 에너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그가 말하는 기인한 형태의 에너지를 말한다. 공간은 비어 있지 않고 꽉 차 있다는 것이다.

이 기이한 '에너지'는 크라우스의 연구 방향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우주론을 완전히 다른 위상으로 접어들게 했다. 또한 '숨은 변수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다양한 학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적 사색가로 널리 알려진 데이비드 봄이나 〈홀로그램 우주〉의 저자 마이클 탤보트 역시 이 에너지의 존재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아인슈타인은 현대우주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완성했다. 그리고 빅뱅(Big bang)을 처음 제안했던 르메트르를 조롱했고, 자신의 이론으로 정적인 우주를 구현하기 위해 우주상수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빅뱅이 남긴 빛의 잔해이자 빅뱅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마이크로파 우주배경복사를 발견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다시 말해서, 100년 사이에 양자역학 등 미시세계의 물리학이 알려지면서 텅 빈 공간의 특성이 과거의 짐작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특히, 우주론과 입자물리학, 그리고 중력이론은 지난 20여 년 사이에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으며,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미래에 대하여 놀랍고도 심오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요란한 폭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안으로 수축되면서 조용히 끝날 것인가? 또 우주는 왜 텅 비어있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책은 '우주는 어떻게 무에서 태어났는가?'라는 심오한 질문에 명쾌한 논리로 과학적 답을 제시한다.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정의되는 '무'에서 무언가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로렌스 크라우스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과학은 우주의 기원을 실험과 이론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점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책을 썼다."고 발간의 목적을 말한다.

크라우스는 "우주가 무(無)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탄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과 점점 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준 것은 경험에 기반을 둔 우주론과 입자물리학이었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최후의 퍼즐모양이 어떤 모양이건 간에, 지난 40년 동안 물리학과 천문학이 일궈낸 수많은 발견들 덕분에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크게 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사이에 질문 자체도 바뀌었지만, 과거에 던졌던 질문도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 이것은 현대과학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며, 위대한 음악과 위대한 문학, 그리고 위대한 예술처럼 누구나 향유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시대에 반영하면 유익할 정조의 철학과 사상

지금은, 정조를 읽어야 할 시간

김해영 · 최병윤 지음 | 안티쿠스 펴냄 | 1만5천원



'개혁군주'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또 다른 시대적 해석서다.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에 실려 있는 〈일득록(日得錄)〉 가운데서 난해한 부분을 피하고, 시대에 반영하면 유익할 만한 정조의 철학과 사상을 선별하여 실었다.

조선문화의 전성기라 불리는 진경시대에서 정조는 당대의 수준 높은 문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급속히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며 이를 바로 세우려 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210년이 지난 오늘날 외래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것에 대한 기준도 상실지경에 있다. 그런 점에서 정조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으며, 그로인해 18세기 정조의 애민의식과 통치철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1997년 수원의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정조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인문학계는 물론이고 사회과학계에서도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조는 유학을 공부한 통치자다. 유학의 종지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정조는 유년기에서 연교육(書筵敎育)과 왕위에 올라 통치할 때마다 받은 경연교육(經筵敎育)에서 경학과 제왕학은 물론 부자윤리와 심지어는 효치논리 까지 형성하는 이른바 '수기적차원'의 교육을 받았다. 이를 통해 그는 통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치윤리가 반영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치인적 차원'의 애민정책과 개혁정책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기치인적 방법론'을 가지고 통치에 힘쓴 정조는 그래서 '내성외왕(內聖外王)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조의 어록인 〈일득록〉을 통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책은 정조가 자주 인용했던 '일모도원(日暮途遠: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과 같은 의식을 자각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인간 정조의 '내성외왕' 하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기부여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6 ~ 10/2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안경애	운주사
6	우리 모두는 부처다	종사은 잠앙 켄체	팡세
7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8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비움과소통
9	우리말 능엄경	황정원	운주사
10	만화로 보는 법화경과 새로운 해설	방경일	솔바람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나는 어딜가서 만나든 사람이 좋더라"



나는 사람이 좋더라
연등국제선원 엮음
장경각 펴냄
1만5천원

"유럽에서의 불교학과 포교현황이 신기하게 다가왔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안에 'Pali text society'가 오래전 결성돼 원시경전의 첫 번째로 꼽는 아함경전이 오(五)아함으로 출판됐다는 것과 독일은 동방성서학회가 만들어졌고, 이곳 스리랑카 옛 성도(聖都) 캔디서는 불교출판학회(B.P.S)가 만들어져 독일 사람들이 싱할리어, 산스크리트 사전을 편찬했음을 목격하고 원명 스님과 나는 너무나 놀랐다."

(강진 백련사 주지)

"어느 날 나에게 앨범정리를 하자며 세계 여러 나라서 찍은 사진들을 보던 중 스님은 나는 어딜 가든 사람이 좋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티베트 어느 고원 사람들의 큰 웃음을 보고 계셨다. 왠지 나는 그 후로 그 말이 늘 가슴속에 맴돌았다. 평소 말씀이 많지 않던 스님께 들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다. 해인사를 떠나 도심 속에 사시던 스님이 그제야 이해가 됐다. 출가 후 선방서 10년이 넘도록 오롯이 정진하시던 분이 불현듯이 국제포교를 하겠다고 산문을 나오셨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스님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이 좋다'는 스님 말씀은 모든 의문점들을 없애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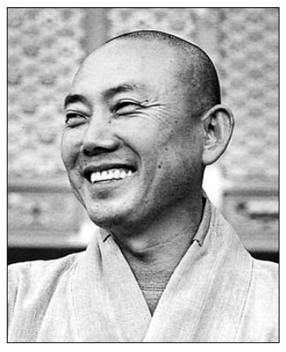
(비로자나국제선원장)

국제포교의 스승이라 일컫는 설산당 원명 스님의 추모집이 출간됐다. 원명 스님은 성철스님 상좌로 강화도에 연등국제선원을 만들어 국제포교를 해왔다. 전통사찰인 해인사 백련암 전통과는 다르게 국제포교의 길을 가던 원명 스님은 외국인 및 국내의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선방인 연등국제선원을 열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선구자인 셈이다. 하지만 선원 설립 5년만에 외국인 제자 승려들을 남겨두고 2003년 열반 했다. 올해는 스님의 열반 10주기가 된다. 이에 연등국제선원에서는 스님이 남긴 법문 및 재외불자와 국내 불자들의 원고를 모아 추모집을 발간했다.

외국 유학을 하면서 1천년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의 흔적이 한 줄도 없어 불교의 해외 포교를 결심한 원명 스님.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은사인 성철 스님이 크게 존경받는 유명한 선지식이지만, 그 흔한 법문집 한 권 없는 것이 안타까워 수좌의 길을 버리고 포교의 길을 택했다.

이 책에는 사진으로 보는 원명 스님 행장과 행자 및 수좌 시절, 그리고 유학 시절의 일화 들이 소개돼 있다. 이어 도반이던 前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비롯해 강진 백련사 주지 여연 스님과 백련암 문도인 원택 스님 등 17명 스님과 20여 인연 불자의 글이 소개돼 있다. 특히 벽안 출가자들인 싱가포르 관음선림 주지 계문 스님, 스위스 법계사 주지 무진 스님, 지광 스님 등은 영어로 된 추모글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원명 스님이 살아 생전에 불교 성지를 순례하며 연재한 순례기와 세계 각지서 온 추모글들은 스님의 해외 포교 원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원명 스님

국제포교의 대부 원명 스님 추모집
17명 스님과 20여 인연불자 글 소개
벽안 출가자 영어로 추모글 적어

1950년 경북 고령서 태어난 원명 스님은 고교 시절 불교학생회 회장을 맡으며 불가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밀양 표충사서 수련회를 하는 등 신행생활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다.

이후 대학 입시를 앞두고 표충사를 다시 찾았는데 한 스님이 "학생, 대학 공부는 해서 뭐할 려구?"하는 질문에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한다.

원명 스님은 이후 당시 해인총림 방장 성철 스님을 찾아가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참선을 통한 견성성불에 뜻을 둔 스님은 선방으로 달려갔다. 선방서 대중 생활을 통해 기초가 있어야 참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백련암으로 가 경전 공부를 한 뒤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서 12안거를 성만한다.

외국어에도 능통 했던 원명 스님은 이후 해외 포교에 매진해 1994년에는 싱가포르 불자 모임 결성과 인도네시아 해인사 포교원 개원, 모스크바 달마사 개원, 우크라이나 불심사 개원, 크르키즈스탄 보리사 개원, 방글라데시 원명사 건립 등 다양한 해외포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스님이 국제포교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유다.

해인사 백련암서 성철 스님을 오랫동안 시봉한 원택 스님은 "원명 스님이 가고 없는 절에서 외국인 제자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 뜻을 내 추모집을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라며, "원명 스님이 한국불교를 알리던 뜻을 이어받아 아직도 큰 진전이 없는 한국불교 전파에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친보살 27단의에 의거한 새로운 금강경 해설 '눈길'

원영대사의 금강경 강의

원영 굉오 지음 | 박병규 역주 | 운주사 펴냄
1만6천원



〈금강경〉은 불교의 반야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부처님의 보리법이 이 경으로부터 좇아 나온다"고 찬탄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수지·독송하고 연설해왔다. 더욱이 한국불교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더욱 중시되고 있으며, 현대에도 많은 불자들이 독송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만큼 경에 대한 번역서와 해설서도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 책도 그 많은 금강경 해설서에 고만고만한 또 하나의 혹을 붙이는 것은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은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근세 중국불교의 대선지식으로서 약관의 나이에 화두참구로 활연대오하고, 경론의 강설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유명한 원영 굉오 선사가 금강경을 강의한 것이다. 그가 강의한 여러 경전과 논서들은 중국불교사에서도 유래가 드물 정도로 그 범위가 방대하며, 철저하게 전통적 주석 방법에 의지하면서도 그 내용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적인 언어와 비유를 사용하여 불교에 기초 지식이 있는 이라면 누구라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로 유명하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중국과 대만에서는 그의 법문이 큰 권위와 명성이 지니고 있다.

그는 경론을 강의함에 있어 한 가지 종파나 교학을 고집하지 않고 반야, 기신, 원각, 정토 등 다양한 법문이 지닌 일미성과 회통성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하였다. 하나의 강의서만 보아도 그 안에서 불교 전체의 안목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 〈금강경〉 강의 역시 저자가 불교의 다양한 법문과 교리 전체의 핵심을 아우르는 안목에서 이루어진 강의이다.

이 책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양나라 소명태자 이래 전통이 되어온 금강경의 32분 과판을 채택하지 않고, 경문의 뜻을 그대로 취하여 이를 과판의 기준으로 삼고 세밀하게 경을 분석함으로써 경에서 말하는 종지를 내용에 따라 쉽고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강경 주석에 대한 가장 이르고 정확한 해설로 정평이 나 있는 인도 세친보살의 27단의에 의거해 금강경을 해설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해설과는 완연한 차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을 해설함에 있어 천태, 화엄, 유식, 선, 정토 등 중국불교의 여러 경전과 교학, 수행들을 망라하여 경전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천태의 일심삼관(一心三觀), 일경삼제(一境三諦)에 입각해 금강경의 반야평등과 중도실상을 드러낼 뿐 아니라, 역대 금강경 풀이 중 뛰어난 저술로 평가되는 〈금강경파공론〉 〈간정기〉 〈종통〉 〈금강해의〉 등의 정화를 인용하여 경의 이해를 깊게 하였다. 또한 〈황벽어록〉을 적절히 소개함으로써 경에 나타난 심종(心宗)을 철저히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종문(宗門)의 법화(法話)를 거시함으로써 최상종승을 선양한 점이 그렇다.

또한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등 대경과 〈기신론〉 〈대지도론〉 유식가의 제론 등 대론에 입각해 금강경을 풀이함으로써 반야부의 〈금강경〉을 원교 내지는 대승원돈교(大乘圓頓敎)의 도리로 승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의 독자들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에서는 거의 접해보지 못한 금강경 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책이 지닌 뚜렷한 장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이 책은 도안과 경안을 함께 갖춘 대선지식의 금강경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해설서이다. 저자는 금강경을 단순히 반야부 경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한 것이 아

현대적 언어와 비유 사용한 명강의
중국불교 경전 총 망라해 해석

니라,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론과 각 종파의 종지들을 포괄, 회통시켜 풀이했다.

즉 선사상은 물론 천태, 화엄, 유식, 여래장, 정토사상까지도 금강경의 반야사상과 융합시킴으로써, 금강경을 불교의 방대한 교학과 수행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따라서 불교의 기초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거나, 심지어 불교에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불교 전체에서 지니는 위상과 의미를 좀 더 쉽고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이 책을 통해 명쾌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원영 굉오
(圓瑛宏悟, 1878~1953)

중국 청말 민국초의 스님으로 법명은 굉오(宏悟), 호는 도광(韜光)이다. 1896년 19세에 복주 용천사로 출가, 이듬해 묘련 노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1898년부터 고승들을 두루 알현하고, 〈능엄경〉을 정밀 연구하면서 수행하여 활연히 깨달음을 얻어 임제종의 조사로 인정받았다. 1929년에는 태허 스님 등과 함께 1954년에 원명능엄전종학원을 운영하며 〈능엄경〉 강의를 담당했고, 1953년에는 중국불교협회의 제 1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색채로 쓴 부처의 전생 행적, 자타카 이야기

아잔타 미술로 떠나는 불교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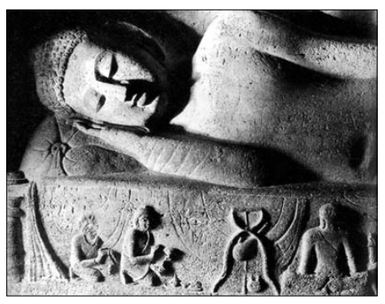
하진희 지음 | 인문산책 펴냄 | 1만3천원



3000년 전 고대 인도의 아리아족은 브라만교(이후 힌두교로 계승됨)와 카스트(계급구조)를 통해 그들의 강고한 지배체계를 만들었다. 노예계급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기원전 5세기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었던 싯다르타 왕자는 부귀영화를 버리고 구도의 길을 떠났고, 마침내 부처(깨달은 이)가 되었다.

부처가 계급 해방을 부르짖으며 불교를 일으켰을 때 노예계급은 비로소 자신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의 평등사상과 자비심은 인간의 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였다. 이렇게 불교에 귀의한 이들은 부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도의 길을 떠났듯이 그들 또한 인생의 목적을 찾아 지혜의 길을 떠나게 된다. 그것은 정과 끌만으로 거대한 석산을 녹여내는 고행에 가까운 자기 헌신이었다. 900여 년 동안 계속된 이 고행은 자기 자신을 녹여냄으로써 신을 만나고자 한 이들의 간절한 바람의 결과물로 아잔타 석굴을 탄생시켰다.

아잔타 석굴 벽화에는 25편의 자타카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책에는 상태가 비교적 우수한 16편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자타카(Jataka)는 기원전 4세기 팔리어로 쓰여진 모두 547편으로 구성된 부처의 전생 이야기로, 부처가 싯다르타 왕자로 태어나기 이전 부처의 보살로서 547번의 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글로 쓰여진 경전보다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에 색채로 쓴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잔타 석굴의 부처님 열반상

부처가 인간의 모습, 반인반수, 때로는 동물의 모습 등으로 태어나서 실천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야기의 주제는 주로 삶의 지혜, 희생과 자비, 헌신과 사랑, 정의로운 삶, 금욕적 생활, 수행, 구원, 생명 존중, 우정, 효도, 마음의 평정 등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이야기는 부처의 한 생에 대한 이야기로 부처가 보살로 태어난 수많은 전생 동안 실천한 자비의 행적이다.

현실은 언제나 가혹하고, 선은 언제나 악의 도전을 받게 된다. 인도인들은 현실을 극복하기를 바랐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길을 고민했다.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간답게 사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정의로운 삶일까?

'비둘기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보시한 시비 왕' 편을 보면,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악은 결코 욕심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속성으로 인해 언제나 선에게 목숨을 요구한다. 이때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자비심은 결국 악의 자기 반성을 이끌어내고, 선은 비로소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사랑과 자비는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즉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완성된다는 교훈이다.

아주 오래전 부처의 전생 행적을 통해 과연 인간의 길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책이다.

김주일 기자

공 고

종단명칭 변경

대한불교 삼보종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총무원장 덕산)이
2013년 10월 25일부로
(사)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으로
종단명칭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
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금강경과 삼가귀감 ㊦

최동락 법사(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유불도' 三家, 一家로 만나 크게 웃어보세

3. 『선가귀감(禪家龜鑑)』

1) 선가의 심(마음은 있는가 없는가)

50여 권의 경론(經論)과 조사(祖師)의 어록(語錄) 가운데서 요긴한 것을 추려 모은〈선가귀감〉의 첫 구절은 "여기 한 물건(一物)이 있다.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한 것이기에 일찍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일찍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狀)도 없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생멸(生滅)도 상(相)도 없는 일물로써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니 참으로 묘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선가귀감〉에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석가모니가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선의 뜻(禪旨)이 되었고, 일평생 설법한 바의 말은 교의 문(敎門)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禪)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곧 부처님의 말" 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마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선과 교의 두 개 문으로 나누어 깨달음의 내용을 전하였고, "교문에는 오로지 한 마음 법만을 전하고, 선문에는 오로지 본성을 보는 법만을 전했다"는 말로 그 뜻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가귀감〉에서 '심' 은 알 수 없는 일물이면서, 견성(見性)을 할 수 있는 성(性)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가에서 마음 닦는 방법(일물(一物)도 없는 경지)

〈선가귀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과 교의 양쪽 문을 다 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무엇보다 공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공안을 통한 공부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세세하게 기술되어있다. "수행하는 사람이 본래 공안(公案)을 참구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닭이 알을 품듯이 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하며, 배고플 때에 밥을 생각하듯이 하며, 목마를 때에 물을 생각하듯이 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하면, 투철하게 알 수 있는 때(透徹之期)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는 공부할 때 간절하고 순수무구한 몰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따뜻한 기운이 서로 이어지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마음과 눈이 움직이지 않는다. 배고플 때 밥을 생각하고,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며,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심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절실함이다. 절실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몰입해 들어갈 수 없으며, 몰입이 되지 않으면 의식의 뿌리가 구경에까지 이를 수 없다.

그리고 공안을 통해 하는 "참선의 공부는 거문고 줄을 고르는 원리와 같아서 당김과 풀어짐에 그 적절함을 얻어야 한다. 너무 부지런하면(당기면) 곧 집착에 가까워지고, 잊어버리면(풀어버리면) 무명(無明)에 떨어진다. 늘 성성하게 깨어서 역역하게 하면서도, 차근차근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거문고는 소리를 내기위해 만들어진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다면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줄의 늦춤과 당김이 적절함을 얻은 후에야 거문고의 맑은 소리가 널리 퍼지는 것처럼 참선 공부 또한 이와 같아서, 조급하게 하면 혈기가 올라가게 되고, 잊어버리면 귀신의 굴로 들어가게 되니, 늦추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으면, 그 가운데서 오묘한 이치를 얻게 된다" 는 말처럼 연주자가 세밀하게 마음의 흐름을 따라 거문고를 조율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자신만의 감성을 가락에 실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이란 넓은 공연장의 무대 위에서 거문고 연주에 몰입하기 위해 현을 고르는 모습. 이는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심법을 조율하는 수도자의 모습이다. '일물이 무엇인가' 란 주제를 잡고 공연하는 연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삼가귀감〉에서는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깊이 믿어서 스스로 비굴해지지도 말고, 스스로 자만해져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수행이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믿는데서 출발하지만, 나약함에 빠져 거문고의 줄을 늦추듯이 마음을 늦추면 비굴함에 빠지게 되고, 거문고의 줄을 당기듯이 마음을 너무 당기면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마음의 조율이 안 되면, "이 세상이 환상임을 알아서 곧 이 환상을 떠나면 더는 방편을 지을 것이 없게 된다. 환상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로 더 닦아갈 것도 없게 된다"는 경지로 나가야 한다.

완벽한 조율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늘 아름다운 자기만의 연주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실상 세속의 삶이란 이런 환상과 같은 일에 매여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삶의 도구에 불과한 물질세계에 빠져 헤매다가 텅 빈 그림자를 보며 스스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자신만의 가락은 한 번도 연주해 보지 못하고, 막이 내리는 무대 뒤의 어둠 속으로 쓸쓸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환상은 망상을 일으키게 되고, 망상은 멍하니 서 있는 허수아비를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생각을 비우면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고, 고요하고 맑은 의식으로 내면을 비추게 되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법이다. 그러면 이러한 본성의 참된 마음이 다시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므로 저절로 걸림이 없는 삶을 이루게 된다. 〈선가귀감〉에서는 "걸림 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 선정(禪定)으로 인하여 생겨난다"라고 하였고, "본래의 참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의 정진"이 된다고 했다.

'유불도' 삼가, 마음 달리 표현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근본 관점은 같아
삼가의 존재 이유 알면 갈등 극복

삼가에서 추구하는 구경의 경지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순수성 · 걸림없는 자유
금강경의 무상 · 무주의 뜻 되새기자

그러므로 "미혹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면, 단지 무명만 도와줄 뿐이다"라는 말처럼, 모든 현상계가 미혹된 환상이라는 믿음으로 투철하게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모습은 곧, "모름지기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비우고, 스스로 내면을 비추어보는"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비우면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고, 고요하고 맑은 의식으로 내면을 비추게 되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법이다. 그러면 이러한 본성의 참된 마음이 다시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므로 저절로 걸림이 없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가귀감〉에서는 "걸림 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 선정(禪定)으로 인하여 생겨난다"라고 하였고, "본래의 참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의 정진"이 된다고 한 것이다. 바로 타고날 때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선정이고, 정진이고, 견성(見性)이란 말이다.

이렇게 마음이 선정에 들게 되면 "세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든 현상(相)을 알 수 있게 된다. 마치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가는 티끌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맑고 고요한 연못물에 온갖 그림자 또렷하게 보이는" 혜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막힘없는 청정한 지혜로써 범부(凡夫)를 넘어 성인(聖人)에 들어가게 되므로 〈삼가귀감〉에서는 선정을 두고 "성인의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길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수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타고난 본성의 바름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하며,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림이 없는" 해탈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선가귀감〉의 마음수양법이자, 수양을 통해 이르고자 하는 경지가 된다.

〈금강경〉과 〈삼가귀감〉의 회통

이상에서 살펴봤듯 삼가에서 바라본 '심' 에는 각각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가에서는 마음과 하늘이 하나로 통한다고 하여 마음 속에 심어진 하늘은 근원에 이르면 무한하여 끝을 알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도가에서 말하는 마음속의 자연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니, 본래부터 마음이란 일물이 없다는 선가에서 말하는 발근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삼가에서 마음을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근본적 관점은 모두 같다.

종교나 사상이 처음 세상에 등장할 때는 그 때 상황에 맞는 비유로 진리를 표현해 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시사철 더운 열대지방 사람들에게 한대지방의 얼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으로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었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첩첩 산중 사람들의 생활방식으로 진리를 비유해 낼 수 없었던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 하듯, 삼가가 가리키는 본래의 뜻을 분명하게 보면 세 마음이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삼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본다면 갈등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종교와 사상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모두 자신의 종교와 사상이 우월하다는 독선 때문이다. 〈금강경〉의 "무릇 있는바 상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아님을 보게 되면 곧바로 여래를 보게 된다"라고 한 말이나, "만약 보살에게 아상(我相) · 인상(人相) · 중생상(衆生相) · 수자상(壽者相)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다"는 말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나 사상의 상에 얽매여서 타종교나 사상을 배척하고, 또 우열을 가리려는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면, '여래' 란 절대 진리의 경지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금강경〉과도 어긋나게 된다. 갈등이란 고정된 관념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삼가에서 추구하는 구경의 경지는 모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순수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것이 바로 걸림 없는 자유이며, 해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산대사가 편찬한 〈삼가귀감〉을 오늘날 입장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할 이유고, 또한 혜능스님이 〈금강경오가해〉에서 말한, '무상(無相)이면서 무주(無住)이고, 묘유(妙有)' 가 되는 뜻을 되새겨볼 시점인 것이다. 바로 고정관념의 틀도 없고, 고착된 편견도 없으며, 오직 쉼 없이 변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순수한 마음으로 응하는 조화로운 묘유의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교(宗敎)와 사상(思想)이 마치 물질문화처럼 서로 뒤섞여 곳곳에 흐르고 있다. 이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말한 심과 『삼가귀감』에서 말한 삼가의 심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만법(萬法)이 귀일(歸一)하여, 삼가(三家)가 일가(一家)로 만난 방안에 앉아, 서산대사의 말처럼 서로 바라보며 크게 한 번 웃을 일인 것이다.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을 잘 한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는다.
평화로우며 미움이 없고 두려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최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교직경력 17년 스님 직강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금강송 분양
12년생 금강송 (높이 3 ~ 4m)
700 그루 보유
(10그루 단위 출하)
일반조경용, 사찰용,
전원주택용 등
문의 010 – 2573 – 2032

범음범패 실전위주 학인모집
점안의식,천도49제,구병시식,
산신,수륙대제,안택,
산사음악회 등,천수,사다라니
사물 송주 북,바라,
나비작법,회심곡 등,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사찰불공 접수 받습니다.
010-8829-4578 성불사

기문둔갑반 빙의연구반 수강생 모집 [5개월 과정]
역학을 하였으나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기문둔갑 비법을 전수합니다.
무료청강하신 후에 수강신청(무료강의)
매주 토요일 7시부터(2시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67-12번지
천지암 창원시청부근
010-6511-5958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영남소리,사물,바라,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산사음악회, 위령제
010-8677-2861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과정 :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
다루는법 사시예불,도량석,쳇송,
각단예불,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천도재,49재,점안식,예수재,수륙재등
작법과정 : 바라무(요잡바라,천수바라),나비무
수시모집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010-8612-6914 총무스님
각종법회 행사 모셔드림(상담문의)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대승불교염불원

최면 전생 빙의 특강
• 최면 우울증 심리치유 빙의치유
• 빙의, 몸안의 병 찾는법
(비법 :6회완성)
• 수강즉시 상담가능
(실기위주 속성)
• 최면 배웠으나 활용이 안되시는 분
• 빙의를 확인하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
055)221-5182

천상을 여는 지장 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빙의,퇴마,신병,천병,
우울증,병명없이 몸이 붓고 아프고,
가정우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
스님, 법사, 보살 상담환영
010-2418-622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불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1-759-0183
055)883-7385

악성 피부질환 해결
전통자연치유비법으로
무좀,종기,습진,골수염,
피부염,축농증,아토피염,
버거씨병 기타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 무료해결 합니다.
010-3028-6579

법당 화주보살 모십니다
– 불심 신심이 돈독한 일천불
권선하실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 불심으로 귀의 할 출가 여자
행자 모집합니다
(부산 금정구)
010-6390-18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구 사명산 상운사)
010-3764-36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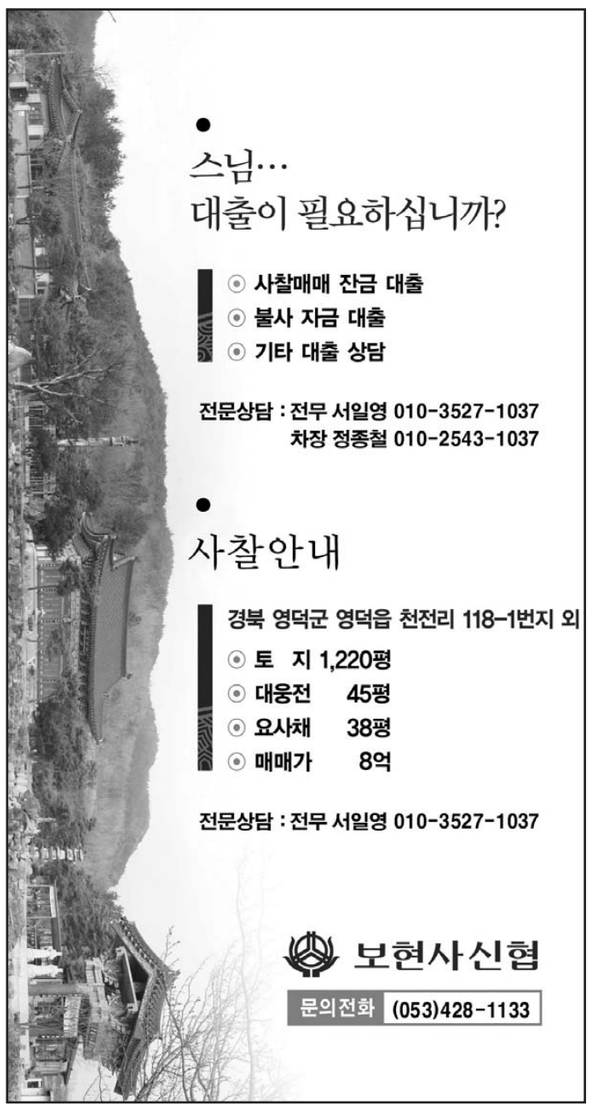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수행할 비구니스님과
초보자 남녀 행자스님
모십니다
(경주지역)
011-534-3345
010-4580-8394

빈 절이나 가난한 암자를
무보시로 운영
관리해 드립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려운 사찰을 구합니다
(법납 40년 비구승, 탄성스님)
010-7534-484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명리(영가찾는 법)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ttp://cafe.naver.com/baikamsa.cafe)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서울 : 11. 1(금) 오후 2시
– 대구 : 11. 2(토) 오후 2시 [접수 053)944-3272]
○ 대 상 – 명리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의내용
– 기 초 반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한 맺힌 조상 찾는 법,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4.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딛히는 가정
5.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통신반 모집
☞ 강의를 1번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교재로 동영상강의)
백암역리원 02)597-1101.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우리은행) 옆
대구출강 053)944-3272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선각자는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증상에 따라 약을 주어 우리의 마음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선각자는 뱃사공과 같다. 이 생사의 바다에서 우리를 저 언덕으로 건네 주기 때문이다.
- 열반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부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3개
- 대지 : 120
- 가액 : 10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 법당기와단청52㎡
- 요사한옥99㎡리모델링했슴 주차용이하고 전망좋음
- 시내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 3억 5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시설 특 A급 (넓은법당, 넓은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조절불가)

010-5667-057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 2동
- 용호시장 입구 신협 옆
- 4층건물 중 2층 (자비원)
- 법당, (관음) 방2, 공양간
-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는 협의 후 결정

011-597-8889

포교원안내

- 위치:부산 해운대 우이동 1088-4
- 6층건물 중 6층 건평 60평
- 마당 40평
- 지하철 1분거리, 엘리베이터 有
- 포교원 15년 운영한곳
- 전세 5천만원 월세 60만
- 시설비 2천만원, 시설완벽

010-8200-965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부지 : 1700평
- 법당 : 30평(전통)
- 요사 : 60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4억5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안내

- 총부지 970평(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삼성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역사와 정원수 다량, 나비형 큰호수
- 가액: 1억 8천만원

사 찰 (급) 안 내

- 아파트 8,000세대 신도시
- 총 1200평(대지 700평, 야임 500평)
- 대웅전, 삼성각(목조), 요사채 2층 (방 6칸)
- 주차장 200평
- 백화점, 법원 200M 거리내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 경남, 강원도 사찰, 토굴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안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2008-037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1가 21번지(대성학원앞)
- 로터리 위치
- 4층건물 3층 50평
- 보증금 1천만원
- 시설비 1천만원(시설일체)
- 월세 50만원

010-8538-6967
051)231-301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 혁신도시 인근
- 총평수 400평 (전 300평, 대지 100평)
- 건물:슬라브 벽돌 요사채(방 5개) 법당, 산신각
- 가액: 2억 (대출금 6천만원 포함)
- 소유관계로 급 안내

010-3563-01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큰 뜻으로 포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010-6328-6626

암자,토굴(임대) 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가창면소재
- 건물ㄷ자 35평주택 텃밭4백평
- 도심인적,경관수려하고 교통편리 ,포교최적지
- 보증금 1천만원 , 월50만원

010-3811-9929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시 구산동산
- 현재 사찰하고 있음
- 평수 650평, 땅값만 받고 양도함
- 평당 40만원 협의 불가 (법당 조립식,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스님 건강문제로 급히 양도함

010-3800-68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2층 건물 중 1층
- 평수 130평 • 법당 시설완벽, 방3
- 상시 온수 제공, 주차시설완벽
- 전세 3천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0-3574-3303
010-5667-5453

포교원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중심권
- 3층 건물 중 3층 평수 약 100평
- 법당 60평, 큰방 3개, 작은방2개, 거실, 주방, 욕실3개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창고2, 차고
- 최시설, 집기 전세 5000만원, 옥상방수
- 최고시설집기 인연있는분께 싸게드림

010-5883-2255상담비람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등산로 입구
- 별장같은 아늑한 단독주택
- 약 40평, 1층 법당, 방2, 공양간
- 2층 방 1
- 전세 8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협의 주차 30대

010-6393-53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대구역 근교
- 한옥 36평
- 법당:아미타삼존불,지장보살, 신중,산신,용신,소옥불77불
- 방2, 공양간1칸,
- 현재법회중
- 가액 : 보증금500만원,월25만
- 시설비: 2천만원

010-3381-080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화왕산 군립공원 입구
- 총평수 : 약 2만평
- 고려 일미사지터로서 남향 양지 바르고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산세수려)
- 건축 허가완료 건축가능
- 전기는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설치
- 가액: 2억 3천만원

010-5015-1022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315평
- 가액: 5천만원
- 시설비 500만원 (삼존불 집기류 농기구 일체)
- 주위에 민가가 없고 아주 조용함
- 텃밭과 유실수 다량 있음

011-269-416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 아랫반송 대로변
- 4층건물의 3층 30평
- 시설완벽
- 시설비: 1천 9백만원 (절충)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4414-03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31번지
- 건평23평. 대지: 100평외 과수원밭1.500평 (6년생사과나무250주있음)
- 예쁘고 아담하게 지어놓은황토집이며 법당.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 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 : 3억(꼭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절 터 안 내

- 위치 : 싼땅 양도. 감악산 줄기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 3분거리, 작은 야산
- 황둔리 대지, 산 합 945평
- 조용한 위치, 버스길 인접
- 양도가 : 9,000만원

010-3288-1317

963호 27면 불자정보에 게재된 '양도가격'의 오타로 수정하여 바로잡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산세 수려하고 600년된 소나무 경관이 좋은곳,천년 고찰자리로도 손색이 없음
- 부지 4400평, 종교부지 1000평
- 산신각 목조 9평
- 법당 30평, 요사 23평 중 불 때는 방 5평
- 양도가액: 3억 8천만원

010-8484-3917

사찰부지안내

- 위치:사찰부지 최적지
- 평수:36,500평
-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 광천사,보현사 인근,

011-886-9931

신축사찰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3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포교당하실분

- 위치: 삼랑진역 정문 앞
- 45평(시설일체)
- 금액절충가능

010-6304-326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5천만원

010-8933-993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등기 법정보장
- 관련대지 : 약 360평.도지료 연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5백만원 시설비 절충

010-729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시장 입구)
- 6층 건물 6층 85평(옥상 사용)
- 큰법당, 공양실 친견실 방 3개
- 시설 A급, 주차장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월 100만원 시설비(답사 후 절충)

010-6575-171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7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에 2층. 삼존불, 신중탱화
- 약 60평
- 가액: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30만원

016-9433-0684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149평,
- 법당: 20평, 기와단청
- 요사: 17평, 요사: 10평
- 가액: 5억 7천만원
- 도심속 포교하기 좋은곳

011-811-5466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포교당하실분

- 위치: 삼랑진역 정문 앞
- 45평(시설일체)
- 금액절충가능

010-6304-32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주차가능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 만원, 시설완벽, 답사후 절충가능

010-4747-87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부평시장
- 약 100평, 방4개, 식당 큼
- 삼존불 각탱화, 연등 400개 에어컨 대형 2대
- 화장실 두개, 시설비 3천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총 4천만원 월 80만원
- 유동인구 많음 시청 최상급
-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 대지 120여평 • 임법당 20평
- 요사 15평 • 창고 7평
- 차량 마당 진입 가능
-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 대지 190평
- 법당 50평, 요사채, 공양간 85평
- 주차가능
- 도심속에서 조용하고 포교에 불편함이 없는곳
- 가액 : 8억

010-5346-413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서구 대평리 시장 인근
- 3층 건물중 2층 40평
- 시설: 최상급 삼존불 중 아미타 3자동불, 양대보살
- 후불, 신중, 산신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108인연불
- 일부집기 완비 바로 집회 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2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742-5520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010-3111-90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안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큰 뜻으로 포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010-6328-662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 법당기와단청52㎡
- 요사한옥99㎡리모델링했슴 주차용이하고 전망좋음
- 시내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 3억 5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시설 특 A급 (넓은법당, 넓은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조절불가)

010-5667-057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 2동
- 용호시장 입구 신협 옆
- 4층건물 중 2층 (자비원)
- 법당, (관음) 방2, 공양간
-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는 협의 후 결정

011-597-8889

포교원안내

- 위치:부산 해운대 우이동 1088-4
- 6층건물 중 6층 건평 60평
- 마당 40평
- 지하철 1분거리, 엘리베이터 有
- 포교원 15년 운영한곳
- 전세 5천만원 월세 60만
- 시설비 2천만원, 시설완벽

010-8200-965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부지 : 1700평
- 법당 : 30평(전통)
- 요사 : 60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4억5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포교원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중심권
- 3층 건물 중 3층 평수 약 100평
- 법당 60평, 큰방 3개, 작은방2개, 거실, 주방, 욕실3개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창고2, 차고
- 최시설, 집기 전세 5000만원, 옥상방수
- 최고시설집기 인연있는분께 싸게드림

010-5883-2255상담비람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5천만원

010-8933-99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주차가능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 만원, 시설완벽, 답사후 절충가능

010-4747-87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 아랫반송 대로변
- 4층건물의 3층 30평
- 시설완벽
- 시설비: 1천 9백만원 (절충)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4414-03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31번지
- 건평23평. 대지: 100평외 과수원밭1.500평 (6년생사과나무250주있음)
- 예쁘고 아담하게 지어놓은황토집이며 법당.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 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 : 3억(꼭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시장 입구)
- 6층 건물 6층 85평(옥상 사용)
- 큰법당, 공양실 친견실 방 3개
- 시설 A급, 주차장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월 100만원 시설비(답사 후 절충)

010-6575-171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7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에 2층. 삼존불, 신중탱화
- 약 60평
- 가액: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30만원

016-9433-0684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149평,
- 법당: 20평, 기와단청
- 요사: 17평, 요사: 10평
- 가액: 5억 7천만원
- 도심속 포교하기 좋은곳

011-811-5466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포교당하실분

- 위치: 삼랑진역 정문 앞
- 45평(시설일체)
- 금액절충가능

010-6304-32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주차가능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 만원, 시설완벽, 답사후 절충가능

010-4747-879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시설 특 A급 (넓은법당, 넓은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조절불가)

010-5667-057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 2동
- 용호시장 입구 신협 옆
- 4층건물 중 2층 (자비원)
- 법당, (관음) 방2, 공양간
-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는 협의 후 결정

011-597-8889

포교원안내

- 위치:부산 해운대 우이동 1088-4
- 6층건물 중 6층 건평 60평
- 마당 40평
- 지하철 1분거리, 엘리베이터 有
- 포교원 15년 운영한곳
- 전세 5천만원 월세 60만
- 시설비 2천만원, 시설완벽

010-8200-965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부지 : 1700평
- 법당 : 30평(전통)
- 요사 : 60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4억5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포교원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중심권
- 3층 건물 중 3층 평수 약 100평
- 법당 60평, 큰방 3개, 작은방2개, 거실, 주방, 욕실3개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창고2, 차고
- 최시설, 집기 전세 5000만원, 옥상방수
- 최고시설집기 인연있는분께 싸게드림

010-5883-2255상담비람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5천만원

010-8933-99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주차가능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 만원, 시설완벽, 답사후 절충가능

010-4747-87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 아랫반송 대로변
- 4층건물의 3층 30평
- 시설완벽
- 시설비: 1천 9백만원 (절충)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4414-03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31번지
- 건평23평. 대지: 100평외 과수원밭1.500평 (6년생사과나무250주있음)
- 예쁘고 아담하게 지어놓은황토집이며 법당.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 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 : 3억(꼭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자비심 일깨우기

초걈 트룽파 (승려 · 티베트)

〈8 · 끝〉 명상 후의 자세

"모든 존재 이롭게 하겠다" 보살의 중심 서원

마음 훈련을 위한 지침들은 일상을 통해 수행을 더욱 진전시키는 법과 관련된다. 이 주제는 관계 상황과 일반적인 명상 후 경험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법과 연관성을 지닌다.

하나의 의도로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여기서 한 가지 의도란 온화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항상 그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이 태도야말로 보디사트바 서원의 정수일 것이다. 앉던 걷던 먹던 마시던 자던, 또는 그 무엇을 하던 간에 당신은 항상 지각 있는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겠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혹독한 병고, 명예의 손상, 법정 소송, 경제적 위기, 번뇌의 증가, 수행에 대한 반감 등과 같은 악조건 속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당신과 같은 고뇌를 겪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자비심을 계발해야 하고, 로종 수행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떠맡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과 악한 환경들을 바로잡고 극복해 내야한다. 그와 같은 악조건과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수행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맞서서 극복해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여건이 좋을 때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여건이 나쁠 때는 수행을 포기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상황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꾸준히 수행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말은 그 번뇌를 밟고 올라선다는 뜻이다. 수행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악한 환경이 들이닥쳐 당신을 밀어내려 할 때마다 그 생각을 밟고 올라서 수행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번뇌를 고의적 · 즉각적으로 아주 급작스럽게 억압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하루의 시작과 끝, 한 가지씩 하기

이 주제의 요점은 하루의 시작과 끝 무렵에 두 종류의 보리심을 품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아침에 보리심을 기억해 낸 뒤 그 마음가짐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그 일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만일 두 종류의 보리심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마땅히 기뻐해야 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태도를 취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보리심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면, 다음 날에는 보리심과의 연결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이 주제는 아주 단순하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선시하겠다는 서약과 두 종류의 보리심을 향한 헌신에 의해 위아래로 감싸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은 두 종류의 보리심을 일깨우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온화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약속한다. 당신은 세상과 지각 있는 다른 존재들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의 고통을 스스로 떠맡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당신은 같은 다짐을 반복한다. 그러면 수면과 다음날 아침 시간이 그 서약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지침이다.

둘 중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수하기

기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수행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당신은 끊임없이 인내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극단적 행복에 젖어 있든, 극단적 고통에 빠져 있든 상관없이, 당신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당신의 현재 극단적 고통은 전에 지은 카르마의 결과로 여겨야 한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된다. 그저 악한 행위와 무지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극단적 행복 또한 전에 지은 카르마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에 탐닉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자신의 풍요와 덕을 나누려 해야 하고, 내면에서 감지되는 진실성과 힘의 느낌은 덕으로 녹아들게 해야 한다.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난처한 지경에 빠질 때마다 시야를 잃고는 주변에서 일종의 희생양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그들은 수행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구실들을 고안해 낸다. 환경이 나쁘다거나, 수행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나쁘다거나, 수행 스케줄이 나쁘다는 등 온갖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극단적인 경우 사람들은 법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서 다시 위안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되돌아가려 하기도 한다. 이 주제의 중심 의미는 상황이 좋던 나쁘던 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것이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기

당신은 헌신하기로 서약한 규율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에 귀의한다는 서원과 보디사트바로 살겠다는 서원을 지켜야 한다. 당신은 품격있는 불교도로서의 생활방식을 지켜야 하고, 나아가 마음훈련, 즉 로종 수행과 관련된 특별한 규율들도 지켜야 한다. 이 로종 수행은 당신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탄트라 수행자들에게는 이 주제가 이번 생과 앞으로의 생을 거치면서 세 가지 수레의 규율들을 지킨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여기에는 불교의 일반적 규율들이 포함되고 로종 수행의 규율들도 포함된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인연, 즉 사마야(samaya)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세 가지 어려움을 잘 다루는 훈련하기

세 가지 어려움은 우리 자신의 번뇌나 신경증과 관계하는 법과 관련돼 있다. 첫 번째 어려움이란 당신 자신의 감정, 즉 번뇌에 휘말려드는 순간을 깨닫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감정이 활용하는 책략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주 어렵다. 두 번째 어려움이란 감정에 휩쓸린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아침에 다짐 · 저녁에 점검
극단적 행복 · 극단적 고통에도
흔들리지 말고 수행 유지해야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이란 감정에 계속 빠지지 않도록 그 뿌리를 뽑는 일이 힘들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먼저 자신의 신경증을 인식하는 일이 아주 어렵고, 그 다음 그것을 극복하기가 아주 어려우며, 또한 그것을 근절시키기가 아주 어렵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어려움이라 부른다.

이 어려움이 일어나면 당신은 먼저 그것을 신경증으로 알아 차려야 한다. 신경증은 근본적으로 이기심으로부터, 즉 자기를 너무 중요시하는 태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런 뒤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방편이나 해독제를 활용해야 한다. 해독제란 자아를 떨쳐버리는 조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신경증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에 계속 매혹당하지도 않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는 급작스럽게 신경증을 극복하는 느낌이 수반된다.

이 모든 활동은 여섯 가지 범주로 정리된다. 첫째 번뇌를 인식하는 어려움, 둘째 번뇌를 극복하는 어려움, 셋째 번뇌를 근절시키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첫째 번뇌를 인식하는 것, 둘째 번뇌를 극복하려 애쓰는 것, 셋째 다시는 그런 번뇌를 즐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있다.

보디사트바의 이념과 관계 맺는 것, 또는 그와 비슷한 기념비적 개념과 관계 맺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주제는 "세 가지 어려움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말한다. 당신이 로종 수행을 기꺼이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훈련될 것이고, 보디사트바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세뇌당할 것이다. 사실 로종(lojong)은 '세뇌'를 뜻한다. '로'는 '지성'을 의미하고 '종'은 '정화', 또는 '훈련'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수행의 중심 의도는 불성, 보리심, 여래성이라 불리는 견고한 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이다.

세 가지 중요한 원인 일으키기

여기서 '원인'이란 당신을 훌륭한 법의 사람, 즉 보디사트바로 만들어 주는 원인을 지칭한다. 이 중 첫 번째 원인은 좋은 스승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당신의 마음과 품행에 법을 계속 접촉시키는 것이며, 세 번째 원인은 안정되게 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과 음식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당신은 이 세 가지 상황을 조성하고 유지하려 노력해야 하고, 자신에게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원인은 실제로 자신을 이끌어 줄 스승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일으켜진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자신의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일으켜진다. 예컨대 당신의 마음은 사업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책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스꽝스런 성질을 띤 기념비적 경험을 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자기 삶을 놓고 온갖 종류의 야심을 품을 수 있다. 잠곤 콩툴이 주제에 주석을 달던 시절에는 이와 같은 태도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당신은 탁월한 불교도가 되거나, 탁월한 보디사트바가 되거나, 탁월한 저자가 되거나, 탁월한 창녀가 되거나, 탁월한 사업가가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유형의 야심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그 대신에 당신은 다음과 같은 말이 흘러나오는 마음 상태에 도달하려 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법에 완전히, 전적으로 몰두시키고 싶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은 자신이 알맞은 환경에 처해 있고, 삶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해 어느 정도 생계수단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일으켜진다. 음식과 옷과 집을 잘 마련해 놓았으므로 수행에 전념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당신은 ①스승과의 관계 형성, ②마음의 훈련, ③수행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세 가지 원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

▲선입견을 버리고 수행하기 : 항상 전심을 다해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당신은 로종 수행에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편견을 버리고 철저히 수행하면서 경험 속에 등장하는 그 무엇도 배제하지 않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에 대해 명상하기 : 항상 가장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면 명상을 첨부시켜야 한다.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명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아주 힘들어진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 외부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수행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프든 건강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명예를 얻든 불명예를 얻든 상관없이 당신은 로종을 수행해야 한다. 그건 아주 간단하다. 상황이 좋다면 그것을 내쉬고, 상황이 나쁘다면 그것을 들이쉬면된다.

▲중심이 되는 사항들 익히기 : '이번에는' 이란 이번 생을 뜻한다. 당신은 과거에 많은 생을 낭비해 왔고, 미래에는 수행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법을 들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심이 되는 사항들을 수행해야 한다. 중심 가르침은 첫째 다른 사람들의 이득이 당신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둘째 스승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이 분석적 탐구보다 더 중요하며, 셋째 보리심을 수행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수행보다 더 중요하다는 세 가지 요점으로 구성된다.

▲동요하지 않기 : 수행을 향한 당신의 열정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때는 수행을 하고 다른 때는 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 훈련에만 전력을 다해 집중하라는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 자기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성공을 하거나 백만 달러를 물려받는다 해도 자기 상황과 비교하고 우울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질투하지 않기 : 다른 누군가가 칭찬을 받는다 해도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 친구의 성공에 조잡한 질투심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아는 사람이 탐나는 새 넥타이나 블라우스를 입었다고 해서 그 결점을 지적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멋있어요. 그런데 얼룩 묻었네요." 이런 반응은 상대를 짜증나게 만들기만 할 것이고, 당신 수행에 아무 도움도 안 될 것이다.

▲찬사를 기대하지 않기 :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잔을 들어주길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좋은 일을 하고 훌륭히 수행했다 해도 그것을 인정받으려 애 쓰지 말라는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참글세상'에서 펴낸 〈자비심 일깨우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964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 평수 : 3000평 (800평 정도 부지 만들어져 있음)
- 도로 있고 정남향 경관좋고 옆에 계곡 있음
- 사찰, 전원주택, 교육시설 최적지
- 가액: 2억 7천만원

010-9368-9612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근교
- 사찰최고자리
- 대지 150평
- 건물 2동
- 사찰포교원
- 가액: 3억 5천만원

010-3808-4499

오행쑥뜸방 하실분
- 위치: 부산 용호동
- 보:3,0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2,000만원
- 30평(방1,주방1,도시가스 포함)
- 시설완비,즉시 영업가능

010-3314-8854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군산
- 종교용지 : 법당 30평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총면적 450평
- 총양도가액: 4억 7천만원

017-725-5907

사찰 터 안내
- 위치: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982
- 평수 320평(부지 만들어져있음)
- 포장도로 있고 산세 소나무 울창함
- 옆에 계곡 있음. 사찰 펜션
- 전원주택 최적지

011-544-9777
051) 721-6444

토 굴 양 도 합 니 다

노스님 또는 비구니 스님 도량 적합합니다

010-7765-27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 총 770평
-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2평/ 다용도용 30평. 불사중
- 요사채 30평 (추가 10평)
- 연못 조성 예정지 및 주차장 , 텃밭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금 있음)

양도조건 절충가능

010-2353-9933

암자(토굴) 안내
- 위치: 경주시
- 대지 730평.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3억 2천만원

010-4184-363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다던 사람의 머리, 거지도 안 가져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3)

보달왕이 부처님을 만나

부연국에 보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언제나 치우치거나 그릇됨이 없었고,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3존을 모르는 것을 가엾게 여겼으며, 항상 재계(齋戒)할 적에는 높은 누관에 올라서 보다가 뒤로 돌아서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했다.

나라 안의 신하와 백성들은 왕의 이러한 것을 괴이하게 여기어 다 함께 의논했다.

"왕은 만백성의 어른으로 계시며 멀고 가까운 이가 공경하고 승복하며, 왕위에 오르게 되면 백성이 복종할 것인데, 무엇을 청하고 바람이 있기에 위의를 욕되게 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며 절을 하실까?"

신하들은 간하려 했으나 감히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관민 수천과 함께 궁을 나오는데 얼마 오지 않아서 한 도인을 만났다. 왕이 연에서 내려와 예배하니 그 군중들도 따라서 그에게 예배했다. 이내 같이 돌아와서 음식을 준비하여 놓고 신하들은 간하였다.

"대왕은 지극히 높은 분이신데, 어찌하여 길에서 그 거지 도인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셔야 합니까? 사람의 머리와 얼굴은 천하에 존귀한 것이고 게다가 국왕은 다른 이들과는 같지 않으십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했다.

"죽은 사람의 머리와 여섯 개의 짐승의 머리를 구하여 오너라."

이리하여 신하들이 두루 찾아 여러 날이 걸려서야 비로소 왕이 명한 것을 구해왔다. 왕이 말했다.

"저자에 가서 팔아 오너라."

신하들은 팔러 갔으나 소와 말과 돼지와 양의 대가리는 모두 팔렸는데도 사람의 머리만은 팔리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팔러 갔으나 그렇게 팔리지 않으니, 거지에게나 쓰게 하라."

이렇게 하여 며칠을 지나면서 팔았지만 팔리지도 않았고, 거지도 가져가는 이가 없자 머리는 모두 띵띵 부풀면서 냄새가 났다. 왕은 이내 크게 노하여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머리는 가장 존귀해서 욕되게 할 수 없다' 고 하더니, 이제 사람의 머리를 무엇 때문에 거지조차 가져가는 이가 없느냐? 곧 명하니, 수레를 차려라. 너른 못 가운데로 나가 물을 것이 있다."

그리하여 여러 신하들이 두려워 떨면서 성 밖으로 나가자,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나의 선군 때에 언제나 일산(日傘)을 붙잡고 있던 어린아이를 아는가?"

신하들은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이제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가?"

"죽은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사람됨이 착했던가? 나빴던가?"

"신 등이 항상 그를 보았는데, 선왕을 받들어 섬기면서 재계와 공경과 정성스런 믿음으로 제 몸을 지켰으며, 법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제 만약 그 아이가 있을 때 입었던 옷을 보면 알아보겠느냐?"

"비록 오래되었으나, 신 등은 본디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죽은 어린아이의 옷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서 말했다.

"이것이 그것인가?"

"그것입니다."



삽화 · 강병호

"이제 만일 아이의 몸을 보게 되면 알아보겠느냐?"

신하들이 한참 만에 대답했다.

"신 등은 어슴푸레해서 갑자기 보면 분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에 만났던 도인이 왔다.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도인에게 말했다.

"머리를 팔려 했으나 걸인도 가지지 않았으므로 이제 그 본말을 보이려 하는데, 다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자 도인은 이내 신하들을 위하여 말했다.

"왕은 본시 선왕 때에 일산을 붙잡았던 어린아이입니다. 언제나 선왕을 따르면서 재계하고 바른 법을 받들어 행하였으며 깨끗하게 뜻을 수호하여 모든 악행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에 죽어서 왕자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존귀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전생에 재계를 행한 까닭입니다."

신하들이 다함께 말했다.

"우리들은 다행하게도 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가엾이 여기시어 제자가 되게 하소서."

도인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에게는 큰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에게서 받고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 신하들이 말했다.

"이 목숨이 다하기까지 한 번이라도 법의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도인이 말해다.

"나의 스승임의 명호는 부처님이라 합니다. 공중을 날 수 있고 정수리에는 광명이 있으며, 몸을 분산시켜 만 가지로 변화하고, 홀로 삼계(三界)를 거닐어서 짝할 이가 없으며, 문도들은 깨끗하여 모두가 사문이고, 그 가르치신 바에 의해 지도되고 해탈되어 허망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도인이게 물었다.

"부처님을 어떻게 뵐 수 있습니까?"

"6천 여리쯤에 계십니다."

도인이 날아서 사위국에 도착해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일 가겠다."

그리하여 부처님과 비구들은 부연국에 와서 거룩한 신력을 보였다. 왕과 신하들은 꽃과 향을 가지고 성을 나가 부처님을 맞았으며, 부처님의 거룩하고 신령함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머리 조아려 예배했다. 왕은 마음을 다해 공양을 베풀고 손수 나르며 씻을 물을 올렸다. 축원을 마치고 부처님께서 웃으시니 입에서 오색의 광명이 나오자 아난이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허망하게 웃지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옛날 마하문불 때에, 왕은 큰 장자 집안의 아들이어서 그 아버지가 3존께 공양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하여 향을 전하게 했다. 그때 어느 한 시자를 마음속으로 가벼이 여겼기에 그 향을 주지 않았었다. 죄와 복은 향응이라 잠시 동안 부림의 과보를 받았으나 법 받들기를 그만두지 않았기에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으며, '만약 내가 도를 얻으면서 이 사람들을 제도하리라' 고 했었다."

이 본말을 말씀하시자, 뜻이 이해되어 이내 수다원이 되었으며, 나라 안의 백성들은 모두가 5계를 받고 10선을 행했다. (〈조달왕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㊸



반달은 원영이가 먹고 남은 달

손자도 스승

손자 원영이의 전화를 받았다. 어린 애기 때부터 무수한 법문을 토해내던 외손자 원영이를 나는 스승님이라 생각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 원영이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법문을 했다. 세 살 무렵, 가족이 서울 선유도에 나들이를 갔을 때였다. 하늘을 바라보니 반달이 떠 있었다. 나는 그 달을 보고 오늘이 며칠이기에 반달일까? 하고 혼잣말을 했다. 그때 원영이가 말했다.

"할머니 반달은 원영이가 달의 반을 먹어버려서 반달만 남은거야."

나는 너무 놀랐다.

"달을 먹었다고?"하며 되물었더니 그 세 살짜리 아기가 벌떡 일어서면서 말했다.

"달을 먹었더니 이렇게 커졌지요."

나는 이 놀라운 말에 또다시 물었다.

"달이 무슨 맛이었는데?"

그러자 원영이가 대답했다. "달은 달 맛이지"

그날은 세 살짜리 아기로부터 한 소식을 듣는 날이었다. 그 후 어느 날 백담사 참배 가는 길 차 속에서 원영이가 말했다.

"할머니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 살다가 여러 문을 거쳐서 한국에 왔어요."

너무나 놀란 나는 또 물었다.

"달은 달맛이지" 어린 손자에게 듣는 법문

"그럼 어디에서 많이 살았나요?" 했더니 "미국과 일본에서 많이 살았어요." 라고 했다. 겨우 4살 아기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매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늘 감동하고 감탄하며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다섯 살 때 친손자가 태어나는 날, 그날도 큰 딸 근영이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차 지붕이 열려 있어 또래인 사촌 사나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어! 오늘은 어제보다 달이 더 뚱뚱 해 졌네!"하고 사나가 말하자 원영이가 답을 했다.

"응 어제 내가 삼켰다가 오늘 토해냈더니 저렇게 큰 달이 되었어."

어느날, 엄마의 핸드폰으로 큰 나무를 찍어서 내게 전송하면서 한 말씀 덧붙였다.

"할머니도 이 큰 나무처럼 큰마음으로 큰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법문은 무엇인지요?"하고 전화로 청하기도 했었다.

어느 날, 내게 이런 질문도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고민을 하다가 "사자나 코끼리가 아닐까" 했더니 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땅이 제일 힘이 세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무거운 기차도 빌딩도 그리고 차들도 들도 산도 모두 다 땅이 이고 있으니까 힘이 젤 세지요" 했다.

안개가 많이 낀 날이 있었다.

"할머니 지금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안개를 없앨 수 있나요?" 하기에 나는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 기다려야지요." 했더니 손자의 답은 "바람이 씨웅~씨웅~ 불어오면 안개는 바람 따라 날아가고 말 거예요" 했다.

"밥을 많이 먹었나요?" 하고 물어 볼 때면 "나는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똥을 먹었지요." 하기에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더니 "밥을 먹으면 똥이 되지요" 했다.

무수한 원영이의 이야기들을 나는 큰스님의 귀한 법문이라고 생각했고 '손자도 스승' 이라 생각했다.

학교에 입학을 하고, 생활이 바뀌게 되면서부터 나와는 점점 전화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어느 날 물었다 "왜 요즘엔 법문을 안 해주느냐?" 했더니 "이미 그동안 다 해 줬으니 그걸 잘 생각하면 되지요." 하는 것이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지금은 학교 숙제도 해야 하고 그림도 그려야하고 학원도 가야하니 바빠서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래! 나도 일곱 살이 되면 이런 법문 듣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었음은 그 맑고 깨끗한 영혼에 세상의 많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면서 전생의 익힌 습성을 덮어가기 때문이리라. 조금 아쉬운 마음이지만 잠재된 지혜만은 언젠가 또 다시 빛으로 나타나리라 믿으며 더 큰 스승으로 세상의 어른이 되어 줄 것을 축원했다.

그런데 오늘은 문득 그 묻힌 보석 같은 화두를 꺼낸 것일까? 원영이가 얘기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왜 하필이면 강원영이란 이름으로 태어났을까? 사람들은 천상이나 극락에 가야만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믿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극락과 지옥이 있는데…"

오랜만에 듣는 원영이의 말이었다. 어제도 전생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먼 옛적의 전생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았으며 또 무슨 업연으로 살았을까? 옛날 우리가 자랄 때 아버지께서 날마다 칠판에 글을 써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 생각난다. 과거생의 내 삶이 궁금하면 지금의 내 삶을 보면 알 것이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보면 알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다! 말 한마디의 상처가 아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렵혀진 강물이 맑으려면 또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가야지만 맑은 물이 되어 흐르게 될까? 익힌 나쁜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 한 번 생각하고 말할 것이며 한번 생각하고 행동 해야만 나도 남도 상처와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의 스승님의 말씀처럼…

부산 연꽃모임회장





대행 스님

일체를 다 나온 자리에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마음의 눈빛이, 서로서로를 왕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오며 가며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즘뿐만은 아니겠지만 장애자들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장애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기를 내 내면의 용광로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놔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이니까 제자리에다 돌려놓으면은 바로 과거에 입력된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그대로 팔자 운명으로 나온다면, 십중팔구 그런 문제들이 대두될 겁니다.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장난이다.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활 자체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용광로에다 되돌려 놓는다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다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거는 정한 이치다 이겁니다. 인과의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이라든가 세균성, 영계성 이 문제도 모두가 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은 거기에다 되돌려 놔야만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앞서의 입력된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현실에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두가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고들 야단들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한 군데서, 즉 말하자면 가던 길에서 엎드러졌기 때문에 허공을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그것은 일어설 수가 없다. 단 엎드러진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자라나는 새싹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이 외국으로도 가게 되고 또는 한국에서도 대치할 수가 없어서 애를 쓰고 그러는 거를 볼 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렇게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나갈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세가 들어서 노인네다 할지라도 지금 모습이 노인네지 마음이 노인네가 아닙니다. 어린애고 어른이고, 젊었고 늙었고 간에 마음은 그대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또 다시 나올 때에 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하간에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왔으면은 이름 그대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천이 없이 이론으로만 알고, 학설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무슨 공자, 맹자 소리나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을 외로 꿰고 바로 뀐다 하더라도 한 번 실천만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천궁행하는 것을 가르쳤지 말을 배우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알아야 하겠기에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기가 뿌려놓은 자식들도, 자기가 또 뼈와 살을 빌려서 난 부모들도, 역시 그 은혜를 백분지일이라도 천분지일이라도 갚으려면 이 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모두가 한 번 한 생각 잘못해서 장애자가 나온다 한다면, 그것은 장애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식구들도 전부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장애자보다도 정신장애자가 모두 생깁니다. 그러고도 장애자가 났으면 부모가 기르다가, 부모가 죽으면 누가 맡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자를 낳으면 모두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버리면 그 모습만 갖다 버렸을 뿐이지 그 인과의 유전은 절대로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대에 그렇게 됐으면 또 그 다음 대가 있고, 2대가 아니면 6대, 7대 이렇게 해서 빨리 나오는 게 있고, 더디 나오는 게 있고 이럴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더러더러 옵니다마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딨느냐 하면 과거에 인과로서의 유전이 된 그 자체가 바로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할 때 하나하나가 장애자 낳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두들 잘 아시겠죠. 이론으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생활 자체가 모두 바로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애고도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병고도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가 한두 건 입니까, 어디? 그러니 이 한두 건이 아닌 찰나찰나에 용도가 바뀌면서 나투어서 다가오는 그 모두를 어떻게 타파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저것 나눌 게 아니죠. 이거는 못하고 하고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것은 바로 불바퀴에다 놓으면은 그냥 타버리게 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불바퀴라고 하니깐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숙명통(宿命通), 즉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 말입니다. 지금은 더 잘 아시겠죠. 거기다 입력을 하면은 입력한 대로 꺼내서 쓸 수 있고, 입력한 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은 좋든지 나쁘든지 다 입력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입력돼서 나오는 그 자리에다 다시 돌려놓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인생의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한테 누누이 수없이 그런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백 번을 반복해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사람은 닿는데 왜 자기는 닿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과거의 업이 두꺼워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 자체가 있다는 생각도 거기다가 모든 걸 놔버려서 아주 말갛게 물리가 터져야 됩니다. '나는 업이 많아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안될 거야. 나는 힘이 없어.' 이런 마음조차도 거기다가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몸으로써 지수화풍을 먹고 살며 지수화풍 속에서 그 광력이나 전력、자력、통신력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이 공기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기주머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듯이 말입니다. 물 바깥을 벗어나면 고기도 죽어요. 그렇듯이 사람도 역시 이 범위 내에서 내 내면세계에서 벗어나면은 이탈이 된 것이고 고기가 물 바깥에 나온 거나 진배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죽겠네 살겠네 하고 야단법석이 나는 거죠. 물이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물이 아주 없어지면 없는 대로 죽는 거고 그러니 사람과 이 고기가 모두 뭐가 다르겠습니까? 살아나가는 방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들이 자기를 이끌어가면서 자재하면서 모든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생명이 유지되니 감사해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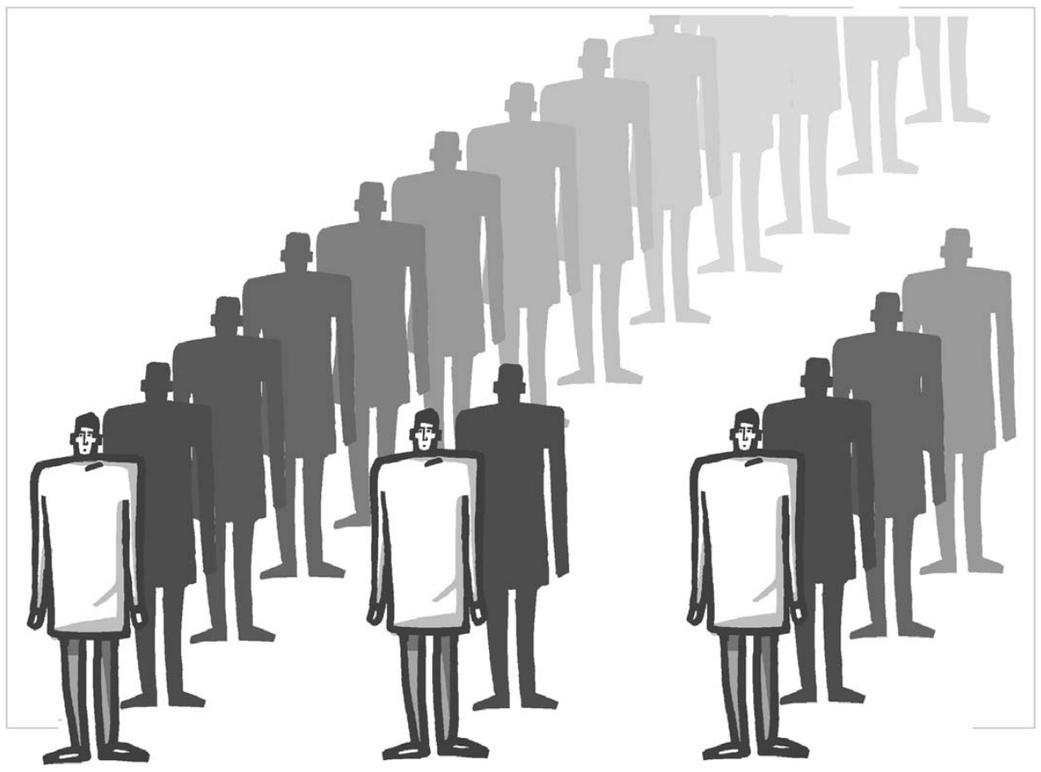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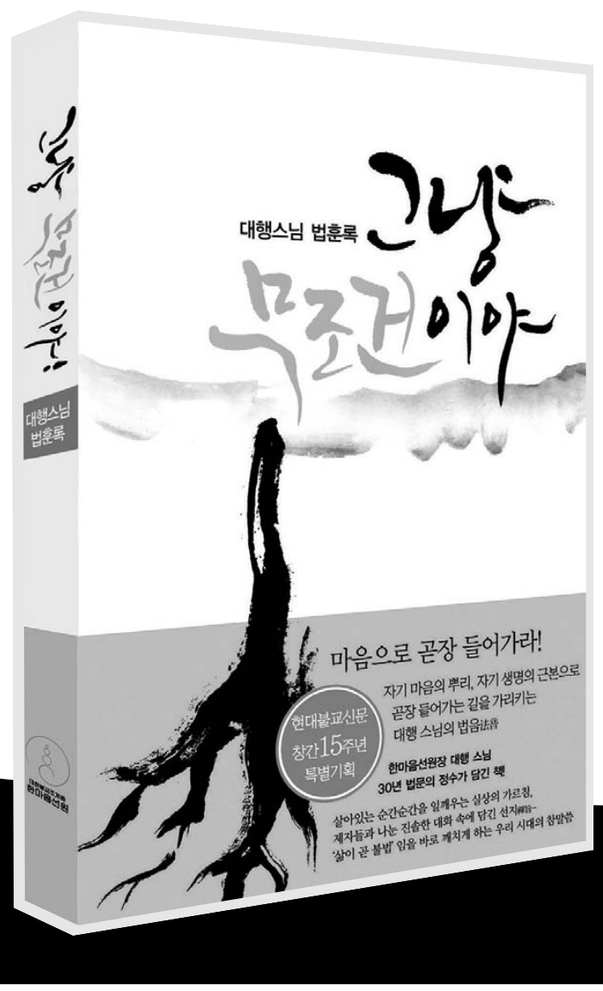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마음의 용광로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야 하고, 먹지 못하면 죽으니깐 감사해야 하고, 먹으려니 불이 있어야 하니깐 감사하고, 하하하. 또 땅을 걸어다니고 심어 먹어야 하니까 감사하고 또는 독불장군이 없이 서로 공생(共生)하고 공용(共用)하니까, 공식(共食)하니까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가 길러줬으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한데 합친 자체가 바로 이름해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그대로 생활입니다. 도(道)도 생활이요, 바로 부처도 생활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어떤 것을 나누어서 이것이 부처님 법이고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자식이나 남편을 다 제쳐놓고 그냥 염불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불을 할 때는 이 지구가 돌아가고 염불을 안 할 때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염주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염주를 목에 걸고 손에 들고만 다녔지 그 염주가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염주를 돌렸다 놨다, 돌렸다 놨다 한다면 그거는 시공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염주를 내 내면 속에 넣고 항상 우리가 생활할 때 나투면서 한 발 딛고 한 발 들고, 한 발 딛고 한 발 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염주를 돌리는 겁니다. 생활 그 자체가 그대로 진리인 까닭에 그것이 도며, 그것이 참선이며 모든 것에 어긋나지 않는 여여함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제쳐놓고 부처님 앞에, 불당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대 성인들이 모두 이런 말을 했죠. 너부터 알라고요. 네가 태초요, 네가 바로 부처요, 네가 있으니깐 이 자체가 모두 생긴 것이다. 세상이 벌어진 것도 너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분이 안 계시다면 모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 내가 죽어도 뭐 세상은 다 있고 사람들은 다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자체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영원한 이 길을 상세히 아실 겁니다. 이 길이라 함은 시발점과 종점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여여함이 돼서 여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서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나는 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고(苦)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다는 생각도 말고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가 넣듯이 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용광로에 놔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금은 금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요, 은은 은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요, 차원대로 자기가 짓는 대로 그것이 생산이 돼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나온 자리에다가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잠깐 했습니다.

질문자1(남): 마음공부를 해나가면서 걸리는 대목이 있어서 큰스님께 질문드립니다. 대구 성서국민학교의 다섯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일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누가 죽어도 꿈에 나타난다든지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 알 수 있다고 하지요. 그들의 전생은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인생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만난 질기디 질긴 인연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들이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이 여론이 보도되어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버린 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을 내었지요. 그중에는 저와 같이 한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불법과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을 내었다고 보는데 공부를 한 자나 인연 없는 중생들 역시 모두가 한마음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들의 소식은 없는지요.

큰스님: 이런 게 있죠. 과거에 판사가 판결을 냈습니다. 판결을 냈는데 지금 그 판결은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에 판사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판사가 해놓은 것은 그만한 엄연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로 도로 온 판사가 그것을 무죄로다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했죠.

예전에 못 먹고 주릴 당시에 깨밭에 그 깻벌레를 깡통에다 주워서 모두 오줌통에다 넣어서 죽이고, 개구리를 잡아서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껍데기를 산 채로 벗겨서 이렇게 모두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보니까 깻벌레나 개구리나 이것이 아주 이 은연중에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서 인간으로서 그 집 자식으로서 환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시다 보시고 "여보시오, 이러이러하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그 아들 둘이 서당에 갔는데 오기 전에 전부 망으로 된 철사로다가 이렇게 뚱그렇게 치고 거적을 쌓아놓고 거기다 겻불을 해놓고 그러고서 독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이럭하고 지켜보시오. 그러면 악마구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엄마! 아버지, 아버지!' 하고 찾을 테니 그 소리가 다 끝났어도 한 시간 두 시간 지난 후에 나와서 그 둥우리를 보시오. 둥우리를 둘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 둥우리를 보면 알 바가 있소."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독 속에 들어가서 있으려니까 "아버지, 엄마!" 하면서 "배고파!" 하면서 들어오더니만 아, 그냥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야단법석이 났더랍니다. 야단법석이 나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연놈들이 어디로 갔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아주 사그리 먹어치우고, 이 연놈들 어디로 갔어? 원수를 갚아야 할 텐데. 이놈들 어디로 갔어?" 하곤 그냥 펄펄 뛰고 시간이 넘으면 이제는 이 인생으로서 잠깐 환생했던 것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것이 없어질 텐데, 이 시간이 넘으면 안 될 텐데, 이 연놈들 어디로 갔느냐고 그냥 펄펄 뛰더랍니다. 그러고는 엉엉 울면서 펄펄 뛰는데 그 소리가 점점점점 작아지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세상에 원수 갚기도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소리가 잦아지더랍니다.

그래 떨리고 무서워서 독 속에서 두어 시간 서너 시간 있다 나와 보니까 하나는 깻벌레고 하나는 개구리고 그냥 얼기설기한 그 쇠에 붙어서 죽어가면서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죽인 만큼 수효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 쇠에 꽉 찼더랍니다. 그러니 한 바가지씩 그렇게 잡아다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세월이 그래서 그랬지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렇게 해서 나와 보니까 너무나 떨리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도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어떤 생명이든지 이제는 죽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두 부부는, 절간으로 올라가서 자식들이 그렇게 원수로 태어난 것을 빌어주면서 그 개구리나 깻벌레가 인도 환생을 해서 잘 살게 천도를 해달라고 공양주 노릇을 하고 부목 노릇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만 마리를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 되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잡아먹은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다가 놓으니까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만 마리가 바로 원자에서 입자가 났다가 입자가 원자로 들면은 하나가 되고,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빗방울이 수없이 많은 빗방울이 떨어졌어도 골짜기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에 떨어지는 물이 그렇게 수효가 많아도 바다는 바다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거기다가 진정코 제자리에다 되놔야만이 그것은 인도환생을 하면서 천도가 되면서, 자기 업보가 없어지면서 그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1(남): 큰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회 나는 대로 큰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나의 전생을 알려면 현세의 나를 볼 것이며, 내세의 나를 보려면 현세의 나를 보라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허리, 다리가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전생에 제가 어떤 업으로 이러한 고통을 겪는지 해결이 안되어 큰스님께 여쭈며 내세에 또 다시 이런 고통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 죄송합니다. 좋은 법문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직껏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공(空)이다 색(色)이다 그게 둘이 아닌 까닭이니라. 병 붙을 자리도 없고 업보가 붙을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고가 붙을 자리도 없느니라. 모두가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반야심경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습에 의해서 마음이 '나는 이렇게 병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까닭입니다. 또 인간이라면 업보가 있다, 없다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모두, 병도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해서 심부름하게끔 끌고 가려무나 하면 됩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도 몸과 정신과 이 마음내는 거와 법이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와 법신과 화신이 둘이 아닙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몸뚱이 네 시자를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다녀야지, 누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다녀?' 하고 거기다가 막바로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군데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유마힐 거사는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갔을 때 '나는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인 이 소우주 소혹성한테서 발견을 해보십시오. 내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생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즉 자기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 마음과 자기 몸뚱이 속에 들은 거와 자기 몸뚱이를 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입니다. 한 몸뚱이입니다. 장 공장에서 파워를 일으키면 전체 공장이 쓰러집니다. 전체 공장이 쓰러지면 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주인공' 하면은 색(色)과 공(空)이 둘이 아닌 그 모두를 한꺼번에 바로 도리천에 놓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 모든 것은 되돌려 놓는 거기에서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또 거기서만이, 네 몸뚱이 네가 고쳐서 건강하게 끌고갈 수 있는 거는 거기다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고 물러섭니다. '이거 왜 이래? 이런 게 뭐 어디 있어?' 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물러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믿고 거기에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거기에다가 '병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네 몸뚱이 네가 안 아프게 해서 끌고 다녀라.' 하고 놓는다면 아마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와선이니, 좌선이니, 행선이니, 입선이니 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그냥 참선입니다. 그렇게 돌려서 한군데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돌려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질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다 좋죠.

(다음 호에 계속)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나는 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고가 많다고 생각지도 말고
죄가 많아서 이렇다는 생각도 말고
모든 것을 용광로에 집어넣듯 다 놔버리세요.

※위 법문은 1992년 1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直指人心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초판 일주일 만에 2쇄 발행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 《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 《직지》를 연기론적으로 풀어낸 《직지, 길을 가리키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기론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아주 쉽게 《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저자의 별처럼 빛나는 통찰력과 혜안으로 《직지》에 담긴 게송과 선문답에 대한 촌철살인의 단상(斷想)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가리키는 대로 걷다보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열릴 것이다.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 요코야마 코이츠(橫山紘一) 지음, 김명우 옮김
232쪽 / 10,800원 / 4×6판

Tel. 02)732-2403~4 민족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오극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트)

Tel. 02)732-2403~4 민족사

불자 세상보기

10·27법난 33주년 소회

법난, 33년 간의 통증



원행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월정사 오래 된 신도 여래장 보살은 착하다. 이 착한 보살의 군인 아들은 내 목에 권총을 겨누고 나를 원주시 태장동 천일공사 대공분실로 끌고 갔다. 컴컴한 대공분실 벽 안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날아오는 고함 소리.

"야, 이 중놈아. 군복으로 빨리 갈아입어."

여기 저기서 퍽퍽 내리치는 소리와 고통의 비명은 끊이질 않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쇠몽둥이 도리깨질, 시멘트 바닥에 낭자하는 피와 울부짖음. 물구나무 세워 콧구멍을 막고 고춧가루와 양동이 물바가지를 퍼붓기, 이름하야 고춧가루 물고문. 혼몽 중에 나는 최면에 걸린 듯 까마득하게 잊었던 어린 시절의 어느 날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생하게 앞에 다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기절하면 군인은 찬물 세례로 깨웠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히고 다그쳤다.

"월정사에서 10년 동안 재무 소임을 봤잖아. 비밀 자금 어디에 숨겨놓았으며 비밀 아파트와 여자는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빨리 적어. 무엇 때문에 중이 되었는지, 북한 간첩과는 몇 번 만났는지 실토해. 중이 된 후에 자세한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라고. 알았어?"

부서진 발목과 부러지고 흔들리는 치아와 퉁퉁 부은 얼굴로 원주 천일공사 보안부대를 나설 때, 공금이나 사금이나 통장을 모두 압수당했으니 절 살림을 어찌 꾸려야 할지 막막했다. 무엇을 위해 산승이 됐으며 어떤 인연으로 오늘 이 치욕을 당하는 것인가. 10·27법난은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많은 스님이 통증으로 열반하셨고 또 많은 분이 휠체어나 지팡이를 의지해 수행하고 있다.

참으로 무상(無常), 무락(無樂), 무아(無我), 무정(無淨) 이다. 능견(能見)과 소견(所見)인 경계를 보지 아니해 없어지지 않는(無滅)것이 열반. 분별을 보지 아니하고, 상(相)과 무상(無相)을 보는 것이 열반. 열반은 가히 취할 바도 아니며 가히 버릴 바도 아니요, 단멸도 아니며 떳떳함도 아니라고 했다.

금년에도 찾아오는 계절처럼 예외 없이 조계종 총무원과 10·27불교법난위원회에서 10·27법난 기념식에 피해자를 대표해 나에게 인사말을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와 함께 매년 가을 단풍철 10월에는 정기적으로 나에게 계절처럼 찾아오는 통증이 있다. 그곳은 왼쪽다리 복성부분 관절부분으로 10·27불교 법난 시 고문당해 수술한 부분이 항상 나를 절뚝거리게 하고, 시려오는 치아도 모두 부서져 항상 이 결실과 환절의 계절에 나의 육신을 통증으로 괴롭힌다.

3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피해보상과 사과 없이 또 한해가 지나고 있고, 그 무섭고 두려운 종교 탄압이 조사기간 연장과 정부의 시간끌기로 많은 피해 당사자 스님들은 열반했다. 나는 지난 34대 총무원장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의 소임을 수행한 바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법난위원회에서는 이 법난의 진실을 조속히 밝혀 주기를 기원하며 전 재산이 29만원이었던 당시의 대통령의 수백억 재산이 압류됐다는 사건은 나의 통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오대산에 출가하여 월정사에서 10년간 원주와 10년간 재무, 총무 10년 또 10년간 부주지 소임을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한국불교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의 '일생패궐' 을 한 번 더 봉독하며 다시 음미하는 새벽이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흔들리는 풍경소리가 탑돌이 하는 나의 심금을 바이올린 G현의 소리로 연주하는구나!

중국불교박람회를 다녀와서

박람회는 불교문화를 담아내는 불사



김 민 지
2014불교박람회 사무국장
소셜벤처
마인드디자인 대표



중국 하문에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중국 국제불교박람회 전경.

하문, 중국 남동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샤먼(廈門, 하문)이라 부른다. 이 도시는 수심이 깊고 겨울에 얼지 않는 천혜의 항구로 고대부터 무역항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래 전부터 무역항의 역할을 해 온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이 도시는 박람회를 하기에 적절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8회를 맞는 '중국하문 국제 불사용품 전람회(이하 하문불교박람회)' 의 주최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 하문불교박람회는 차 박람회와 함께 진행되는데 이런 이유로 관람객도 주최 측도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하문불교박람회는 부스 8만평, 4500부스의 대형 규모이며, 업체 수는 1100~1200업체로 매년 2~3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전시기간동안 총 관람객은 12~15만명이고, 하루 대략 3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간다.

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래국향 하문불교박람회 주최사 총경리와 차담을 갖으며 불교박람회와 하문불교박람회가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중국불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동안 불교관련 업체들이 더욱 더 많아졌고, 때문에 정부지원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중국불교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하문불교박람회 측의 설명에 중국불교와 중국불교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박람회를 통해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생활 불교' 의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박람회의 개막식부터 느낄 수 있었다. 개막식 단상에 여러 내빈을 소개하는 자리에 스님이 한분도 없었다. '이상하다' 는 생각으로 관람을 하며 일반인과 스님의 비중을 확인해 보았더니, 2:8정도로 스님이 2~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집 안에서도 불단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 중국인들에게 불교용품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비층은 자연스럽게 스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이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 하문불교박람회에서 느꼈던 점은 그들만의 전통문화의 색을 '불교' 라는 테마로 엮어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스마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전시장에 들어오면 '동양적이다, 중국의 느낌이다, 이곳은 역사가 오래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계속 하게 된다. 약 2000년을 함께한 종교와 그 종교에서 파생된 예술과 문화의 향연을 박람회라는 장소에서 거침없이 발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문불교박람회는 국제불사용품박람회로서의 기품도 다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성종사와 나전칠기 장인도 함께 전시하였고, 베트남, 태국까지 아우르는 불교용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었다.

하지만 참여 국가들의 표시가 간판과 부스정보에 기입돼 있지 않아 어떤 국가의 불교문화인지, 불교 상품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영어로 표기된 설명서나 홍보물이 없어서 박람회에 대해 깊이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각 섹션에 대한 분리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관람을 하기에 편리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박람회는 문화?산업?관광 등 다양한 방면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여러 가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한국 불교역사의 1700년을 함께하고 현재 문화재 중에 7~80%에 육박하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 문화와 산업을 박람회로 담는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2014불교박람회를 실속있게 준비해 불교문화와 발전이 대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불교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곳곳에도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란다.

社說

언제까지 대안교육 불모지 일텐가

한국의 대안 교육의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이제는 제도권 공교육에 이탈됐거나 새로운 교육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찾고 있다. 계속적으로 다양한 대안 교육의 장들이 생겨나고 있고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종교들도 적극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불교에게 이 같은 대안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다. 현재 대안학교 및 대안 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총 54곳 중 불교계 대안학교는 전무하다.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19곳, 원불교 대안학교는 10곳에 이른다고 한다.

학교 외 민간단체의 대안학교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여 곳에 이르는 민간단체 대안학교 중 기독교 사상을 표방한 학교는 약 133곳에 이르지만, 불교계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실상사 작은학교 등 3곳 뿐이다. 장기 위탁형 대안학교 역시 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인드라망 대안대학' 이 준비되고 있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불교는 대안교육의 장이 되기에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사찰이 가지는 자연환경부터 불교 철학과 사상은 아이들을 전인적 인간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다.

하지만 불교 대안학교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관심이다. 십여 년째 실상사 작은학교를 운영해 온 도법 스님은 학교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불자보다는 이웃종교 학부모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불교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재정이 넉넉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불교적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대안교육의 장을 열어야 한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비제도권 교육에서도 불교계는 설 자리가 없다. 경각심을 가질 때다.

동국대 '비전 2020' 과 함께 도약하자

동국대 불교대학과 대학원이 2014년 설립 108주년을 맞아 활발한 도약을 준비중이다. 이에 11월 26일 서울 엠버서더호텔서 '비전 2020 선포식' 을 갖는다.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를 불교 이념으로 선도하기 위한 도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 실천과제로 우선 동국불교센터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과 대학원은 단독적인 건물이 없어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등 환경이 열악한 것이 그 이유다. 불교학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을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불교센터를 건립해 불교학의 선진화와 한국불교의 세계와, 불교의 사회적 소통 등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추진하는 '비전 2020' 에는 학부·대학원의 연계 활성화, 불교학 허브(HB)구축, 한국불교세계화 인프라 구축, 국제적 학문 후속세대 육성 및 불교인재 양성, 불교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불교학 발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

분과도 세분화시켜 제 1분과 교육과 연구 분야에는 대학원 및 학부구조 정비와 불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학제 간 연구 및 불교대학원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포교사업을 펼친다. 제 2분과인 국제화와 세계화 분야에서는 해외 불교대학과의 자매결연 확대, 국제적 불교인재 육성, 동북아 3국 복수학위 취득, 동아시아 수행프로그램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 3분과인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불교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일반인들에게 체계적인 불교 교육을 할 생각이다. 이런 계획들이 실천에만 잘 옮겨진다면 불교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곧 불교학의 발전이고 한국불교의 발전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비전 2020' 에 거는 기대가 크다. 비전이란 실행에 옮겨졌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연꽃 같은 정수기, 시걸포!

연꽃이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정화하듯 시걸포는 내 몸에 물을 정화합니다



www.seagull4.co.kr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고 객 문 의
080-007-0980